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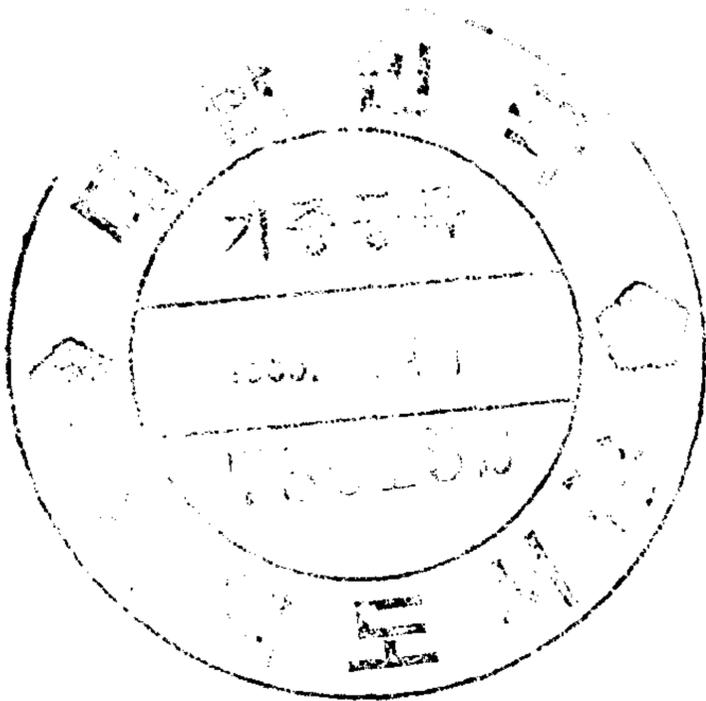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홍두승 (서울대 교수)

김병조 (국방대학원 교수)

조동기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통 계 청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199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심층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자료집계 그리고 23권의 최종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여러 인구, 사회 및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중 일부 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표본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 자료의 대표성과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아울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도출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센서스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 주요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1995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적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 주제에 걸친 연구결과를 각각 개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경험해 온 급속한 인구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 인구구조, 가구 및 가족, 노인, 교육, 노동력의 특성과 그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그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함축하는 사회정책적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과거 30여년간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변모해 온 농촌사회 제반 변동의 실상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인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지역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의 경제활동구조 등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택수급과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주택 및 주거환경을 평가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 향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통근학 발생·도착량,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통근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부문의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권에서는 기존의 각종 가구추계기법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각 가구추계기법의 현실성, 타당성 및 기본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가구추계기법을 선택하여 가구규모 및 유형별 장래 가구수의 추계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직업구조와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직업구조의 변화를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야별로 많은 연구자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및 경제부문에 걸친 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2월

통 계 청 장
김 병 일

목 차

목차	i
표차례	iii
그림 목차	v
서 론	1
제1장 직업과 직업분류	3
1. 직업의 의미	3
2. 직업의 분류체계	4
3. 기타 직업관련 통계조사	8
4. 분석자료	12
제2장 직업구조의 변화: 개관	14
1. 경제활동과 직업구성 추이	14
2. 성별 직업분포의 변화	19
3. 연령구성의 변화	22
4. 학력구성의 변화	26
5. 종사상의 지위 구성의 변화	30
제3장 직업구조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32
1. 정보화 사회: 이론적 자원	32
1) 정보화와 전문화	33
2) 정보산업의 내용	34
3) 정보화와 <탈숙련화>	35
2. 정보화와 전문화: 경험적 고찰	36
1) 자료 및 직업군 분류	36
2) 산업구조의 변화	37
3) 정보직업군	40
4) 사무직의 여성화	41
5) 봉급·임금 근로자의 증가	43
6) 탈숙련화	46

제4장 직업의 구성과 특성: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	49
1. 직업구성: 대분류	49
2. 전문·관리·기술 직업군	51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3
2) 전문가	54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57
3. 사무·판매·서비스 직업군	59
1) 사무직원	60
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61
4. 농어업·생산직 직업군	63
1)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64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66
3)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8
4) 단순 노무직 근로자	69
5. 직업분류체계 변화와 직업구성	71
제5장 직업과 계층구조	78
1. 직업과 불평등구조	78
2. 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연구	79
1) 직업분류에 의거한 사회계급분류	79
2) 계급상황에 따른 직업분류	80
3) 지배-피지배 관계에 따른 계급분류	85
3. 한국에서의 계층연구	87
1) 계층분류	87
2) 계층구조의 변화와 특징	89
4. 계층분석의 과제	98
1) 계층분석의 단위	98
2) 계급모형의 문제	101
제6장 요약 및 결론	104
1. 직업구성 변화의 유형	104
2. 취업자의 특성	105
3. 정보사회화	106
4. 조직사회화	106

5. 성별 분절	107
6. 계층구조의 변화	107
7. 인구센서스 보완을 위한 제언	108
보론	109
참고문헌	122

표 차례

〈제1장〉	
〈표 1-1〉 직업분류의 시기별 변화	5
〈표 1-2〉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대분류)비교, 1968-1988년도	5
〈표 1-3〉 직업분류체계(대분류) 비교, 1974-1992(한국표준직업분류)	6
〈표 1-4〉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직능(교육·훈련)수준	7
〈표 1-5〉 연도별 종사상의 지위 범주의 변화	8
〈표 1-6〉 〈인구및주택센서스〉,〈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구조조사〉의 비교	10
〈제2장〉	
〈표 2-1〉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5-1995 (남성)	15
〈표 2-2〉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5-1995 (여성)	16
〈표 2-3〉 직업구성의 변화, 1955-1995)	18
〈표 2-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1995 (남성)	20
〈표 2-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1995 (여성)	20
〈표 2-6〉 직종별 여성비의 변화, 1955-1995	21
〈표 2-7〉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1995	22
〈표 2-8〉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1995	23
〈표 2-9〉 교육수준 변화추세, 1955-1995	26
〈표 2-10〉 교육수준 변화추세, 1960-1995	26
〈표 2-11〉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27
〈표 2-12〉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	28
〈표 2-13〉 생산직 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 1960-1995	29
〈표 2-14〉 농림수산업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29
〈표 2-15〉 종사상의 지위 구성비 변화, 1960-1995)	30
〈표 2-16〉 직업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의 변화, 1960-1995)	31

〈제3장〉

〈표 3-1〉 지식/정보산업을 측정하는 범주의 비교	34
〈표 3-2〉 직업별 산업 분포, 1990,1995	38
〈표 3-3〉 산업부분별 종사자 비율	39
〈표 3-4〉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농업)	39
〈표 3-5〉 주요 정보직업군의 크기	40
〈표 3-6〉 직업별 여성구성비,1990-1995	42
〈표 3-7〉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 구성, 1990	43
〈표 3-8〉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 구성, 1995	44
〈표 3-9〉 직업별 교육수준 구성, 1990	46
〈표 3-10〉 직업별 교육수준 구성, 1995	47

〈제4장〉

〈표 4-1〉 직업별 성별구성, 1995	50
〈표 4-2〉 직업별 연령구성, 1995	50
〈표 4-3〉 직업별 학력구성, 1995	51
〈표 4-4〉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53
〈표 4-5〉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학력별 구성	54
〈표 4-6〉 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구성	55
〈표 4-7〉 전문가의 학력별 구성	56
〈표 4-8〉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구성	57
〈표 4-9〉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학력별 구성	58
〈표 4-10〉 사무직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60
〈표 4-11〉 사무직원의 연령별 구성	60
〈표 4-1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구성	62
〈표 4-13〉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62
〈표 4-14〉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65
〈표 4-15〉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65
〈표 4-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66
〈표 4-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67
〈표 4-1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68
〈표 4-19〉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학력별 구성	69
〈표 4-20〉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70
〈표 4-21〉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71

〈표 4-22〉 신·구 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포 비교, 1995	72
---	----

〈제5장〉

〈표 5-1〉 영국의 사회계급 분류	80
〈표 5-2〉 영국의 사회경제집단 분류	82
〈표 5-3〉 사회경제집단과 사회계급, (영국, 1991: 10%표본)	83
〈표 5-4〉 골드소프의 계급모형	84
〈표 5-5〉 플란차의 계급모형	85
〈표 5-6〉 라이트의 계급모형	86
〈표 5-7〉 김영모의 계급구분	87
〈표 5-8〉 홍두승의 계급구분	88
〈표 5-9〉 서관모의 계급구분	89
〈표 5-10〉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91
〈표 5-11〉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92
〈표 5-12〉 계급구성의 변화, 1960-1995 (남성)	93
〈표 5-13〉 계급별 연령분포, 1995 (남성)	96
〈표 5-14〉 계급별 학력분포, 1995 (남성)	97
〈표 5-15〉 직업분류에 따른 계급분포, 1995 (남성)	98
〈표 5-16〉 계급구성의 변화, 1980-1995 (가구주)	99
〈표 5-17〉 성 및 가족내 지위별 계급구성의 차이, 1995	101
〈표 5-18〉 연령 및 학력수준별 계급 구성원 특성, 1995 (가구주)	103

〈제6장〉

〈표 6-1〉 직업구성 변화의 유형	104
---------------------------	-----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60-1995	17
〈그림 2-2〉 직업 구성의 변화, 1955-1995	18
〈그림 2-3〉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 1955-1995	24
〈그림 2-4〉 판매·서비스·생산직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 1955-1995	25

〈제3장〉

〈그림 3-1〉 여성의 직업참여 비율	42
〈그림 3-2〉 1990년과 1995년의 종사상의 지위 구성	44
〈그림 3-3〉 생산직의 학력별 구성	47

〈제4장〉

〈그림 4-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연령별 구성	54
〈그림 4-2〉 전문가의 연령별 구성	55
〈그림 4-3〉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연령별 구성	58
〈그림 4-4〉 사무직원의 학력별 구성	61
〈그림 4-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판매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62
〈그림 4-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65
〈그림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67
〈그림 4-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연령별 구성	68
〈그림 4-9〉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70

〈제5장〉

〈그림 5-1〉 계층구성의 변화, 1965-1995 (남성)	94
---	----

서론

1960년대 이래 우리 사회는 산업화, 관료제화, 도시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급속한 구조적 변동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직업구조도 크게 변모하였다. 1960-70년대를 통하여 가속화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인구의 수와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2차 및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어 왔다. 또한 노동의 질과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예컨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크게 증가하여 전통적으로 남녀간 분리되어 왔던 직종에서 남녀 혼재현상이 점차 나타나면서 과거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직종에 대한 여성들의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더불어 고도기술직이 증가하고 노동인력 전반의 교육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래로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갈래에서 수행되어 왔다. 직업을 바탕으로 한 계층 및 계급연구(김영모, 1979; 홍두승, 1983a, 1983b; 서관모, 1987; 홍두승·안치민, 1995; 홍두승, 1997), 세대간 직업이동을 통한 사회이동(홍두승, 1980; 차종천, 1992), 특정 직업집단(차경수, 1983; 양종희, 1988; 김지섭, 1992; 김병조, 1993; 김진영, 1994), 직업위신(이상백·김채윤, 1966; 김경동, 1979; 홍두승, 1983a, 1992)에 관한 연구 등 각기 다른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직업구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의 자료를 사용한다하더라도 대부분 대분류 수준에의 분석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직업구성 및 변화가 갖는 내부적 다양성을 분별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물론 직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센서스류의 자료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통계자료나 임금구조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한 시점에서 직업의 구성과 분포를 가장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역시 인구센서스 중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자료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논의되어 온 노동의 탈숙련화 현상이라든가 정보화사회에서의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

에 대해서 선진공업국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다(Bell, 1973; Castells, 1996).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1960년대 이래 한국사회의 직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특히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직업분류체계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 보고, 2장에서는 각 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직업구성의 변화를 분석하며, 3장에서는 특히 정보화와 관련하여 1990-95년간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구성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5장에서는 직업구조와 관련된 계층 및 계급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보론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제1장 직업과 직업분류

1. 직업의 의미

<일>, <업무>, <직업> 등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이 지닌 의미는 다르다. 우선 <일(work)>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내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산업사회에서 일은 전형적으로 타인들에게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은 고용주나 고객과 같은 타인들을 위해 행한 바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은 가사노동과 같이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종교적 선교활동 등과 같이 금전적인 보상의 중요성이 거의 없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 경우 <타인에 대한 가치>란 가족을 위한 일, 이타주의, 또는 사회에 대한 서비스 등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직업(occupation)>은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는 활동의 사회적 및 기술적 구성>이다(Rothman, 1997: 7). 추상적인 수준에서 직업은 비교적 분명하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직은 구강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을 하는 것이고, 판매직은 소매나 도매거래를 처리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은 핵심적인 책무의 사회적 조직화이다. 예를 들어, 판매원은 정해진 옷차림과 용모 기준을 따라야 하며 고객을 존중하고 매점과 상품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업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기술적 혁신이 서로 교차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간호직은 19세기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몇십년전보다도 크게 달라졌다. 직업의 구성원은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유된 가치나 시각 등의 면에서 일치될 수도 있다.

<업무(job)>는 일 중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수행하는 기술적 및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판매원이라는 직책을 가졌으면서 실제 업무의 내용에는 상당한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의상실 판매원과 귀금속 판매원이 다르듯이, 각 업무는 고유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업무의 조건이 산업, 지역, 조직 등에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상사, 동료, 부하직원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일의 내용에 대한 교섭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의 계속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매일, 매주 또는 매월),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가 없더라도 현재 하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①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소작료, 권리금 등 재산수입이나, ②연금법이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거나, ③자기집에서의 가사활동, ④정규 주간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및 ⑤법률위반행위(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수형자의 활동) 등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통계청, 1992). 한편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일에 종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①취업시간이 많은 직업, ②수입이 많은 직업, ③조사시 최근의 직업 등의 순서에 따라 개인의 직업을 판별하게 된다.

2. 직업의 분류체계

직업분류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각종 직무를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통계청, 1997: 5)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내의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직업분류라고 할 수 있다. 직업분류체계의 기본적인 조직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이며 각 분류수준별 직업의 수는 개정 때마다 변동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직업분류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963년에 제정되었고 1966년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N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1970년에 제2차 개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196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는 세분류까지 분류되어 있었으나(<표 1-2>참조), 당시 한국은 직업분류의 역사가 짧고 많은 직명이 애매한 외래어로 통용되고 있어 실제 통계자료 수집상 문제가 많아 소분류까지만 적용하였었다.

1970년대의 경제발전과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으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겨나고

일의 전문화, 세분화 등이 진행되어 직종의 세분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제3차 직업분류체계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소분류까지는 197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처음으로 세분류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직업분류의 시기별 변화

연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 센서스 연도
1960	10	66	131	-	-	1960
1963	10	57	260	-	-	1966
1970	8	83	287	-	-	1970
1974	8	83	286	1532		1975, 1980, 1985, 1990
1992	10	28	116	397	1567	1995

한편 1988년에는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8년도의 분류체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세분화되어, 대분류 <전문·기술직> (0/1)¹⁾이 <전문가> (2)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3)로 분화되고,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로 혼합되어 있던 직군(7/8/9)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 <단순 노무직 근로자> (9)로 세분화되었다. 과거에는 <분류불능> (X)으로 분류되었던 <군인>이 새로운 범주(0)로 새로이 설정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새분류체계와 구분류체계를 비교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대분류)비교, 1968-1988년도

1968년도	1988년도
0/1 전문직·기술직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 행정직·관리직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사무직	4 사무직원
4 판매직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5 서비스직	
6 농·림·수산업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8/9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X 분류불능	0 군인

1) 이하 괄호안의 숫자는 직업분류코드임.

〈표 1-3〉 직업분류체계(대분류) 비교, 1974-1992(한국표준직업분류)

1974년도	1992년도
0/1 전문, 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 행정직·관리직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21 속기사, 타자원 및 전산타자원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33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종사자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331 경리원 및 출납원 339 달리분류되지 않은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42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40 도소매 관리자 41 도소매 자영자 50 요식숙박업 관리자 51 요식숙박업 자영자	12 법인관리자 13 종합관리자
451 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	521 패션모델 및 기타 모델
540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 가사종사자	513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61 농업 및 축산종사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7/8/9 생산 및 관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331 표 수집원(60) ¹⁾ 370 문서송달원(40)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11 행상 및 관련 근로자 912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914 건물 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915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 916 환경 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452 행상인(20) 신문팔이(40)	
540 가정부(20) 객실종사원(50) 호텔포터(55) 551 건물관리인(30) 552 청소원(20) 589 경비원(40)	
622 농업노동자(3) 624 목동(20)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2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99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931 광업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자 932 제조관련 단순노무자 933 운수업 관련 단순노무자 및 화물 취급원
X 분류불능	0 군인

주: ¹⁾괄호안의 숫자는 세분류번호임.

1992년에 이루어진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본적으로 198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담당업무와 직업별 직능수준에 따라 대분류 10개, 중분류 28개, 소분류 116개, 세분류 397개, 세세분류 1567개로 분류하였고(<표 1-1>참조), 인구센서스에는 1995년에 처음 적용되었다. 소분류까지만 고려했을 때, 1974년과 1992년 의 분류체계가 <표 1-3>에 비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분류상의 변화와 더불어 <기타 달리 분류되지 종사자>(999)에 대한 구분,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대한 세분화 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앞서의 분류체계가 단순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구 분류체계에서 판매직으로 분류되었던 행사인과 신문팔이,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었던 가정부, 건물관리인, 청소원, 경비원, 그리고 농·림·수산업 종사자로 분류되었던 농업노동자 등은 신 분류체계에서 모두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통합되었다(<표 1-3> 참조).

<표 1-4>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직능(교육·훈련)수준

직업대분류	초등교육	중등교육	기술전문교육	대학·대학원교육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¹⁾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근로자				
0 군인				

주: ¹⁾입법공무원 등과 군인은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음.

²⁾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가리킴.

출처: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표준직업분류」, 미간행 팜프렛.

한편 각 직업에는 직능수준 즉,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능수준에는 교육·훈련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는데, 초등교육과정 정도의 제1직능수준, 중등교육과정 정도의 제2직능수준, 기술전문교육과정 정도의 제3직능수준,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교육과정 정도의 제4직능수준이 그것이다. 각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능수준은 <표1-4>와 같다. 전문가는 제4직능수준,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제3직능수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근로자, 조작원은 제2직능수준, 그리고 단순노무직근로자는 제1직능수

준이 요구된다. 한편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과 군인은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센서스 연도별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범주 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에는 사업주(고용주 및 자영업주), 무보수 가족종사자, 유급의 고용자로 구분되었으나, 1966년에는 유급의 고용자를 상용고, 임시고, 일고 등으로 분리하였다. 1970년 센서스부터는 고용주와 영세자영업주간의 구분이 이루어졌고, 1980년부터는 피고용자를 임금·봉급근로자로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980년부터는 적용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봉급근로자의 분류방식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985년 센서스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사상의 지위를 포함하는 통계의 연도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표 1-5> 연도별 종사상의 지위 범주의 변화

센서스 년도	고용주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피고용자		
1960	자기사업이나 자가영농 또는 단독 자유노동자		농가 또는 사업에 있어서 무보수 가족종사자	유급의 고용자 (개인의 고용자나 공무원)		
1966		자영업주	가사협조	상용고	임시고	일고
1970	고용주	단독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
1975	고용주	영세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
1980	고용원을 둔 사업주(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봉급근로자		
1985	-	-	-	-		
1990	고용원을 둔 사업주(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봉급근로자		
1995	고용원을 둔 사업주(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봉급근로자		

주: 1985년도 센서스조사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기타 직업관련 통계조사

직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이에 관련된 조사는 196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1983년에 시작되어 1992년까지 매 3년마다 실시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

화된 <고용구조조사>가 있다.²⁾ 경제활동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는 노동력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인구센서스는 유업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이 건, 1997 참조).³⁾ <표 1-6>에 <인구및주택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가 비교, 제시되어 있다. 이어서 <고용구조조사>의 조사방법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및주택센서스>를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취업, 실업, 노동력 등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에 관한 특성을 26개 항목을 통하여 조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이상 인구를 생산가능한 인구로 파악하여 이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취업자에는 ①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이 포함된다. 실업자는 ①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②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에 전념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소자 및 연로자, 기타 심신장애,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다.

2) 1983년부터 1992년까지는 <고용구조특별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기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1974년에 약 1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고용통계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1976년 『1974 특별고용통계조사보고』로 출간되었다.

3) 노동력접근법은 ILO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이에 1주간 등과 같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상태접근법과 3개월, 1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상상태접근법이 있다. 노동력의 계절적 이동이 큰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보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ILO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평상상태접근법을, 그리고 안정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현재상태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1-6〉 〈인구및주택센서스〉,〈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구조조사〉의 비교

항 목	인구및주택센서스(199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조사목적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등 국민경제구조를 파악하여 고용대책, 신규노동력 수급대책, 산업구조개선, 여성취업확충, 노인산업육성 등 각종 고용정책 등의 수립에 활용(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1) 산업, 직업, 지역, 활동상태간의 1년간 노동력 유동상태를 파악하고, (2) 취업의 질, 실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층분석자료를 생산하며, (3) 지역별 고용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인력 및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혁	인구: 1925년이래 15차래 주택: 1960년이래 7차래	1962년 8월이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라 6차래 표본 개편	1983년이후 1992년까지 매 3년마다 실시되다가, 이후 매5년마다 실시하기로 변경
조사대상	1995년 11월 1일 0시 현재 조사지역(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조사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인자(1986년까지는 14세). 현역군인 및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외국인 등은 제외	전국 및 시·도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된 표본가구내의 15세이상인구. 단,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형의 확정을 받고 복역중인 자, 해외취업자 및 외국인 제외.
표본수	전체 (2%표본 = 873,787 표본의 가구주= 263,499)	월평균 33,913가구 (1995년도) 약 34,000가구 (1993년이후)	약 140,000가구
조사방법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면접 타계식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면접 타계식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조사대상기간중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자.	조사대상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노동력 접근법	조사대상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노동력 접근법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인구를 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주로 일하였음 (지난 1개월 동안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

4) <틈틈이 일한 사람>은 ①지난 1개월 동안 4일 이상 15일 미만 수입이 있는 일을 한

하였음, ④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⑤일을 하여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음(일시 휴직),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음, ⑦가사만 돌보았음, ⑧학교(학원)만 다녔음, ⑨기타 ①-⑧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등이다. 199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의 조사대상 분류에서 ①-⑥의 범주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고, ⑦-⑨ 등 나머지 범주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직업과 관련된 통계조사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력수요동향조사>가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정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⁵⁾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기술·기능정도별 현재 인원과 부족인원을 조사하여 대비함으로써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증감현상을 전망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1976년 이후 매년 1회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⁶⁾

이상의 두 조사는 앞의 조사와 달리 가구가 표본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표본단위로 한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편의상 산업분류에서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이 제외되며,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수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교육기관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의 사업체중에서도 사용근로자 9인 이하의 사업체가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총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각기 2,700개 및 3,800개의 표본 사업체가 실제 조사대상이 된다.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 종사 근로자, 국가부문(또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제외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들 조사의 조사결과를 특정 직종의 대표치로 사용하는 데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임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적 자료로

사람이나, ②지난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일은 하였지만 하루 4시간(반나절)미만 일하면서 가사, 통학 등 다른 활동을 주로 한 사람을 일컫는다.

5) 1991년까지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로 조사되었으나, 1992년부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 바뀌었다. 이에 보고서 명칭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변경되었다.

6) 1994년까지는 “고용전망조사”였으나 1996년부터 “노동력수요동향조사”로 바뀌었고, 보고서명칭도 『고용전망조사보고서』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매년 2회 작성되었다.

그 효용가치는 매우 커서 직종, 연령,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도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규모별로 직업충원 및 이직경향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자료

직업구조 및 구성 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업분류가 포함된 시계열 자료가 있어야 하며, 또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직업분류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직업구조 및 구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다. 단기간의 인력수급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 경제정책이나 노동통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생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자료의 포괄성이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수립 후 최초의 인구센서스는 1949년에 실시된 <제1회 총인구조조사>이다. 그러나 그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전쟁 중 소실되었을 뿐아니라, 이후 우리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분단상황으로 인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구조 분석에는 1949년의 자료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대분류 수준에서 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1955년에 실시된 <제1회 간이총인구조조사>부터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1955년 센서스도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정확성이나 통계작성의 치밀성 등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분석은 1960년도 이후 자료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1955년에서 1990년까지는 그 동안 발간된 인구센서스 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1995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1985년에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중 <경제활동 편>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연보』 중 1985년 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직업분류의 일관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 조사항목인 연령, 성,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등은 사회변동 여부에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 조사항목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분류는 그 자체가 사회변동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1986년 10,451개였던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994년 현재 12,000여개로 추정된다(노동부, 1995). 이는 10년이 채되지 않는 시기에 직업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1974년 이래 사용해왔던 직업분류방식을 1992년 말에 전면 개정한 것은 바로 사회변동양상을 직업분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시계열 분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전에 조사된 직업분류를 개정된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재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각년도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직업이란 특성상, 여러 직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통합되기보다 하나의 직업이 여러 개로 분화되는 경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현재의 분화된 분류보다 과거의 미분화된 분류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1992년말 개정된 직업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시계열분석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 대분류가 가장 간략한 1974년 분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직업구조의 변화: 개관

이 장에서는 지난 40여년간 직업구조 및 그 내부구성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활동과 직업구성 추이

직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석대상자가 취업자에 한정된다. 이는 직업구성의 변화추세에 대한 분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은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또한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의미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치로 환산되지 못하고 직업활동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¹⁾ 그밖의 여러 이유로 직업구조 밖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직업구성은 취업자 내부의 관계, 또는 취업자와 실업자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구직단념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이 건, 1997 참조). 직업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2-1>, <표 2-2>는 성별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²⁾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별 취업구조나 노동시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1) 최근들어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주부는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2) 경제활동가능인구로 분류되는 연령기준이 그동안 약간 변화였다. 1960년은 만13세이상, 1955년 및 1966년에서 1980년은 만14세이상, 1985년이후는 만15세이상이었다. 여기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5세미만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였다.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을 해석하기에 앞서 1970년 조사결과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97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보고서>에 제시된 남성 20대의 경제활동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³⁾

<표 2-1>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5-1995 (남성) (단위 : %)

연도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¹⁾	85.9	61.7	85.9	97.1	99.2	99.4	99.5	99.4	99.4	99.2	83.6	57.8
1960	78.9	45.2	75.9	90.9	95.7	96.3	96.9	96.4	91.1	88.5	71.1	39.3
1966	81.0	52.8	81.1	93.6	95.7	95.8	95.6	95.0	92.2	83.9	63.6	30.1
1970	74.8	45.9	50.3	85.7	95.6	96.6	95.9	95.2	91.9	85.4	67.9	35.1
1975	80.7	46.3	84.3	96.1	98.5	98.6	98.0	96.8	93.7	85.6	68.3	34.4
1980	75.1	26.1	71.2	92.7	97.3	97.4	96.8	95.2	90.6	82.6	68.9	40.6
1985 ²⁾	72.3	14.5	63.3	90.8	96.4	96.5	94.9	93.3	88.1	77.3	44.2	
1990	68.3	8.4	40.2	82.1	93.7	94.5	93.5	91.4	87.1	77.5	61.3	36.1
1995	77.5	10.6	58.5	90.6	98.2	98.5	97.8	96.6	93.0	85.3	69.8	40.5

주: 1) 1955년은 14세이상, 나머지는 15세이상.

2)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각년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이를 감안하고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난 특성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15-19세 및 20-24세의 경우 1980년을 고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동일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대신에 취학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30-40대의 경우는 대략 95%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사회 남성 30-40대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연령층임을 보여준다. 셋째로, 50대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60세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아짐에도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넷째로, 전체적으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5-75년까지 80% 전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줄어들다가 1995년에 다시 늘고 있다. 30-40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음을 고려하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0대와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은 앞으로도 취학률이 높을 것이 예상

3) 이유는 모르겠으나 1970년 센서스 남성 경제활동인구에서 20-24세의 경우 130만명중 미상이 35%에 이르며, 24-29세는 100만명중 8%가 미상이었다. 이처럼 미상이 많은 경우는 여타 센서스에서 찾을 수 없다.

되므로, 결국 20대 후반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표 2-2〉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5-1995 (여성) (단위 : %)

연도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¹⁾	63.7	79.0	62.9	56.4	58.6	63.6	67.8	72.1	75.2	75.8	41.3	18.5
1960	28.0	25.4	30.7	26.6	29.0	32.9	34.8	35.2	32.8	29.3	16.8	9.2
1966	32.0	32.5	36.3	29.4	32.6	37.4	40.9	41.0	36.0	30.0	17.9	6.3
1970	38.4	40.3	43.9	31.7	36.3	43.1	47.2	48.6	45.2	39.1	26.9	10.6
1975	46.7	47.6	56.5	35.6	42.1	51.2	57.8	59.8	57.1	50.9	33.6	12.0
1980	39.5	34.0	53.0	30.2	33.5	43.0	49.0	51.3	49.0	43.2	31.3	13.0
1985 ²⁾	41.9	21.1	55.1	35.9	43.6	52.9	58.2	59.2	52.4	47.2	19.2	
1990	32.6	16.7	51.4	29.7	28.0	35.3	40.4	43.6	42.9	38.8	29.1	11.3
1995	38.9	11.0	61.3	42.7	35.8	42.4	47.2	46.8	46.2	43.1	36.8	16.8

주 및 자료: <표 2-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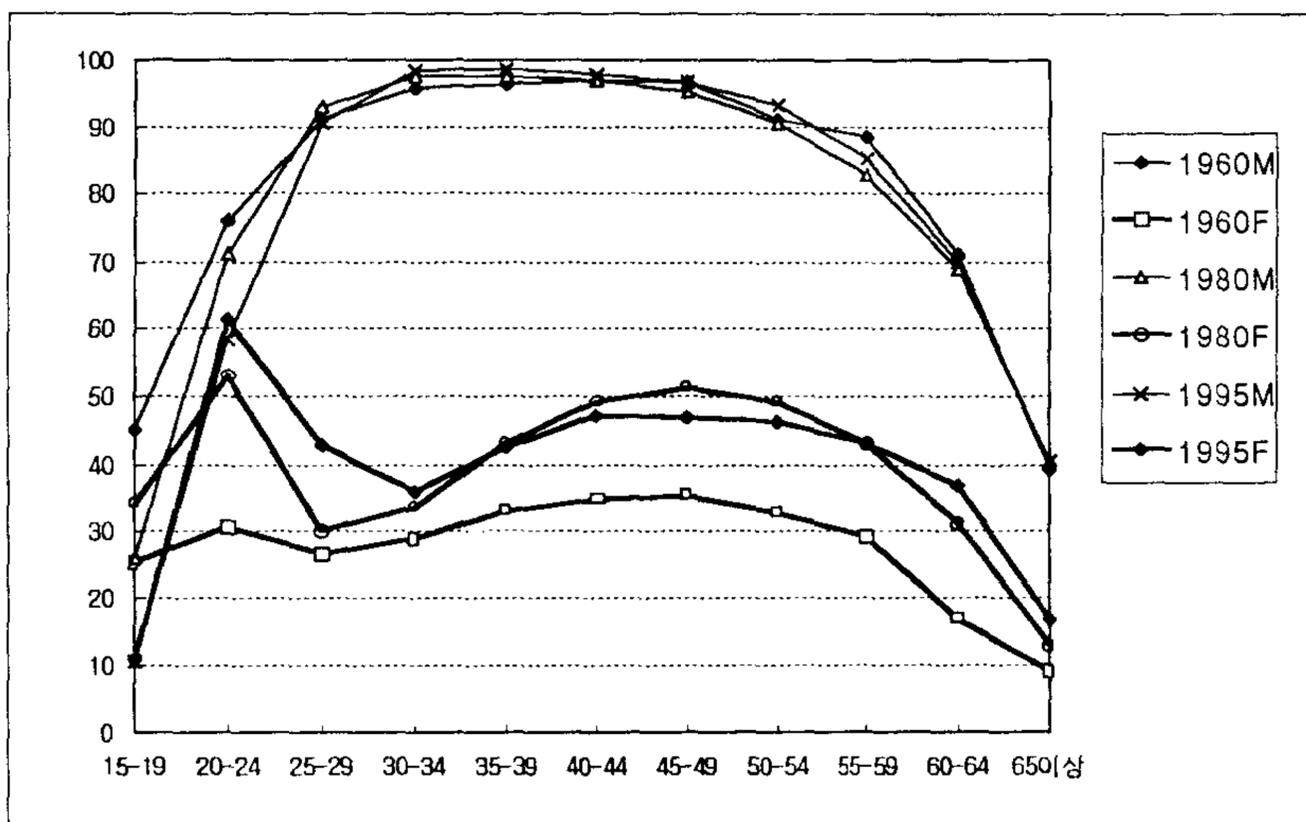
이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표 2-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55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취업개념으로 조사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로 하고, 여성의 경우도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남성과의 경제활동참여율 격차 35%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75년이 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75년이다.⁴⁾ 비록 1995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1975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리라는 상식적인 기대와 어긋나는 점이다.⁵⁾ 셋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24세에서 가장 높았다가 25-29세에서 급락한 다음, 다시 급 서서히 높아지다 45-49세를 정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봉형 경제활동참여율이 지난 한 세대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결국 여성이 결혼이후 직업생활을 지속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여성의 경우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초기 상승하다가 1975년 이후 낮아져서,

4) 남성의 경우도 1975년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처럼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않다.

5)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단 1970년대 중반에 한국 노동시장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논의나 경제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남성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정도로 낮아졌다.

그리고 <그림 2-1>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성 및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 및 20-24세 층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으며, 10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로 쌍봉형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 인구 중 남성 30-40대(넓게는 50대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지만, 여타 연령층의 남성이나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2-1>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60-1995

2) 직업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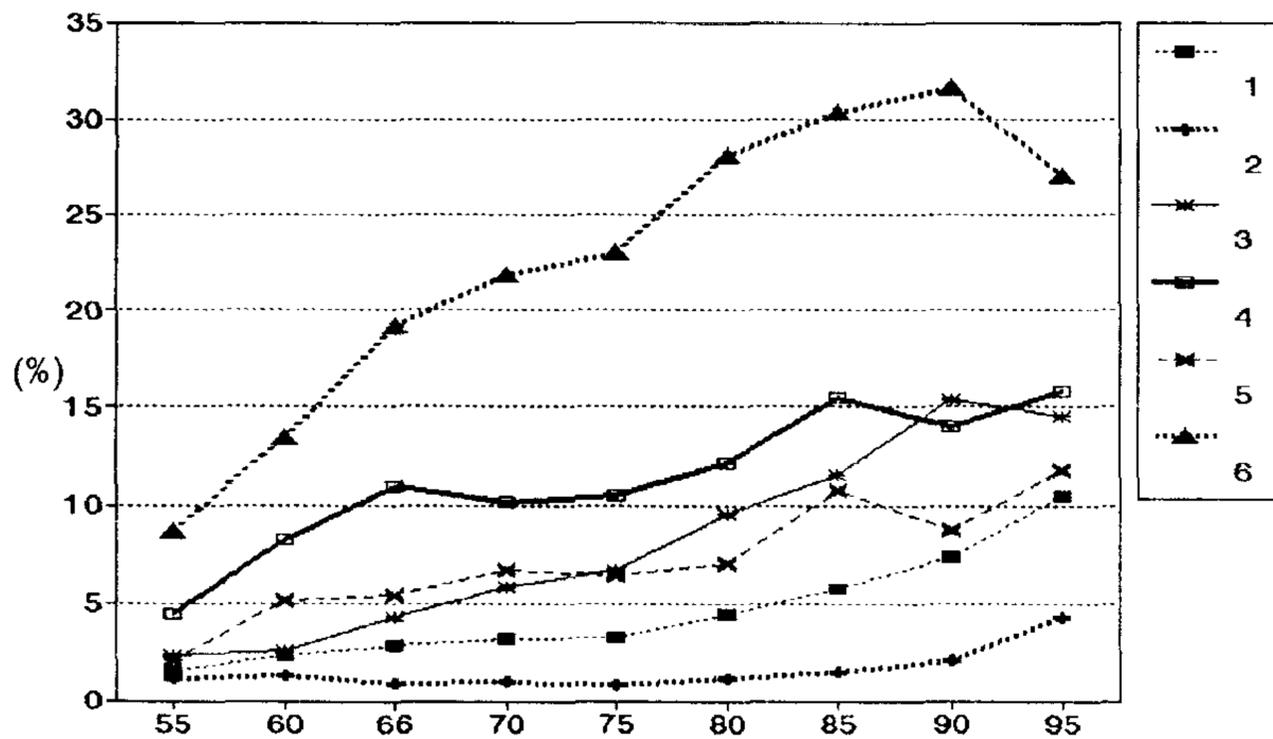
이제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직업구조 변화에 대해 개괄적인 윤곽을 그려보자. <표 2-3>에서 나타난 직업구성의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회변화의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직업구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중반 취업자의 79.5%를 차지했던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1995년이 되면 그 비율이 16.1%로 줄어든다. 이는 한국사회가 1차산업 중심의 단계를 급속한 속도로 탈피했음을 의

미한다.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1955-70년까지가 매우 빨랐고, 1970-75년의 조정기를 거쳐 1975년이후 다시 가속화되었다. 현재는 그 구성비 자체가 1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직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감소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⁶⁾

〈표 2-3〉 직업구성의 변화, 1955-1995¹⁾ (단위 :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문직	1.6	2.4	2.8	3.2	3.3	4.5	5.8	7.4	10.5
관리직	1.2	1.3	0.9	1.0	0.8	1.1	1.5	2.1	4.3
사무직	2.4	2.6	4.3	5.9	6.7	9.5	11.5	15.4	14.5
판매직	4.5	8.3	10.7	10.2	10.5	12.1	15.5	14.0	15.8
서비스직	2.1	5.2	5.4	6.7	6.5	7.1	10.8	8.8	11.8
생산직	8.7	13.4	19.2	21.8	23.0	28.1	30.3	31.6	27.0
농·림·수산업	79.5	66.7	56.8	51.2	49.2	37.6	24.6	20.7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류불능자 및 군인(1960, 1995년)제외.
 2)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각년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그림 2-2〉 직업 구성의 변화, 1955-1995

주: (1)전문직 (2)관리직 (3)사무직 (4)판매직 (5)서비스직 (6)생산직.

6) 특히 초기 감소기에 젊은 층의 감소가 큰 폭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여타 직업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변화추세는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그림 2-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감소는 산업화 초기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였다. 생산직 종사자는 1985년 8.7%에서 1990년에 31.6%까지 급상승함으로써, 취업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1995년도의 경우도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많지만, 앞으로도 정체 내지 감소의 방향으로 변할 것이 예상된다.⁷⁾ 뿐만아니라 사무직 종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이전 3%미만에서 1990년에는 15.4%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 사무직 종사자가 판매직 종사자와 비슷한 규모를 보인다.

반면에 생산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문직,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는 1955년보다 그 비중이 커졌을 뿐아니라, 1990년에 비해서도 1995년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직업구성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다시금 최근 들어 <서비스사회>로 이행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⁸⁾

2. 성별 직업분포의 변화

전반적인 직업구성상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성별 경제활동참여 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구조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를 <표 2-3>과 비교하면 남성 직업별 구성비의 변화가 전체 직업구성비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남성 경제활동참여가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표

7) 한편, 이 부분은 1980년대말 이래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설동훈(1996) 참조.

8) 부분적으로는 직업 분류체계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 참조.

2-3>과 <표 2-4>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로, 남성 직업별 취업구성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지만, 전체와 비교하면 모든 직업군에서 변화율이 조금씩 완만하다. 둘째로, 보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적다. 셋째로, 비록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 취업자중 생산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현재 33.9%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이다.

<표 2-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1995 (남성) (단위 :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문직	2.3	2.8	3.3	3.8	4.1	5.2	5.9	7.0	9.9
관리직	1.9	1.5	1.2	1.4	1.3	1.6	2.3	3.0	6.3
사무직	3.8	3.5	5.6	7.6	8.5	10.0	12.4	15.3	13.7
판매직	5.3	7.8	10.1	10.5	11.1	12.3	13.6	13.6	14.8
서비스직	1.8	3.4	3.4	4.5	4.6	5.4	6.9	6.4	8.5
생산직	12.5	15.9	21.6	25.7	27.4	32.9	36.0	37.0	33.9
농,림,수산업	72.4	65.2	54.7	46.3	43.0	32.5	22.7	17.5	1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3>과 동일.

<표 2-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1995 (여성) (단위 :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문직	0.6	1.5	1.8	2.1	2.1	3.5	5.3	8.3	11.8
관리직	0.1	0.8	0.0	0.0	0.0	0.0	0.1	0.2	0.6
사무직	0.4	0.5	1.5	2.8	4.0	8.6	10.2	15.5	16.0
판매직	3.2	9.7	11.8	9.6	9.5	11.6	18.3	14.6	17.7
서비스직	2.4	9.7	9.5	10.8	9.3	9.9	17.0	13.3	17.8
생산직	3.1	7.2	14.0	14.7	16.2	19.9	21.3	21.0	14.2
농,림,수산업	90.2	70.5	61.4	59.8	58.8	46.4	27.6	27.0	2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3>과 동일.

여성도 <표 2-5>에서 직업구성 변화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로, 여성의 경우도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여성 취업자중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 둘째로, 1970년대까지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생산직 종사자가 여성 취업자의 9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이래 매 5년마다 여성 사무직 종사자가 2배가량씩

늘면서 급기야 1990년에는 사무직종사자 수가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여성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셋째로, 전문직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1990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넷째로, 최근들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관리직 종사자는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변화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간주되던 일부 직종에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표 2-6> 참조). 특히 그 현상은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두드러진다. 전문직의 경우 1960년대 20정도에 있던 여성비(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가 1990년에는 60을 넘고 1995년에는 65.7이 되었으며, 사무직의 경우도 1960년대의 10을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1995년에는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업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여성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50 남짓하였던 여성비가 1970년 70을 넘게 된 것이다. 1975년 여성비 89.6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다가 1995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에서의 여성비가 여타 직종보다 높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줄어드는 직종도 존재한다. 이는 생산직의 경우이다. 생산직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 높아지던 여성비가 1980년대 정체하더니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에서의 여성비 감소는 남성의 여성취업분야 진출확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이 생산직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⁹⁾

<표 2-6> 직종별 여성비의 변화, 1955-1995 (단위: 여성비¹⁾)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66.6	40.8	46.8	54.3	64.7	57.7	63.8	50.7	54.9
전문직	18.0	21.6	25.5	29.6	33.8	38.6	54.7	60.4	65.7
관리직 ²⁾	2.6	23.0	2.0	3.6	3.9	1.5	3.8	3.7	5.3
사무직	6.6	11.8	12.3	20.4	30.4	49.8	52.7	51.6	64.0
판매직	39.8	50.7	54.5	50.2	56.4	54.4	86.2	54.7	65.7
서비스직	84.8	116.4	128.8	131.5	132.8	105.1	157.5	105.5	115.1
생산직	16.6	18.4	30.2	31.5	38.8	35.0	37.9	29.0	23.0
농·림·수산업	83.1	43.9	52.5	70.8	89.6	82.2	77.6	78.7	92.3

주: ¹⁾ 여성비는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로 산출됨.

²⁾ 1960년의 경우 여성 관리직이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보임.

자료: 각년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9)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영역에 남성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남성 직종에 여성의 참여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령구성의 변화

성별 직업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성별로 직업별 연령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대표값으로 연령분포상의 중앙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젊어서 입직하고 나이가 들면 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앙값에 대한 검토는 직업별 연령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업마다 어떤 연령층을 중심으로 충원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표 2-7>은 남성의 직업별 연령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취업자 연령 중앙값은 1955년 34세에서 1997년 37세로 약간 높아졌다. 이는 인구구조의 성숙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 연령구조 변화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1955년을 예외로 간주하면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연령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이들 직종은 젊은 층이 유입되고,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7>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1995 (남성) (단위: 세)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35	-	34	34	34	35	36	37	37
전문직	32	-	35	35	36	36	36	36	35
관리직	31	-	42	42	42	42	44	43	42
사무직	27	-	36	34	34	33	34	35	35
판매직	37	-	37	36	36	36	38	42	42
서비스직	30	-	30	31	33	35	37	39	46
생산직	36	-	27	31	31	31	33	34	36
농·림·수산업	35	-	35	33	37	42	46	50	54

주 및 자료: <표 2-3>과 동일.

그러나 여타 직종에서는 유입구조나 유출구조상에 변화를 겪었음을 나타내준다. 판매직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36-38세 수준이었던 것이 1990년이후에는 42세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중, 장년층이 판매직에 참가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직의 경우는 197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

세에 있으며 특히 1990-95년 기간에는 39세에서 46세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의 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입이 점차 줄다가, 1990-95년 사이에 중,장년층의 서비스 업종진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남성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1970년 이후 연령구조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남성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연령분포상 중앙값은 54세에 이른다. 젊은 층의 1차 산업 진입이 매우 적다는 점과 1차 산업 종사자의 노령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생산직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시 연령이 줄어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생산직에 유입되는 젊은 남성이 점차 줄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체 취업자 연령구조는 약간 높아지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연령구조의 변화양상이 크게 다르다(<표 2-8>).

<표 2-8>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1995 (여성) (단위: 세)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전체	33	-	33	33	33	34	36	35	37
전문직	23	-	26	26	26	27	27	27	28
관리직	30	-	39	35	42	42	42	39	35
사무직	22	-	23	22	22	22	22	23	24
판매직	37	-	39	38	37	37	38	36	36
서비스직	21	-	22	22	24	32	37	38	40
생산직	28	-	24	22	20	21	30	29	38
농,림,수산업	37	-	36	37	39	43	47	51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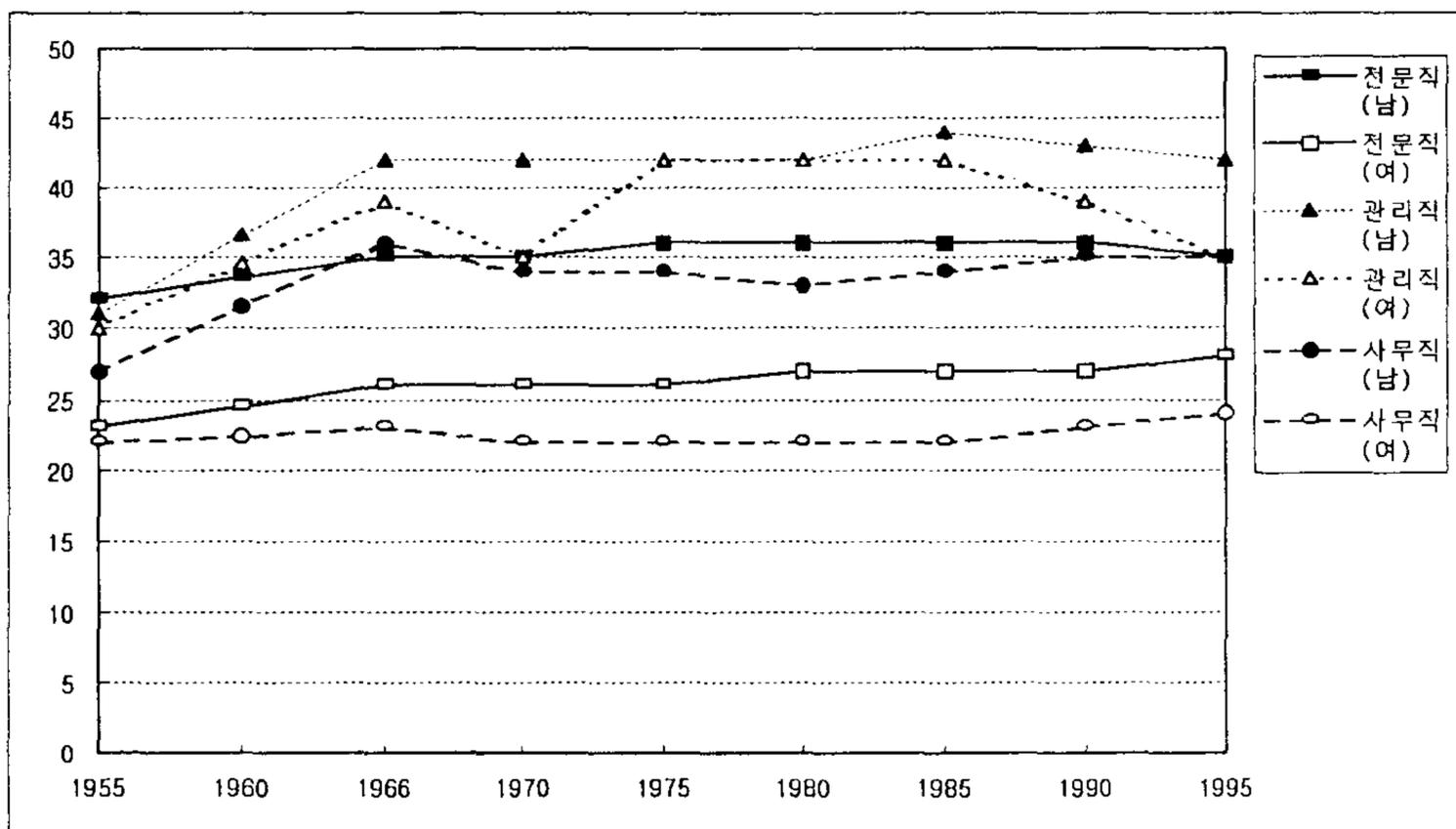
주 및 자료: <표 2-3>과 동일.

여성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의 연령구조는 연도별로 큰 변화없이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직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직은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70년대 20대초반이었던 것이 1995년도에는 40세까지 늘어났다. 이는 여성 서비스직종의 구성내용이 1970년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1980년 이후에 크게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를 겪고 있다. 또한 생산직 종사자의 연령구조변화도 이채롭다. 1970년대에는 20-22세 정도로 낮아졌던 것이 1980년대 이후에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공업구조가 1960-70년대의 여성노동자 중심

경공업에서 1980년대는 남성중심의 중공업화 추세로 변했기 때문이며, 최근들어 나타난 급격한 연령상승은 젊은 층의 생산직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직종내에서 나타나는 성별 연령격차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령격차가 없는 농,림,수산업종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 <그림 2-3>과 <그림 2-4>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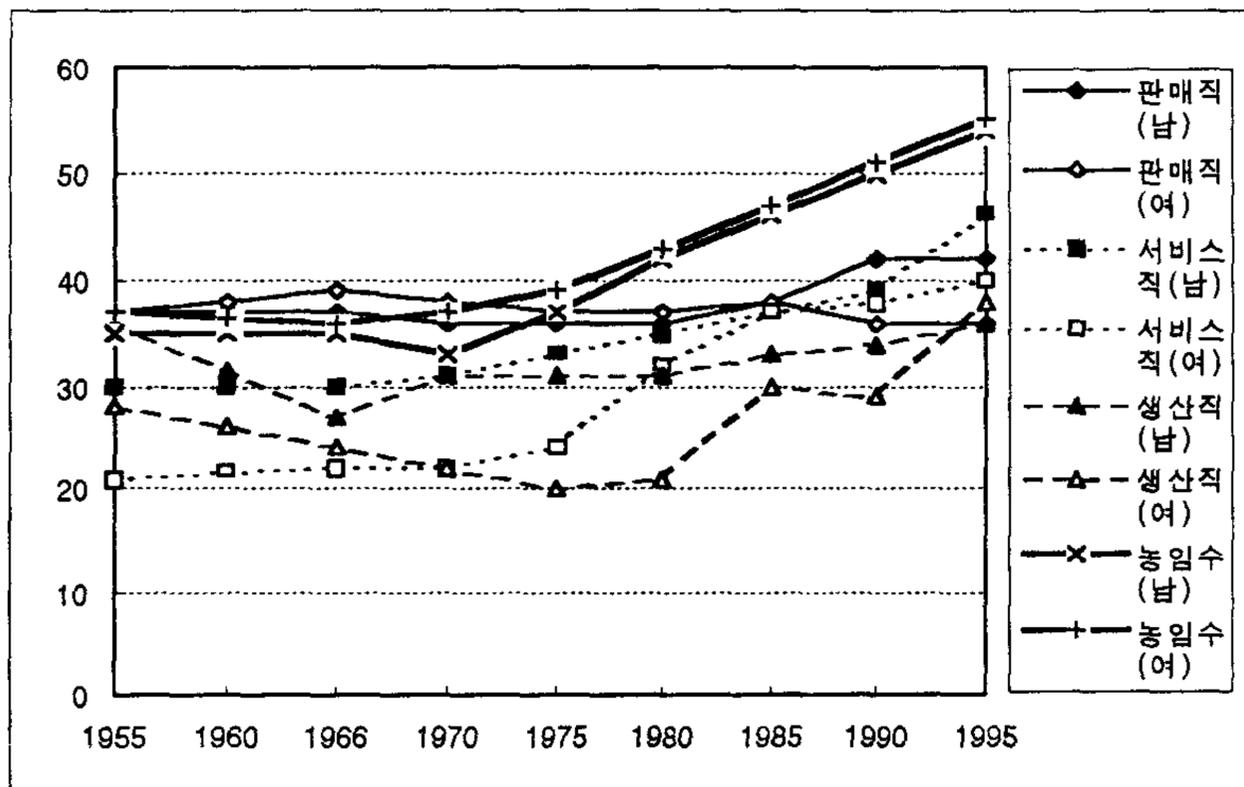
먼저 <그림 2-3>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령격차가 9-10세 존재하다가, 최근들어 7세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남성전문직 연령이 다소 줄고, 여성 전문직 연령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직내에 존재했던 성별 직종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 1955-1995

관리직의 경우는 성별 격차가 없는 해도 있고, 성별 연령격차가 갑자기 늘어나는 해도 있다. 이는 남성측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 비중이 작은 여성측에 그 변동요인이 있다. 즉 여성 관리직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성이 변해도 연령구조상에 큰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직의 경우는 1955년을 제외하면 10세이상의 연령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연령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무직 종사자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사무직을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는 젊을 때 채용되어 일정 연령에 이르면 결혼 또는 기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의 경우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무직에서 관리직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및 서비스직의 자영으로 전직하기 때문이다.



〈그림 2-4〉 판매·서비스·생산직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 1955-1995

이어서 <그림 2-4>에서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성별 연령 격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판매직의 경우는 1985년까지 여성이 1-2세 많았지만,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가장 성별 연령 격차가 없는 직종이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남성 연령층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성별 연령격차가 새롭게 생기고 있다. 그 반대로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경우는 산업화 초기 성별 연령격차가 매우 컸으나, 그 이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이 강화되면, 성별 연령격차가 커지고, 반대로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현상이 완화되면 성별 연령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결과는 사무직에서 성별 노동시장 분절이 가장 명확함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남성 중,장년층의 판매직과 서비스직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나, 이는 역으로 이 부분에서의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현상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4. 학력구성의 변화

1950년 이래로 국민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표 2-9>를 보면 1955년에는 25세이상 성인인구 중 중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미만이었으며, 특히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1995년 현재 전 국민의 6할 가까이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20%를 넘게 되었다.

<표 2-9> 교육수준 변화추세, 1955-1995 (25세이상 성인)
(단위 : %)

교육수준	195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초등학교이하	91.8	79.6	73.4	65.5	55.3	43.4	33.4	26.9
중학교	5.3	11.1	11.5	14.8	18.1	20.5	19.0	15.7
고등학교	1.7	5.6	10.2	13.9	18.9	25.9	33.5	36.3
대학이상	1.3	3.7	4.9	5.8	7.7	10.2	14.1	2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1995년은 2%표본.

<표 2-10> 교육수준 변화추세, 1960-1995 (취업자) (단위:%)

교육수준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44.7	32.8	23.8	19.1	14.8	37.7	6.4	4.6
초등학교	39.5	42.7	43.6	43.0	34.3		18.5	15.1
중학교	7.3	20.1	26.4	31.4	43.1	21.1	18.2	14.2
고등학교	6.2					30.9	38.1	41.5
초급대학	2.4	4.4	6.1	6.5	7.9	10.3	4.7	5.1
대학이상							14.1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중퇴자, 재학자를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2)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3)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각년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교육수준의 변화추이를 취업자에만 국한시켜 보면 <표 2-10>과 같다. 전체 취업자의 학력구성비는 25세이상 성인인구의 학력구성과 유사하지만, 직업에 따라 그 직종에 종사하는데 요구되는 노동력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종별 학력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된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물론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수준의 미세한 차이는 직업대분류수준에서 보다 하위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단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로 양분하는 관습을 받아들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정신노동자 직업군에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이 포함되고, 육체노동자에는 생산직 및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그 중간적인 성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 분석한 직업구성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정신노동자의 특성이 매우 강한 전문·관리직을 함께 묶고, 생산직 종사자와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분리한 다음, 나머지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을 한데 묶어 학력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1〉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불취학	7.3	1.7	1.3	0.9	0.6	4.3	0.2	0.1
초등학교	19.0	6.8	7.4	5.7	2.4		1.3	0.9
중학교	12.3	45.0	39.3	34.1	31.3	5.3	3.0	2.3
고등학교	35.8					28.8	20.4	24.4
초급대학	25.7	46.5	52.0	59.2	65.7	61.6	11.9	10.5
대학이상							63.2	6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10>과 동일.

먼저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학력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2-11〉) 이는 전체 취업자의 학력구성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도 점차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관리직에 요구되는 학력수준이 처음부터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학력수준의 상승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는 대학이상 학력에서,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2-12〉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단위 :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불취학	24.8	15.9	9.0	7.2	4.9	24.1	1.8	1.4
초등학교	41.7	38.1	35.0	31.1	22.8		10.4	9.1
중학교	12.9	36.2	43.5	49.0	60.7	19.0	14.5	12.7
고등학교	15.0					43.8	49.0	50.0
초급대학	5.6	9.8	12.5	12.8	11.6	13.0	6.5	6.0
대학이상							17.9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10>과 동일.

다음에 중간정도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다고 예상되는 사무·판매·서비스직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2-12>).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1966년에는 초등학교 학력자와 중·고등학교 학력자의 구성비가 비슷하였으나, 1990년까지는 점차 중·고등학교 학력자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1990년이 넘어서면 초급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95년에는 대학이상 학력소지자가 20%가 넘게 된다.

그동안의 사회변동과정에서 이들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 판매근로자가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력인플레 현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생산직 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자 등 블루칼라근로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1960년도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80%를 상회하였지만 35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러서는 15%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표 2-13>).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1960년에는 불과 8%에 머물렀으나 1995년에는 6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 다소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의 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결국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중등학교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3〉 생산직 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 1960-1995
(단위:%)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불취학	26.2	17.3	9.0	5.9	3.8	32.4	2.1	1.3
초등학교	53.9	50.6	48.1	44.9	34.6		16.1	13.6
중학교	11.6	30.2	39.9	46.3	59.3	33.6	28.9	22.4
고등학교	6.9					32.0	47.3	54.3
초급대학	1.1	1.8	3.0	2.8	2.2	2.1	2.8	3.4
대학이상							2.9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10>과 동일.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2-14>). 이들도 구성비에 있어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는 90%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였으나, 1995년에는 그 비율이 68%로 줄어든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여타 직종보다 학력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학력수준 증가는 고학력자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저학력자의 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기에 필요한 직능수준으로 예상되는 중등학교 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2/3나 된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예상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14〉 농림수산업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1995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불취학	55.7	46.0	38.9	32.7	32.6	75.2	24.4	22.3
초등학교	37.2	44.1	49.0	51.4	47.7		45.9	46.1
중학교	4.6	9.4	11.5	15.3	19.2	13.8	15.9	15.8
고등학교	2.1					10.0	12.1	13.6
초급대학	0.4	0.5	0.6	0.6	0.5	0.9	0.7	0.7
대학이상							1.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및 자료: <표 2-10>과 동일.

5. 종사상의 지위 구성의 변화

직업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농업 등 1차 산업이 주로 가족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홍두승, 1983c: 68-69).

<표 2-15>를 보면 196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봉급근로자가 아닌 고용주,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가 78%였으나, 1995년이 되면 그 비율이 40%로 감소한다. 직업구조의 변화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활동 내용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직업과 관련된 인간관계 면에서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임금·봉급 근로자의 증가는 직업생활이 조직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사회가 조직사회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필동·김병조, 1995 참조).

<표2-15>종사상의 지위 구성비 변화, 1960-1995¹⁾ (단위:%)

종사상의 지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고용주	47.5	40.5	1.8	2.8	4.0	31.3	5.4	7.3
자영업주			33.0	28.0	31.4		24.2	22.1
가족종사자	30.9	27.3	26.2	28.5	21.1	14.6	10.6	10.7
임금·봉급근로자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¹⁾미상 및 군인(1960,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한편 직업에 따라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다르다(<표 2-16>). 사무직 종사자는 1960년이래 현재까지 95%이상이 임금·봉급근로자이며, 전문직의 경우는 대체로 85%정도가 임금·봉급근로자이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종사상의 지위구성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점차 비슷해지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1960년에는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10%에 못미쳤으나, 1980년대 20%정도가 되었고, 1990년 이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가족구성원으로 사업

을 이끌어 나가는 영세자영업주의 영역이 최근 들어 급격히 좁아져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표 2-16〉 직업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의 변화, 1960-1995¹⁾
(단위 : %)

직업군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체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전문직	85.7	86.2	-	84.6	85.6	85.8	86.1	85.8
관리직	23.1	59.4	-	38.8	37.2	20.2	13.4	39.7
사무직	97.8	96.7	-	97.5	97.2	97.9	98.5	95.4
판매직	8.6	13.5	-	20.7	17.7	21.3	35.2	43.8
서비스직	86.5	78.9	-	66.8	58.3	56.0	55.3	54.5
생산직	57.3	74.1	-	96.2	78.6	85.6	86.2	79.4
농·림·수산업	6.6	9.2	-	8.8	3.1	10.8	3.3	3.6

주 및 자료: <표 2-15>와 동일.

반대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1960년 86.5%가 임금·봉급근로자였으나, 그 비율은 1980년에 58.3%로 줄어들다가, 그 이후는 5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 근로자가 산업화 초기 생산직 및 사무직 종사자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낮아졌으나, 1980년이후에는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이후에도 서비스직에서의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정체하고 있는 점은 판매직과는 달리 대형업체가 개인서비스업에는 아직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도·소매업의 대형화 및 영세소매업의 위축에 대해서는 홍두승(1997)참조.

제3장 직업구조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앞의 장에서는 직업의 대분류에 기초하여 지난 30여년간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간에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에 따라 직업구성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1990년 이후의 변화를 특징지우는 것으로 정보화의 추세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후기산업사회론에서 서비스직의 확대를 예측한 후(Bell, 1973),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시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Dordick and Wang, 1993; Castells, 1996). 이 장에서는 1990-95년간의 직업구조의 변화를 정보화의 추세와 연관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1. 정보화 사회: 이론적 자원

직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Castells, 1996: 203-208). 첫째, 생산성 증가의 원천은 지식의 생산에 있으며, 이는 정보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과 정보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으며, 정보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그것의 사회의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업부문 고용이 쇠퇴하고, 제조업 관련 직업이 줄어들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직이 직업구조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행하게 된다. 선진국가들에서는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 부문이 경제적 생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추세인 것 같다.¹⁾ 셋째, 새로운 경제활동은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직업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기술직이 다른 직업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새로운 사회구조의 핵심적인 부분

1) 그러나 정보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의 관계를 보다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3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삼차화(over-tertiarization)는 정보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기술직과 같은 정보적 직업이 확장되어 직업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수반되는 또 다른 변화는 저숙련 서비스 직업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사회의 직업구조는 상층의 정보적 직업과 하층의 저숙련 서비스직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정보화와 전문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이에 관련된 직업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을 정보직업군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 직업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전문직은 전문화된 공식교육을 통해서 전수되는 전문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국가시험이나 기타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문화된 지식, 업무의 자율성, 고객에 대한 권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직의 이러한 직업적 위상은 높은 경제적 보상을 수반하게 된다.²⁾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는 어떤 직업집단이 이러한 전문직에 근사함으로써 자기 직업집단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화의 과정은 노동 조건의 통제를 위한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Friedson, 1970; Larson, 1977; Abbott, 1988).³⁾

흔히 전문화는 완전한 전문직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전문직(semi-professions)이 완전한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그러나 전문직과 반전문직을 구별하지 않고 광위의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전문화는 지식

2)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전문직의 특징을,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knowledge), 자율성(autonomy), 고객에 대한 권위(authority), 이타주의(altruism)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권력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3) 한편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는 어떤 직업집단의 전문직적 특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다. 어떤 직업집단이 스스로 탈전문직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정부, 조직체, 일반 공중들에 의해 탈전문화가 시작된다. 탈전문화는 크게 일반 공중들에 의한 추상적 지식의 일상화, 정부에 의한 규제 강화, 조직체에 의한 관리적 통제 등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소비자들의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비화되었던 전문직의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변화됨으로써 전문직의 영향이 약화된다. 전문직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직체의 관료제적 통제도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

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직업집단들이 전문지식과 자격의 기준을 보다 중요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사회론자들은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직업구조에도 정보화가 진행되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기술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기능공과 조작용의 비중이 줄어들며 사무직과 판매직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사회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학자들은 전문직의 성장에 상응하는 반숙련 또는 비숙련 서비스직의 성장에 주목하여 왔다(Burtless, 1990).

2) 정보산업의 내용

정보사회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전체 산업구조에서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된다. 그런데 <정보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4> 참조).⁴⁾

<표 3-1> 지식/정보산업을 측정하는 범주의 비교

Machlup	Bell	Porat & Rubin	OECD
교육 연구개발(R&D) 통신매체 정보기기 정보서비스	고등교육 연구개발(R&D) 지적재산으로서의 지식의 생산	지식생산 및 발명산업 정보분배 및 통신업 위기관리 검색 및 조정산업 정보처리 및 전송산업 정보생산물 산업 일부 정부활동 정보산업 지원시설	지식생산 검색, 조정 및 위기관리 산업 정보분배 및 통신업 소비재 및 중간재 투자재

출처: Machlup(1962: 361), Bell(1973:213), Porat and Rubin(1977:50), OECD(1981: 18)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을 주요 정보직업군(informational occupations)라 할 때, 이들의 비중은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가들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전체 노동력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Castells and Aoyama, 1994: 21). 그

4) 정보직업의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산업의 측정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많은 경우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범주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Webster, 1995).

러나 이러한 추세가 모든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론 또는 정보화사회론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진국들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신 제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유형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산성의 증가나 사회적 안정성 또는 국제경쟁력이 반드시 서비스 관련 부문 또는 정보처리부문의 비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Castells, 1996: 216). 이 점을 중요시 하는 Castells(1996)는 서비스업의 팽창과 제조업의 쇠퇴가 선진 경제의 결과라기 보다는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의 결과로 본다. 이는 국가경제와 노동력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의 직업구조의 변화에 중대한 결과를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정보화와 <탈숙련화>

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양극화이다. 즉 정보화사회에서는 전문직, 관리직과 같은 상위 직종과 기능직과 반숙련직 같은 하위직종이 동시에 팽창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직종의 성장은 확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하위직종의 변화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숙련기능직은 흔히 <노동귀족>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이들이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다른 블루칼라 직업에 비해 평균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위신 척도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기능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숙련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능직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왔다. 기능직 근로자들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기술적 혁신으로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숙련과 자율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일부 이론가들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직 업무들이 낮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과 기타 이론가들

이 주장하는 탈숙련화명제(deskilling thesis)의 핵심적 논지는 기술과 기계가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기능직 근로자들이 행하는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 대신에 저임금의 저숙련 기계조작공과 단순 근로자들이 고용된다는 것이다(Hall, 1994). 한편 탈숙련화 명제를 반대하는 이론가들은 양숙련(養熟練; enskilling) 명제를 주장한다(Penn and Scattergood, 1985). 이들은 기술이 근로자들을 탈숙련화시키고 자율성을 빼앗아가기 보다는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기술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기능직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보화와 전문화: 경험적 고찰

이와 같은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1990년대 들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어온 정보산업 및 관련 직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직업구조의 변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자료 및 직업군 분류

이를 위해, 1990년을 기준으로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그리고 생산직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1995년에 적용된 새로운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두 연도간 비교기준을 일관되게 확보할 수 없어 이전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1990년의 자료에서는 직업이 중분류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직업을 재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995년의 직업을 이전의 분류방식에 따라 재분류하기 위하여 1장에서 제시된 틀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몇가지 세부적인 변화를 주어 조정하였다. 첫째로, 준전문가로 분류된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341),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342)과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 <행상 및 관련 근로자>(911)를 판매직(4)

로 분류하였다. 둘째로, 준전문가로 분류된 <관리 준전문가>(343)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344)를 사무직(3)으로 분류하였다. 셋째로, 준전문가로 분류된 <수사관>(345)과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912),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914),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915), <환경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916)를 서비스직(5)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921)를 농·림·수산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1995년 소분류에서 <종합관리자>(131)로 구분되어 있는 범주에는 판매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도·소매 관리자, 도·소매 자영업자와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음식·숙박업 관리자, 음식·숙박업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관리직을 포함하고 있는 대분류 행정·관리직의 변화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산업구조의 변화

기존의 산업분류를 근거로 한 싱겔만(Singelman, 1978)의 서비스 산업의 유형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는 클라크(Colin Clark) 이래 흔히 1차 및 2차 산업에 대한 잔여적 범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업을, <분배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라는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한다. 분배서비스는 도·소매업, 통신, 수송을 지칭하고, 생산자서비스는 경제에서 결정적인 입력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모든 활동과 집합체적 소비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개인서비스는 오락에서 음식에 이르는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표 3-2〉 직업별 산업구성, 1990-1995

(단위 : %)

직업	구분	1990								
		농림수렵업	제조업광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전체(%)
전문·기술직		0.2	10.9	0.6	3.4	3.6	1.2	7.0	73.0	22606(7.5)
행정·관리직		0.7	51.9	0.2	15.4	7.3	5.4	10.8	8.3	6449(2.1)
사무직		0.3	32.0	1.3	5.9	11.4	8.8	18.0	22.4	45679(15.1)
판매직		0.0	7.0	0.0	0.1	84.7	0.1	7.9	0.2	42945(14.2)
서비스직		0.1	4.9	0.2	0.7	53.5	1.6	4.7	34.2	26912(8.9)
농·림·수산직		99.9	0.0	-	-	0.0	0.0	0.0	0.1	64535(21.4)
생산직		0.5	60.9	0.4	18.3	2.3	11.4	0.8	5.3	92969(30.8)
계		21.6	26.9	0.4	7.2	19.7	5.2	5.3	13.7	302095(100)

〈표 3-2〉 (계속)

직업	구분	1995								
		농림수렵업	제조업광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전체(%)
전문·기술직		0.5	15.2	0.6	5.5	3.3	1.7	11.9	61.3	37548(10.5)
행정·관리직		1.1	34.2	0.5	18.1	21.1	4.8	10.6	9.7	15279(4.3)
사무직		0.5	27.3	1.1	8.2	14.0	7.7	18.1	23.2	51620(14.5)
판매직		0.1	8.8	0.1	0.8	75.7	0.7	12.7	1.0	56316(15.8)
서비스직		0.2	4.3	0.4	0.9	52.8	2.2	8.7	30.5	41830(11.8)
농·림·수산직		99.7	0.1	0.0	0.0	0.1	0.0	0.0	0.1	57386(16.1)
생산직		0.7	53.2	0.6	21.7	6.3	12.8	2.0	2.7	96000(27.0)
계		16.5	23.3	0.5	8.6	23.2	5.3	7.9	14.7	355979(100)

〈표 3-3〉 산업부분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산업부문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추출 및 제조	51.6	48.9	28.2	40.9
분배서비스	19.9	21.2	20.6	24.3
생산자서비스	5.3	7.9	14.0	9.6
사회서비스	9.8	11.6	25.5	14.3
개인서비스	8.9	9.5	11.7	10.2

출처: Castells and Aoyama(1994); 한국 1990년 및 1995년 센서스 2% 표본데이프.

<표 3-3>에서 1995년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 이는 1990년 일본의 60%, 1991년 미국의 70% 선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지난 5년 간 다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분배서비스 부문과 개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보직업군의 성장이 주로 어느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기술직의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분배서비스 부문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혼합되어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3-4〉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농업)

(단위 : %)

산업부문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제조업	44.0	38.6	24.9	35.8
서비스업	56.0	61.4	75.1	64.2
재화처리부문	74.9	71.6	51.7	65.9
정보처리부문	25.1	28.4	48.3	33.4
서비스업:제조업	1.3	1.6	3.0	1.8
정보처리:재화처리	0.3	0.4	0.9	0.5

출처: <표 3-3>과 동일.

한편 산업을 정보처리(information-handling) 부문과 재화처리(goods-handling)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도 있다(Hall, 1988 참조). 재화처리 부문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고 정보처리부문은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정부와 기타 잔여 서비스업이다. <표 3-2>에서는 두 부문간의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중분류를 이용하여 두 부분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표 3-4>와 같이 나타났다.

1995년 현재 비농업부문에서 정보처리부문의 크기는 28.4%로서, 1991년 미국의 48.3%에는 크게 못미치나 1990년 일본의 33.4%에 접근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5년간의 정보처리부문의 확장추세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일본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지만(Castells and Aoyama, 1994), 정보화의 추세를 반영해 주는 한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3) 정보직업군

한국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정보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0%미만에서 1995년에는 약 15%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1990년 수준으로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5> 주요 정보직업군의 크기 (단위 : %)

직업군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전문·기술직	7.5	10.5	16.9	11.1
행정·관리직	2.1	4.3	12.8	3.8
전체	9.6	14.8	29.7	14.9

출처: Castells and Aoyama (1994).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과 같은 주요 정보직업군외에도 광의의 화이트칼라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도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성장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급자족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줄어들고 시장을 위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분배체계가 정교화됨에 따라 판매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수송, 통신, 신용거래의 확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어 왔고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판매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늘어나는 정보의 기록, 처리, 및 저장에

필요한 사무직 노동도 증가하였다. 사무직은 5년사이에 약간 감소되고 있으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4) 사무직의 여성화

경제활동인구는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직업구성도 매우 이질적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에 대한 구조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소위 직업분절(occupational segreg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장벽들이 많이 제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분명한 직업분절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직업분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전문직과 관리직을 지배적으로 차지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하위 화이트칼라 직종과 판매직, 서비스직, 그리고 교사와 간호사 같은 소위 <여성 전문직>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관리직에서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영역별로 남성은 자금이나 생산부서의 관리자로 진출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인사나 홍보부서의 관리자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정보화와 더불어 전문직, 관리직에로의 여성들의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는 농·림·수산업과 남성들의 근력을 많이 요구하는 생산직을 제외하면,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에서 남성들이 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1990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남성 우위는 여전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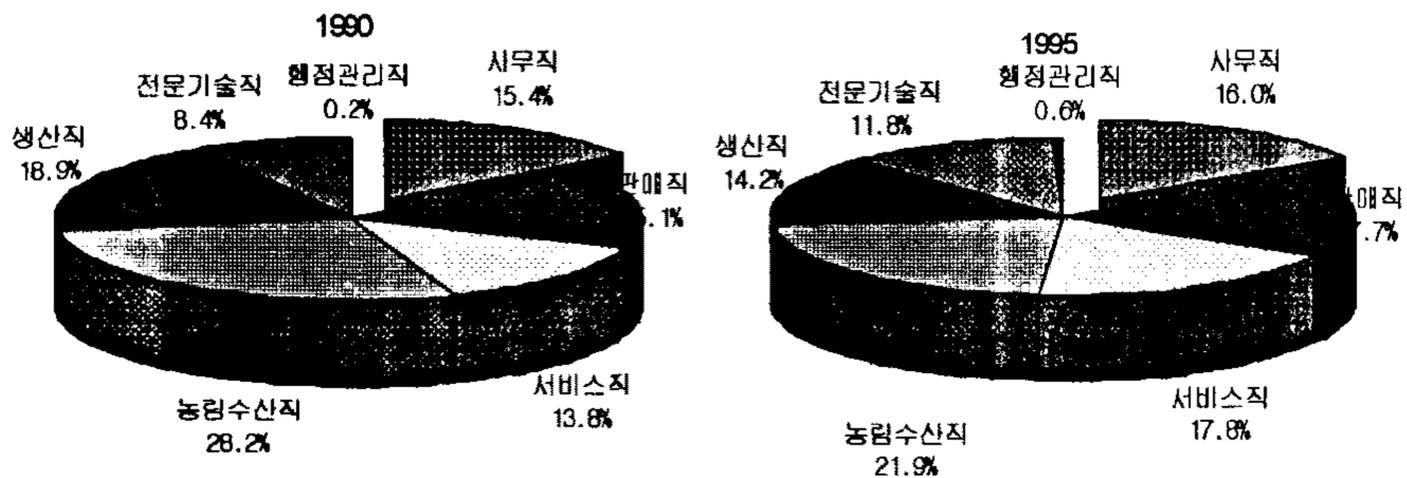
사무직종 내부에서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무직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전문화의 경향으로 이는 사무직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사무직의 전문직화 경향은 회계, 인사관리, 보험통계 등 남성 우위 직종에서 흔히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부기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남성들은 부기업무를 회계로 전문직화시킴으로써 여성들의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사무직 변화의 두번째 경향은 특정한 사무기기의 조작을 전담하는 사무기기 조작공(clerical operatives)의 발달이다. 이들의 업무는 지식보다는 자신들이 다루는 기기에 따라 결정된다. 컴퓨터

조직의 성별구성의 변화는 두가지 경향이 흥미롭게 혼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는 1) 보통교육의 확산으로 여성들이 사무직 노동에 요구되는 훈련을 받게되고, 2) 전통적으로 남성들보다 낮게 설정되는 임금구조를 여성들이 수용하고, 3) 사무직의 직업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격을 갖춘 여성노동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전문·관리직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남성우위적 사무직은 전문화를 통하여 여성들의 진입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차선으로 여성들은 사무직으로 진출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도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지만 전문직·관리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 직업별 여성구성비, 1990-1995 (단위: %)

직업군	1990	1995
전문·기술직	37.6	39.6
행정·관리직	3.3	5.0
사무직	34.1	39.6
판매직	35.6	53.5
서비스직	51.9	48.0
농·림·수산직	44.2	47.8
생산직	20.5	18.7
계	33.5	35.4



〈그림 3-1〉 여성의 직업참여 비율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직의 여성화는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에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5년의 직업구조에서 여성은 사무직의 39.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여성노동력의 16%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3-1>).

요컨대 정보화에 따라 전문직·관리직의 확대와 더불어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무직으로 여성들이 몰림에 따라 사무직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봉급·임금 근로자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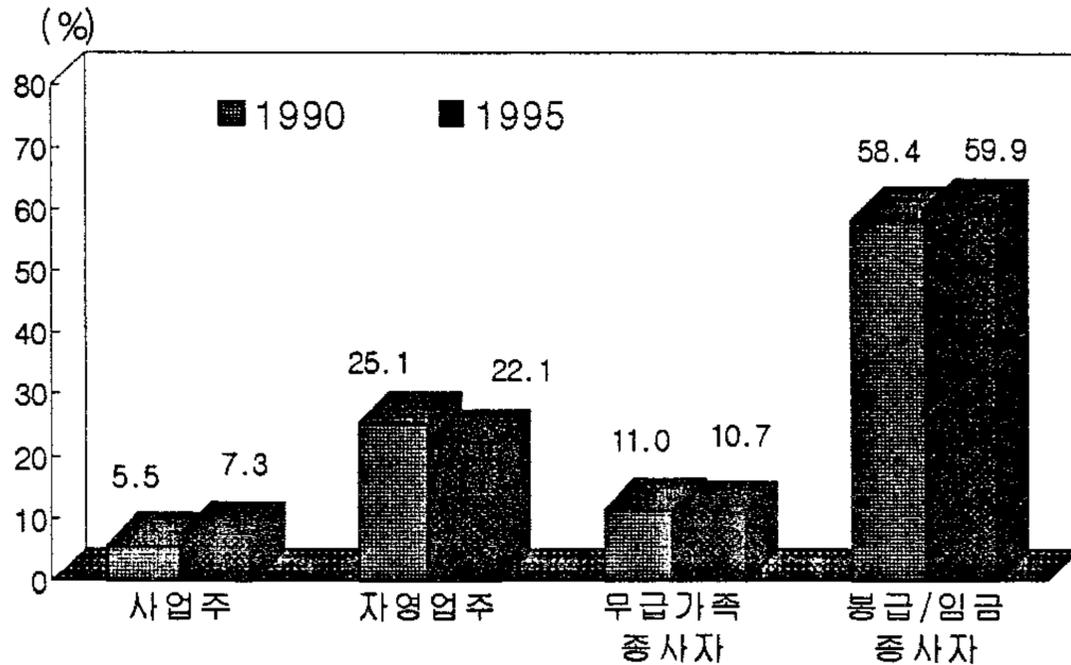
후기산업사회론자들이나 정보사회론자들은 자영업자들이 감소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가설에 대체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정한 유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Castells, 1996; Castells and Aoyama, 1994). 그러나 선진국가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는 봉급·임금 근로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표 3-7>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 구성, 1990 (단위 : %)

직업	종사상 지위	1990				전체(%)
		종사상의 지위(%)				
		사업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봉급·임금 종사자	
전문·기술직		5.0	8.6	0.8	85.7	22,606(7.5)
행정·관리직		85.2	-	0.0	14.8	6,449(2.1)
사무직		0.0	0.3	1.2	98.5	45,679(15.1)
판매직		9.3	46.0	9.7	35.0	42,945(14.2)
서비스직		12.4	24.4	9.2	54.1	26,912(8.9)
농·림·수산업		0.8	58.2	37.8	3.2	64,535(21.4)
생산직		2.4	10.7	1.5	85.4	92,969(30.8)
계		5.5	25.1	11.0	58.4	302,095(100)

〈표 3-8〉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 구성, 1995 (단위 : %)

직업	종사상 지위	1995				전체(%)
		종사상의 지위(%)				
		사업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봉급·임금 종사자	
전문·기술직		6.0	6.7	1.5	85.8	37,548(10.5)
행정·관리직		55.5	4.5	0.3	39.7	15,279(4.3)
사무직		1.0	0.8	2.8	95.4	51,620(14.5)
판매직		9.0	35.5	11.7	43.8	56,316(15.8)
서비스직		11.2	23.8	10.5	54.5	41,830(11.8)
농·림·수산직		0.9	55.4	40.1	3.6	57,386(16.1)
생산직		4.5	13.8	2.3	79.4	96,000(27.0)
계		7.3	22.1	10.7	59.9	355,979(100)



〈그림 3-2〉 1990년과 1995년의 종사상의 지위 구성

우리의 경우 자영업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약 22%가 자영업주이고 특히 농·림·수산직과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변화는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의 자영업주의 감소와 봉급·임금 근로자의 증가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변화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진행된 대규모 레스토랑, 편의점 등의 체인점과 관련된 특판권(franchise)의 확장추세이다. 많은 특판권의 구매자들이 사업권을 구입하거나 큰 비중의 자본투자를 통하여 자영업자로 남아있지만, 본사에 고용되는 형태로 특판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리직에서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관리직의 성장은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많았던 이들 분야에서 체인망이 형성되고 특판권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상위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위상변화를 하게된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체인점이나 특판점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사업권을 획득하여 사업주나 자영업자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이러한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주로 대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또 하나의 측면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조직화, 관료제화됨에 따라 정부와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 자영업주의 비율이 줄고 봉급·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0-95년 자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1990년에 전문·기술직의 85.7%를 차지하였던 1995년에도 여전히 85.8%로 정체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행정·관리직에서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이다. 1995년에는 90년에 비해 사업주의 비율이 크게 줄고 대신 봉급·임금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봉급·임금근로자의 성장은 관료제적 조직체의 확장 및 특판점의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지만, 사업주의 급격한 감소는 1990년과 1995년의 분류방식의 차이 — 앞에서도 설명되었듯이, 판매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도·소매 관리자, 도·소매 자영업자와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음식·숙박업 관리자, 음식·숙박업 자영업자가 1995년에는 분리되지 않은 채 행정·관리직으로 분류됨 — 을 감안할 때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제2장에서 보았듯이 시계열적으로 관리직 내부의 종사상의 지위 구성은 큰 변동폭을 보여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단지 범주화에 따른 통계적인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소규모가내사업(Small Office Home Office; SOHO)의 확산은 자영업주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조직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컴퓨터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재택근무(tele-work)와는 달리, 소규모가내사업은 개인이 집에다 사무실을 내어 통신판매와 같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사례보고가 많이 되고 있으나 그 크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소규모가내사업에 대한 통계가 없어 현재로서

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종사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측면이
다.

6) 탈숙련화

1990-95년의 자료비교에서 탈숙련화명제를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다. 이는 1990년에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 분류
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구분되면서 각 범주간의 정확한 비교가 사실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탈숙련화 명제는 노동과정의 질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센서
스 자료로서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탈숙련화 결과 생겨나
는 직업구조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다.

〈표 3-9〉 직업별 교육수준 구성, 199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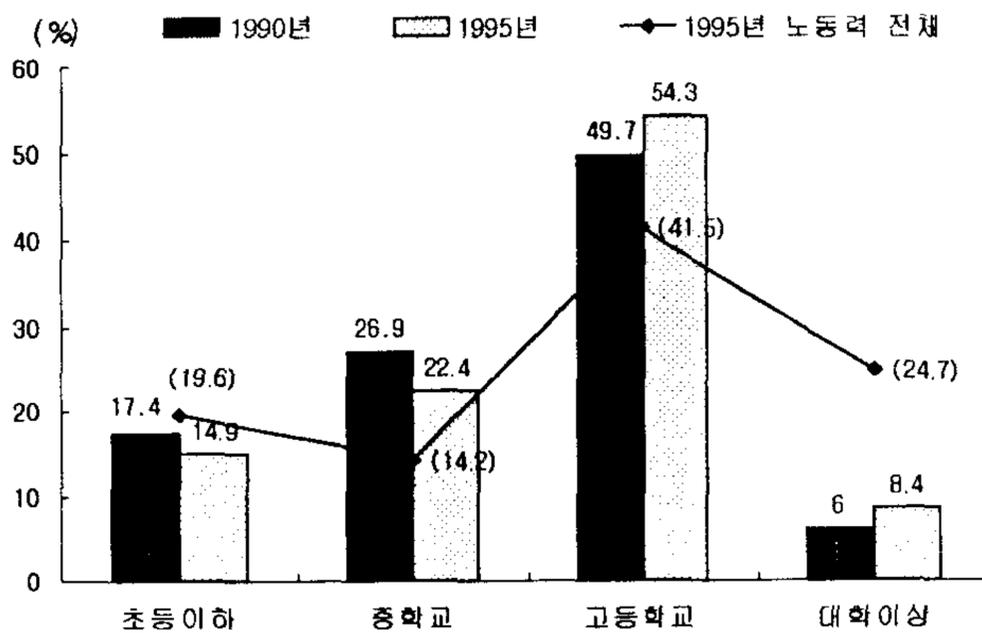
교육수준 직업	1990				
	교육수준(%)				집계(%)
	초등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문·기술직	1.0	1.4	15.8	81.9	22,606(7.5)
행정·관리직	2.9	8.4	35.4	53.2	6,449(2.1)
사무직	1.4	4.0	55.5	39.0	45,679(15.1)
판매직	14.5	18.2	49.1	18.2	42,945(14.2)
서비스직	24.6	25.4	41.1	9.0	26,912(8.9)
농·림·수산직	69.8	15.4	12.8	1.8	64,535(21.4)
생산직	17.4	26.9	49.7	6.0	92,969(30.8)
계	24.9	17.4	39.0	18.8	302,095(100)

〈표 3-10〉 직업별 교육수준 구성, 1995

(단위 : %)

교육수준 직업	1995				
	교육수준(%)				전체(%)
	초등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문·기술직	0.7	1.5	18.9	78.9	37,548(10.5)
행정·관리직	1.8	4.1	37.7	56.4	15,279(4.3)
사무직	1.3	4.0	53.0	41.7	51,620(14.5)
판매직	10.1	13.5	51.2	25.2	56,316(15.8)
서비스직	22.4	22.1	44.4	11.0	41,830(11.8)
농·림·수산업	68.5	15.8	13.6	2.2	57,386(16.1)
생산직	14.9	22.4	54.3	8.4	96,000(27.0)
계	19.6	14.2	41.5	24.7	355,979(100)

1995년에 와서 생산직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몇가지 단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먼저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과 같은 상위직종이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표 3-9> 및 <표 3-10> 참조).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생산직의 교육수준에서 중졸 이하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고졸이상자의 비율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산직의 감소가 주로 저학력층에서 일어나고 고학력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비숙련 노동자층이 확대된다는 양극화 명제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생산직의 학력별 구성

생산직의 양적인 변화와 함께 그 질적인 변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생산직이 건설, 인쇄, 기계 분야의 고속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약간 감소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이 직업 범주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능직의 구성에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이다. 즉 자동차 기능공과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재단공과 같은 오래된 직업은 기계화에 따라 대체되고 있는 점이다. 비숙련 노동에 대한 경제의 수요 감소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초기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단순노무근로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직업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져서 고속련 기능공의 확대와 비숙련 및 단순 근로자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요컨대 생산직의 전반적인 감소라는 것만 가지고 숙련기능직이 쇠퇴하면서 비숙련 서비스직이 팽창한다는 탈숙련화의 명제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교육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생산직의 감소는 주로 저학력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4장 직업의 구성과 특성: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199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직업의 구성과 직업구조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직업구성은 농업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직 중심으로 옮겨가는 등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노동력의 구성과 노동이 수행되는 방식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1995년도 센서스에서는 직업을 1992년도에 개정된 분류체계를 따라 대분류상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3), <사무직원>(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5),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 <단순노무직 근로자>(9), <군인>(0)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을 <전문·관리·기술직>, <사무·서비스·판매직>, <농어업 및 생산직> 등 4개의 직업군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직업구성: 대분류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집단은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20%)이며, 그 뒤를 이어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15.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13.7%), <사무직원>(11.5%), <기술공 및 준전문가>(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범주에서 남성의 비중이 가장 크며(95.0%), 그 다음으로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80.0%)가 크다. 여성의 경우는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50.3%),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47.8%), 그리고 <사무직원>(45.4%)이 높다.

〈표 4-1〉 직업별 성별구성, 1995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279	4.3	95.0	5.0
2 전문가		20,360	5.7	63.8	36.2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449	11.0	72.1	27.9
4 사무직원		41,032	11.5	54.6	45.5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1,385	20.0	49.7	50.3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6,721	15.9	52.2	47.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48,863	13.7	80.0	20.2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8,553	10.8	84.5	15.5
9 단순노무직 근로자		24,337	6.8	61.4	38.6
0 군인		1,484	0.4	98.9	1.1
	계	357,463	100	64.8	35.2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자료 (이하 동일).

〈표 4-2〉 직업별 연령구성, 1995

직업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1	35.6	34.2	25.1
2 전문가		28.2	40.0	18.2	13.6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5.8	37.9	17.3	9.0
4 사무직원		51.8	30.7	11.7	5.9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22.6	34.0	26.4	17.0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7	13.5	18.7	62.0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6.2	37.4	23.6	12.7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7.7	36.5	24.3	11.5
9 단순노무직 근로자		14.6	24.9	25.7	34.9
0 군인		25.4	42.2	26.2	6.1
	계	24.8	31.4	21.7	22.1

〈표 4-2〉를 통하여 직업범주별 연령과 학력별 구성을 보면,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에는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리고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20-30대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직원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수준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했을 때,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주로 대졸이상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은 주로 고졸자로 구성되어 있다(<표 4-3>참조).

<표 4-3> 직업별 학력구성, 1995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8	4.1	37.7	54.6
2 전문가		0.3	0.3	3.3	96.1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	3.2	38.1	57.4
4 사무직원		1.3	4.2	57.2	37.3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4.7	18.2	51.5	15.6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68.5	15.7	13.6	2.2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4.6	23.0	53.0	9.5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6	20.6	60.7	8.1
9 단순노무직 근로자		32.5	24.4	36.6	6.5
0 군인		0.9	3.2	45.6	50.3
	계	19.6	14.2	41.5	24.8

2. 전문·관리·기술 직업군

전문·관리·기술 직업군에 포함될 수 있는 직업범주는 대분류상으로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몇가지 공통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전문직은 대학 수준에서 전문화된 공식교육을 장기간 이수함으로써 획득되는 전문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둘째로, 많은 경우 국가시험이나 기타 절차에 따라 자격증이 부여되며, 셋째로, 그 구성원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공식적인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Rothman, 1997: 8). 의사, 법률가, 건축가 등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조직(협회)을 통하여 자격시험, 선발인원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관리직은 조직체에서 피고용자들의 업무를 관리,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자가 실행하는 업무영역은 최고 관리에서부터 사무직원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관리자의 책임사항도 부하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규정뿐만 아니라 직원의 채용, 훈련, 지도, 업무평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의 범주화가 가능한 것은 위계서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비롯되는 권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으로 보면 권위는 조직체적 위치로부터 도출된다. 즉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나 직위에 있다. 이러한 권위체계는 조직의 구성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권위는 부하직원들과의 관계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고 협상되어야 한다.

관리직은 위계상 중역, 중간관리자, 그리고 일선관리자로 구분된다. 중역(executives)은 조직체의 정점에 위치하는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흔히 <일반관리자>(general managers)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지위상 이들의 영향력이 특정한 영역 보다는 조직체의 전반에 걸쳐 행사되기 때문이다. 중간관리자(middle managers)는 부회장급 밑의 다양한 관리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인사부장, 생산관리자, 공장감독, 학장 등과 같이 특정한 부서 또는 조직과 연관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일선관리자(first-line managers)는 관리직의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권한은 주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것이며,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일에 투여하거나 생산물의 질을 감독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감독자들은 흔히 구조적 갈등 상황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상위의 관리자들과의 기대와, 자율성을 요구하고 회사의 과도한 기대에 저항하려는 근로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공(technicians)은 조직체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화되고 특수한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실험실 기술공, 설계공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업무는 비교적 협소한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요구한다. 그 결과 이들 직업은 조직체 속에서 다소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의 행정적 구조 속에서는 지휘를 받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 중 일부는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성 전문직과의 관할권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하위 범주별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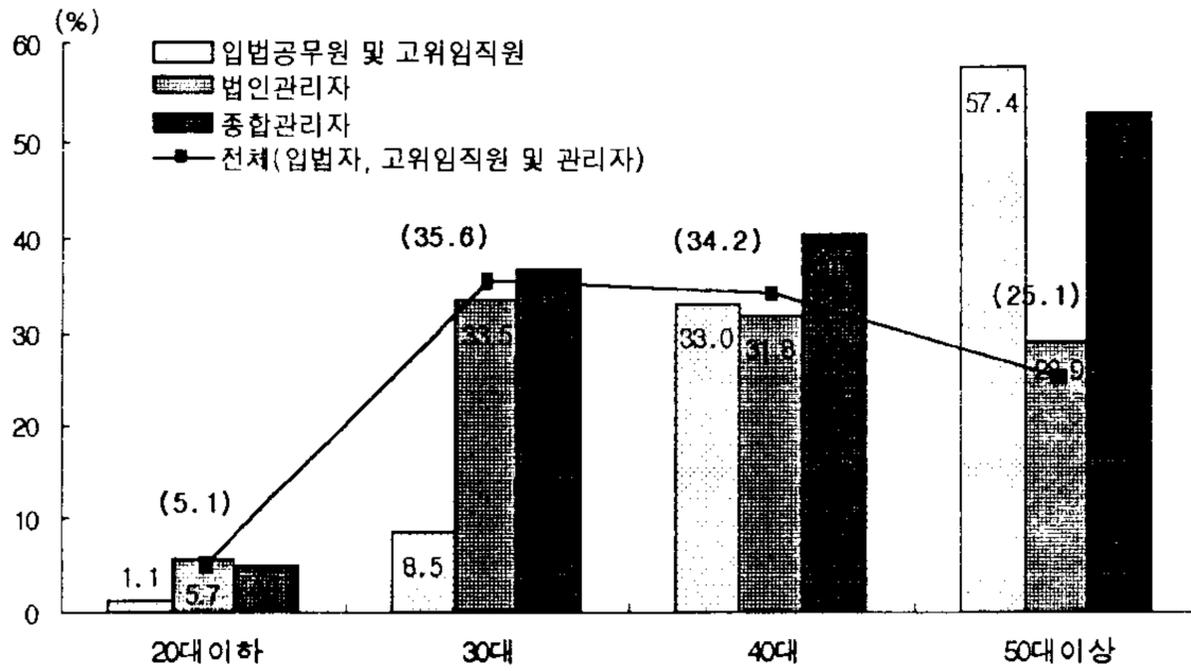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 대분류에서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정부나 특수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하며,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정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감독하거나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업의 종사자들이다(통계청, 1997: 31).

1995년 현재 이 직업 범주는 <종합관리자>(13) 73.1%, <법인관리자>(12) 26.3%, 그리고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11) 0.6% 순으로 되어 있어, 농어업, 광공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정부기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종합관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범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우선 성별구성은 대분류상에서 나타났던 남성중심적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연령별, 학력별 특성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이 연령상 50대이상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이상자의 비율이 다른 범주보다 약간 크다.

〈표 4-4〉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279	100	95.0	5.0
11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94	0.6	97.9	2.1
12 법인관리자		4,014	26.3	96.3	3.7
13 종합관리자		11,171	73.1	94.5	5.5



〈그림 4-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연령별 구성

〈표 4-5〉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8	4.1	37.7	54.6
11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2.1	2.1	18.1	77.7
12 법인관리자		1.0	2.2	31.0	65.8
13 종합관리자		2.1	4.9	40.3	52.8

참고로 소분류 수준에서 이 직업범주의 내부 구성을 보면 <입법공무원>(111), <고위 정부공무원>(112), <전통적 총장>(113), <특수이익단체 고위 임직원>(114),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121), <생산부서 관리자>(122), <기타부서 관리자>(123), <종합관리자>(131)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범주는 종합관리자이다(<부표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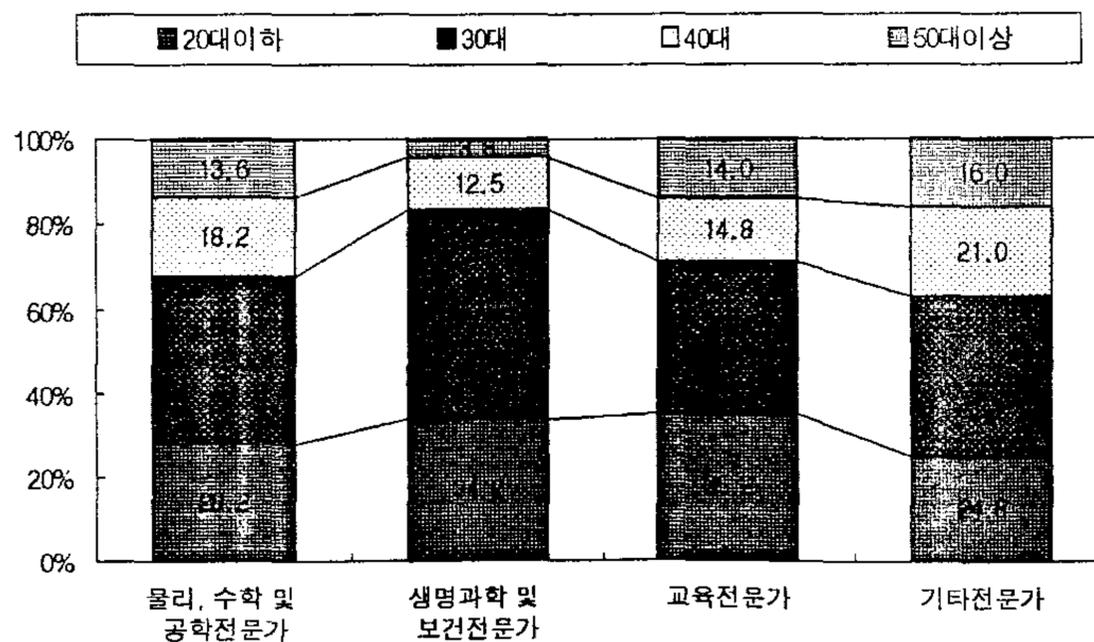
2) 전문가

분류 <전문가>는 <기존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과학적 또는 예술적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며, 체계적으로 교수하고, 때로는 이들 활동을 병행>하는 직업 종사자들이다(통계청, 1997: 35). 중분류상으로 전문가는 <교육전문가> 50.0%, <물리, 수

학 및 공학 전문가> 20.7%, <기타 전문가> 15.1%, 그리고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14.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상으로는 <물리학자, 화학자 및 관련 전문가>(211), <수학자, 통계학자 및 관련 전문가>(212), <컴퓨터 전문가>(213),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전문가>(214), <생명과학 전문가>(221), <보건전문가>(222), <간호 및 조산전문가>(223), <대학 및 고등교육 교수>(231),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 및 학령전 교육교사>(233), <특수학교 교사>(23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전문가>(235), <사업전문가>(241), <법률전문가>(242),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243), <사회과학 및 관련전문가>(244),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245), 그리고 <종교 전문가>(24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중·고등학교 교사이다(<부표 4-1> 참조).

〈표 4-6〉 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2 전문가		20,360	100	63.8	36.2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4,229	20.8	92.2	7.8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2,866	14.1	53.6	46.4
23 교육전문가		10,184	50.0	51.5	48.5
24 기타 전문가		3,081	15.1	75.2	24.8



〈그림 4-2〉 전문가의 연령별 구성

〈표 4-7〉 전문가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2 전문가		0.3	0.3	3.3	96.1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0.0	0.1	1.2	98.7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	0.2	0.7	99.1
23 교육전문가		0.0	0.0	2.0	97.9
24 기타 전문가		1.8	1.6	12.7	83.9

<전문가>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가 대분류상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분류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약 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분류에서는 남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위 <여성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 약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중분류 범주와는 달리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범주는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분포에서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가 약간 예외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은 50대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이 범주를 제외한 다른 범주들은 대분류상의 분포와 비슷한 20-3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별 특성으로는 중분류 범주들간의 큰 차이가 없다. 압도적으로 대졸이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나 기업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고용되는 전문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이상(異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판단의 행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여 왔기 때문에, 고용된 조직체에서 부과되는 감독이나 관료제적 규칙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은 나아가서 업무불만족과 좌절을 초래할 수 있다(Raelin, 1989).

일반적으로 전문직의 경우 자율성이 약한 교사, 간호사, 사서, 약사 등의 직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법률가, 의사, 과학자 등의 직업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분절(occupational segregation)은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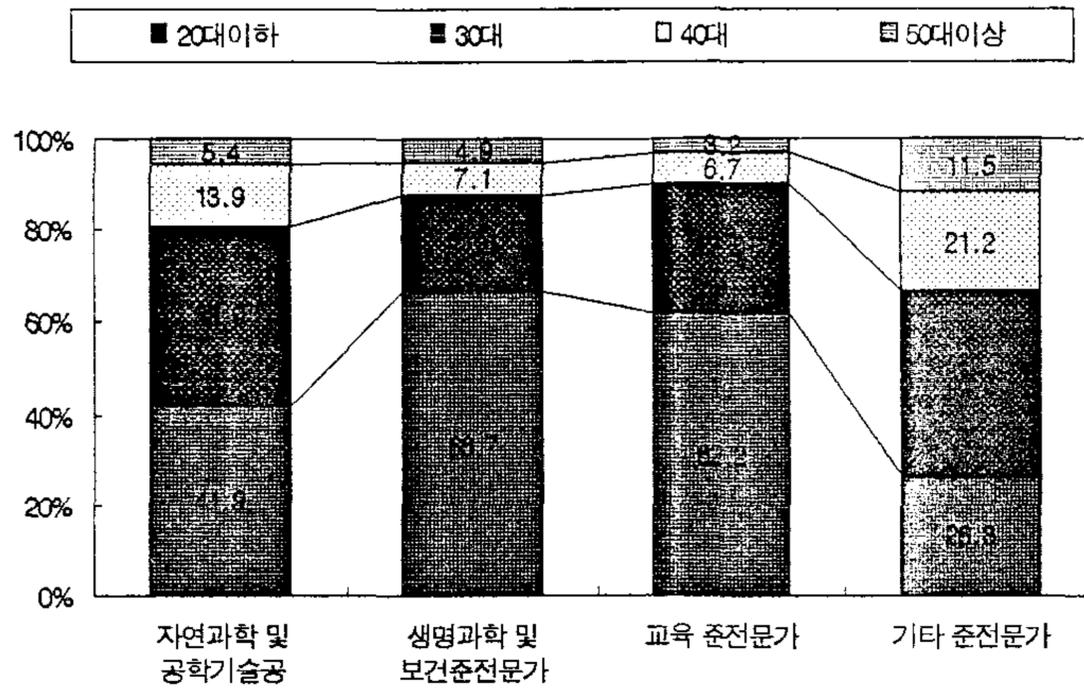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는 <조사연구와 과학적, 예술적 개념 및 운영기법과, 관리 또는 실무 규정의 응용 등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다(통계청, 1997: 42). 중분류상 이 범주는 <기타 준전문가> 63.8%,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18.5%, <교육 준전문가> 13.3%, 그리고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4.5%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8〉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449	100	72.1	27.9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7,289	18.5	84.3	15.7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1,764	4.5	26.1	73.9
33	교육 준전문가	5,228	13.3	27.0	73.0
34	기타 준전문가	25,168	63.8	81.2	18.8

성별 특성을 보면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와 <기타 준전문가> 범주에서는 남성이 우세하고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와 <교육 준전문가>에서는 여성이 우세하다. 연령적으로는 각 범주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주로 20-30대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별 특성도 큰 차이는 없으나 교육 준전문가 범주에서 대학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예외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4-3〉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연령별 구성

〈표 4-9〉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 이하	중학	고등	대학 이상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	3.2	38.1	57.4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1.5	4.5	44.2	49.8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0.6	1.6	45.8	52.0
33 교육 준전문가		0.3	0.8	25.4	73.5
34 기타 준전문가		1.6	3.5	38.4	56.6

〈기술공 및 준전문가〉 범주는 모두 21개의 소분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311), <컴퓨터 준전문가>(312), <광학 및 전자장비 조직원>(313),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공>(314), <안전 및 품질 검사원, 생명과학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321), <현대보건 준전문가>(322),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323), <전통의료개업의 및 신앙치료사>(324), <초등교육 준교사>(331), <학령전 교육 준교사>(332), <특수교육 준교사>(333), <기타 교육 준교사>(334),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341),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342), <관리 준전문가>(343),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344), <수사관>(345), <사회사업 준전문가>(346),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347), <종교 준전문가>(348)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범주는 <관리 준전문가>이다(<부표 4-1> 참조).

3. 사무·판매·서비스 직업군

사무직은 조직체에서 맡은 업무는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사무직은 관리직과 함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직종이라 볼 수 있다. 화이트칼라 직종은 현대 산업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조직체에서 그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20세기 들어와서 정보의 기록, 처리, 저장에 필요한 방대한 인력 수요의 결과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술적 업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속기, 타자, 문서정리, 사무기기조작, 경리 등. 일부 비서직은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및 사회적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다른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사무직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종이다. 사무직은 <관리 지원>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원>이라는 말은 복종과 열등함을 함축하고 있으며 관리직과 지원직간의 중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 종사자에서 관리직 종사자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판매 및 서비스직>은 소매상 판매원, 부동산 중개인, 증권 거래원, 보험 영업원, 이발사, 택시 운전사, 기내안내원 등과 같은 수많은 종사자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접촉이나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고객들과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직접서비스(direct-service)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근로자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선서비스(front-line service) 근로자는 고객들에게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우편 판매원, 기내안내원, 소매점원, 요식업 종사자 등). 개인서비스(personal-service) 근로자는 흔히 자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개인택시 운전사, 이발사 등). 두가지 유형 모두 그 업무의 성격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것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이다.

여기에는 가사 근로자(domestic workers)도 포함된다. 부유층과 일부 중산층은 청소, 음식 또는 육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노동이 사적인 가정으로 탈중심화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방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쉽게 착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교도와 같은 보안직도 일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일견 경찰관들을 일선 서비스직 근로자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다소 문제인

듯 보이나, 모든 경찰업무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특히 순찰의 경우)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 사무직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무직원>은 <해당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을 하며 특히 금전취급 활동, 여행알선, 정봉청 및 약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업 종사자들이다(통계청, 1997: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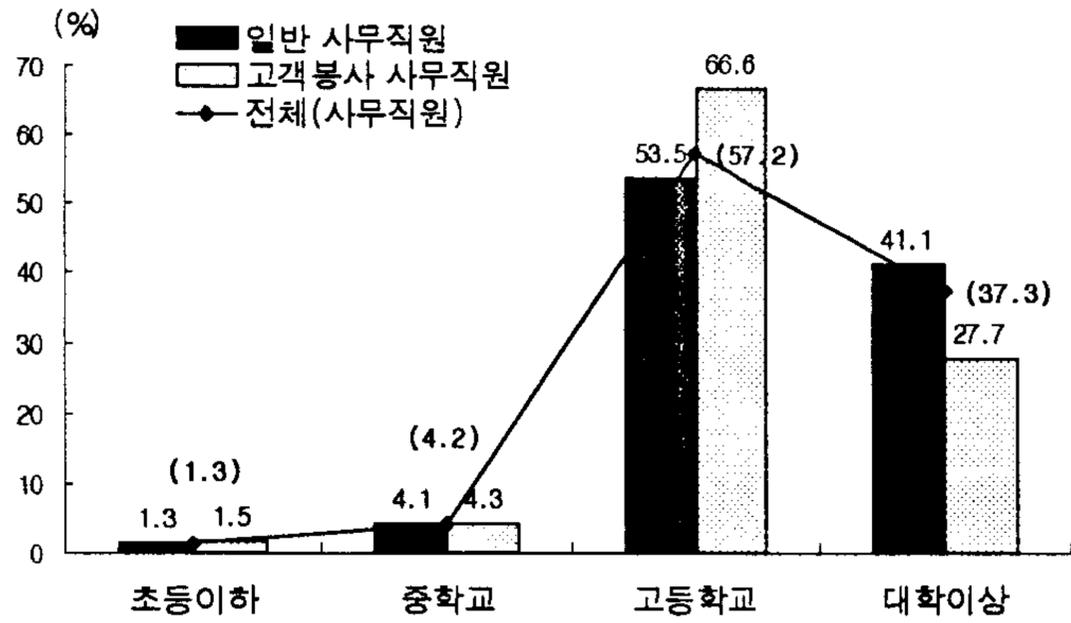
직업 대분류 사무직원은 <일반 사무직원> 72.0% 그리고 <고객봉사 사무직원> 28.0%로 이루어져 있다. 소분류상으로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411), <계수 사무원>(412), <재료기록 및 운송 사무원>(413),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414), <기타 사무직원>(419),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421), <고객안내 사무원>(42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는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10〉 사무직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4 사무직원		41,032	100	54.6	45.5
41 일반 사무직원		29,553	72.0	64.4	35.6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11,479	28.0	29.3	70.0

〈표 4-11〉 사무직원의 연령별 구성

직업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4 사무직원		51.8	30.7	11.7	5.9
41 일반 사무직원		46.4	33.9	12.9	6.8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65.6	22.4	8.4	3.6



〈그림 4-4〉 사무직원의 학력별 구성

사무직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남성들이 약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분류상에서 그 분포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즉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객봉사 및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적으로 사무직원은 20대이하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학력별로는 고졸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일반 사무직에서 대졸이상의 비중이 고객봉사 사무직원보다 약간 높다.

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는 <여행, 가사, 조리, 신변보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대인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창작과 진열을 위하여 모델 활동을 하며, 매점과 시장, 도매 또는 소매상점이나 유사사업체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통계청, 1997: 54). 이 직업범주는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56.8%, 그리고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43.2%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상으로 이 범주에는 <여행접대원 및 관련 근로자>(511),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512),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513), <기타 대인 서비스 근로자>(514), <점성가, 예언자 및 관련 근로자>(515), <보안업무 근로자>(516), <패션 및 기타 모델>(521),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522), <매점 및 시장 판매원>(523)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상점 판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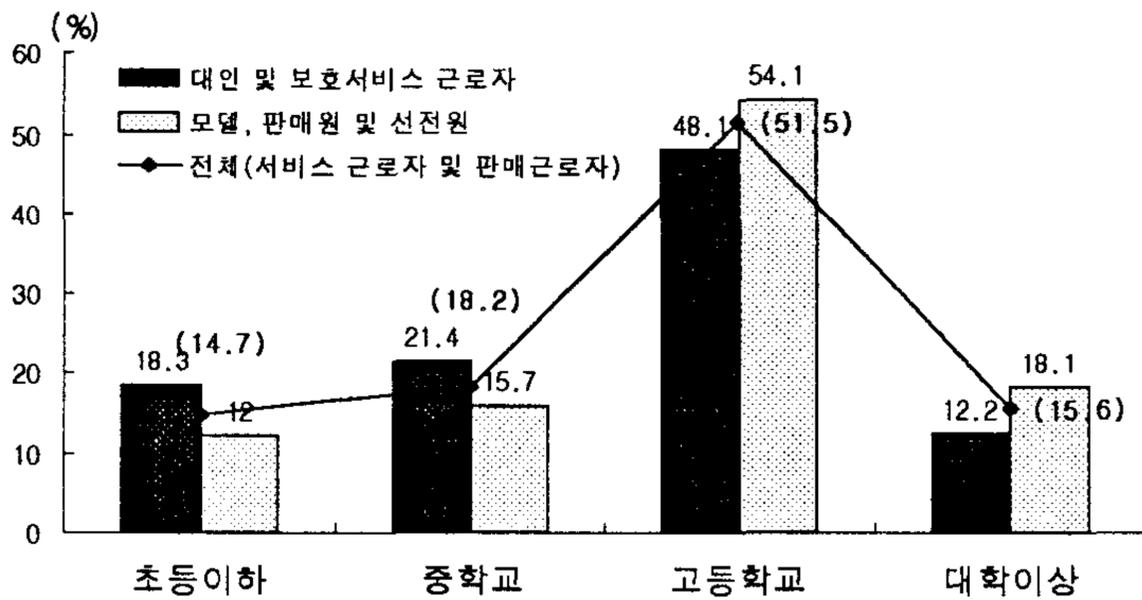
및 선전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1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구성

직업	구분	총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1,385	100	49.7	50.3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30,817	43.2	39.3	60.7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40,568	56.8	57.6	42.4

〈표 4-13〉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직업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22.6	34.0	26.4	17.0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21.0	33.5	28.5	17.0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23.8	34.4	24.8	17.0



〈그림 4-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판매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이 직업범주의 성별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고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이는 전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범주인 <가사 및 음식서비스 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 후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에서 남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부표 4-1> 참조).

연령적으로는 중분류상의 범주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30대를 주축으로 40대와 20대이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특성도 각 범주간 큰 차이는 없고 고졸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농어업·생산직 직업군

과거에는 소규모의 농가가 사회의 중추를 이루었으나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농가수는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기술적 진보와 경작법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도 점점 더 대규모적으로 되고 농업노동력을 덜 필요하게 되었다. 1995년 현재 전업 농어업 숙련 근로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6%이다.

생산직(블루칼라직종)은 사람이나 정보보다는 물질적인 생산물이나 기계의 기술적인 조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블루칼라 직종의 경우 숙련도에 따라 분명한 내적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기능적 근로자들의 업무는 높은 정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손놀림을 필요로 한다. 일부 기능직은 전통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수나 목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기계공, 전기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은 다른 기능직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기능공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는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고 분명한 직업적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일부 기능공들의 경우는 그 숙련도로 인하여 전문가들이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작업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 많은 사회학자들은 기능공들의 역사는 그들이 산업화와 공장의 합리적 조직화에 따라 침해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숙련기술과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투쟁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Braverman, 1974). 오늘날 기능직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낮은 것도 이러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작원(operatives)은 기능원과 단순노무직 근로자 사이의 중간정도의 훈련과 숙

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조작용은 일반적으로 전기재봉틀, 인쇄기, 목재가공 기계, 화로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트럭운전자, 건설용 기계 운전자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청소용역원과 빌딩 관리원 뿐만아니라 요리사와 주방 보조와 같은 음식 서비스 근로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전기 장비나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원이 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조작용과 조립공은 공장 근로자들의 기술적 업무를 정교하게 규정하려는 과학적 관리 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정도의 능력과 숙련을 활용하여 비숙련 노동을 수행한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는 공장, 철도, 광산 등에서 단순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창출되었다. 최근에 와서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라 이러한 비숙련 노동들이 대체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업무들이 단순한 숙련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전통적인 추수를 행하는 농업노동자 뿐만 아니라 운반, 포장, 청소 등은 숙련의 정도가 단순하다. 이러한 직종은 흔히 교육을 받지 못한 노령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1)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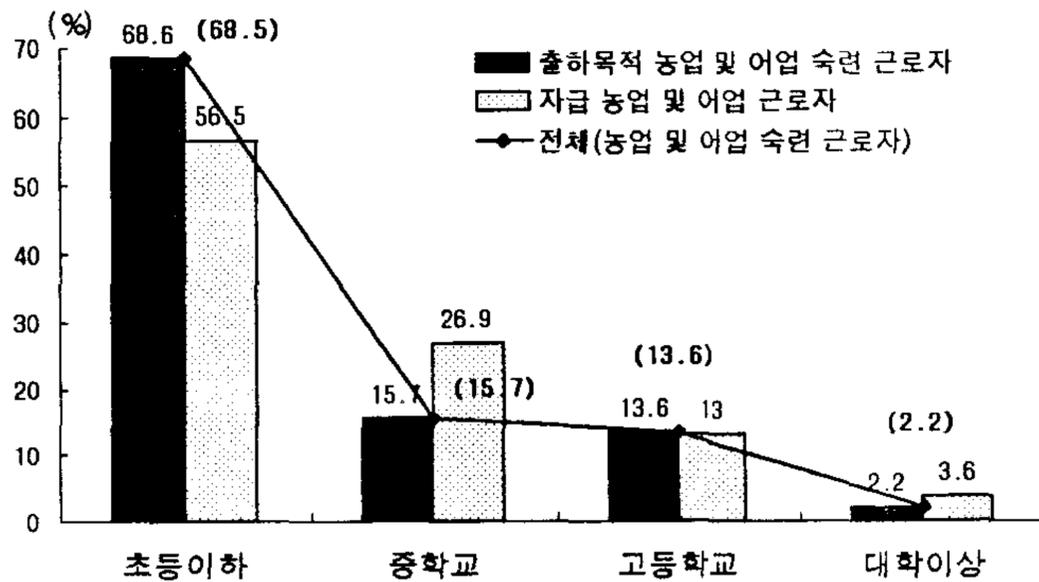
직업 대분류에서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주거지 및 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야생 과일과 식물을 채취하며, 동물을 번식·사육 및 사냥하며, 제반 목축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하며, 물고기를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식물을 양식·채취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통계청, 1997: 59). 1995년 현재 이 범주는 대부분이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이고(99.3%), <자급 농업 및 어업 근로자>는 소수이다(0.7%).

〈표 4-14〉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6,721	100	52.2	47.8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6,305	99.3	52.1	47.9
62 자급 농업 및 어업 근로자		416	0.7	60.6	39.4

〈표 4-15〉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직업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7	13.5	18.7	62.0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7	13.5	18.7	62.1
62 자급 농업 및 어업 근로자		4.3	17.5	23.8	54.3



〈그림 4-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성별 특성을 보면,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나 <자급농업 및 어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장에서 보았듯이 농업 근로자들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추세이다.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범주에는 <출하용 채소 및 작물 재배자>(611), <출하용 동물 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612),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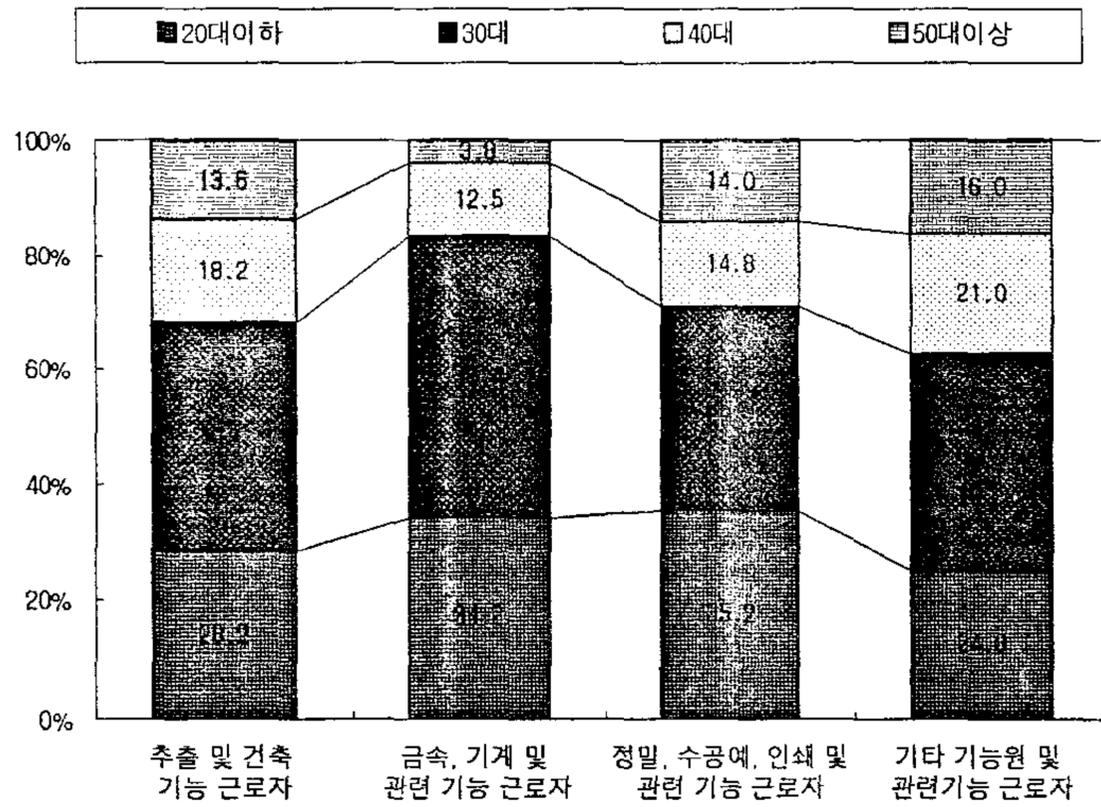
(613), <임업 및 관련 근로자>(614), <어업근로자 및 수렵원>(615), <자급농업 및 어업 근로자>(621)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출하용 채소 및 작물 재배가>의 수가 가장 많다.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는 <광업, 건설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금속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공구 등을 조립, 설치하거나 식료품, 섬유, 수공업 제품에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기계장비 또는 공구를 제작, 설치, 정비 및 수리하고 인쇄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통계청, 1997: 62). 소분류상 이 범주에는 모두 15개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과원, 발파원 석공제 부설원 및 조각원>(711),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근로자>(712), <건물 완성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13), <도장원, 건물구조 청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14),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 금속 준비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21),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22),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723),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724), <금속 및 관련 재료 세공원>(731),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32),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의 수공업 근로자>(733),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734),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741),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42),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743),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 기능 근로자>(744) 등이다. 이 중에서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4-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48,863	13.7	80.0	20.2
71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		13,652	27.9	96.0	4.0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7,226	35.3	94.3	5.7
73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4,309	8.8	77.1	22.9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3,676	28.0	47.0	53.0



〈그림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표 4-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4.6	23.0	53.0	9.5
71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		18.7	25.3	47.9	8.2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0	16.1	63.3	13.6
73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11.3	19.4	57.0	12.4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1.0	30.4	43.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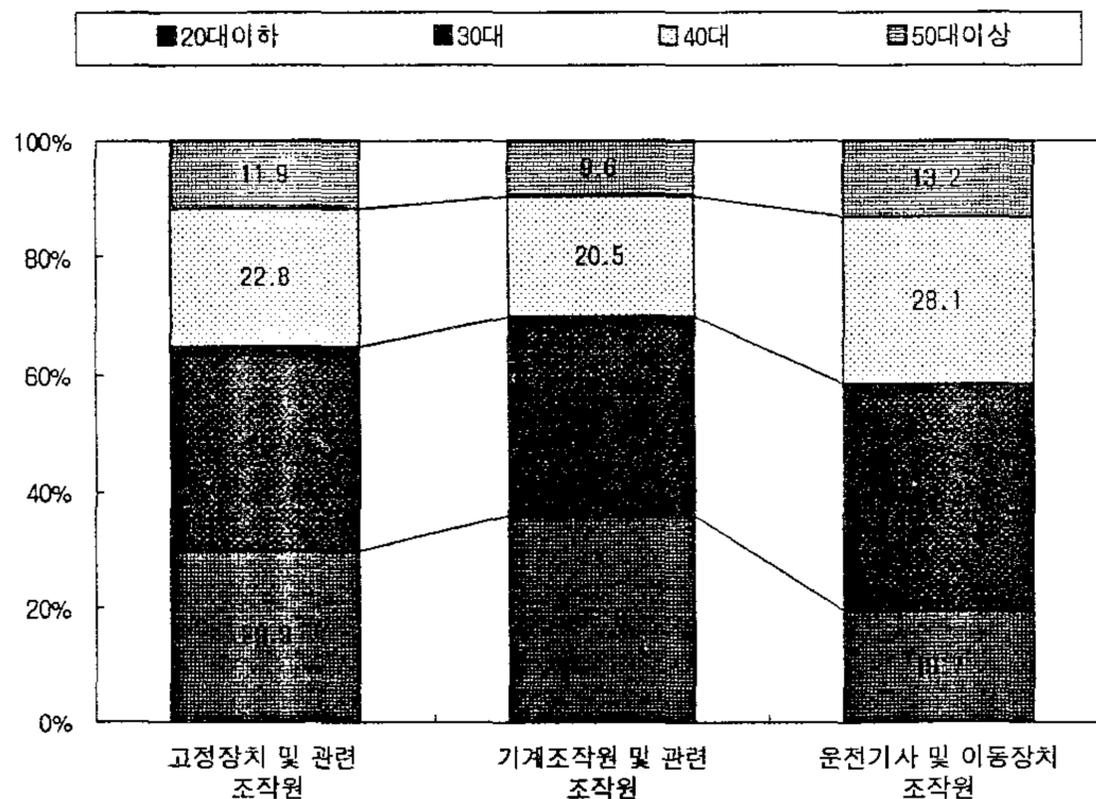
중분류상으로 1995년 현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는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35.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8.1%,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 27.7%, 그리고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8.8%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범주의 성별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지배적이거나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약간 더 많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의 경우에는 40대, 그리고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와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체로 고졸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은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산업용, 농업용 기계장비, 열차, 자동차, 이동기계장비를 운전 및 조작하거나, 명세서의 절차에 따라 구성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통계청, 1997: 71). 여기에는 3개의 중분류 범주와 20개의 소분류 범주가 포함된다. 중분류상으로 이 직업 범주는 <고정장치 및 관련 조직원> 7.6%,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44.6%, 그리고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직원> 47.8%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38,553	100	84.5	15.5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직원		2,933	7.6	90.5	9.5
82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7,189	44.6	67.8	32.2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직원		18,431	47.8	99.0	1.0



<그림 4-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의 연령별 구성

〈표 4-19〉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0.6	20.6	60.7	8.1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직원		11.1	16.2	58.9	13.8
82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3.3	19.3	59.3	8.1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직원		8.1	22.5	62.3	7.2

이들 범주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각 범주도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별로는 30대를 주축으로 20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역시 고졸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은 다른 직업 범주에 비하여 인구학적 특성상으로는 상당한 내적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분류 수준에서 이 범주의 내부구성을 보면, <채광 및 광물 가공장치 조직원>(811), <금속 가공장치 조직원>(812), <유리, 도기 및 관련 장치 조직원>(813),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직원>(814),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815), <동력생산 및 관련 장치 조직원>(816),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817), <금속 및 광물제품 제조용 기계 조직원>(821), <화학제품용 기계 조직원>(8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용 기계조직원>(823), <나무제품용 기계조직원>(824),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직원>(825),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직원>(826), <식품 및 관련 제품용 기계 조직원>(827), <조립원>(828), <기타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829), <철도기관사 및 관련 근로자>(831), <자동차 운전원>(832), <농업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원>(833), 그리고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근로자>(834)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운전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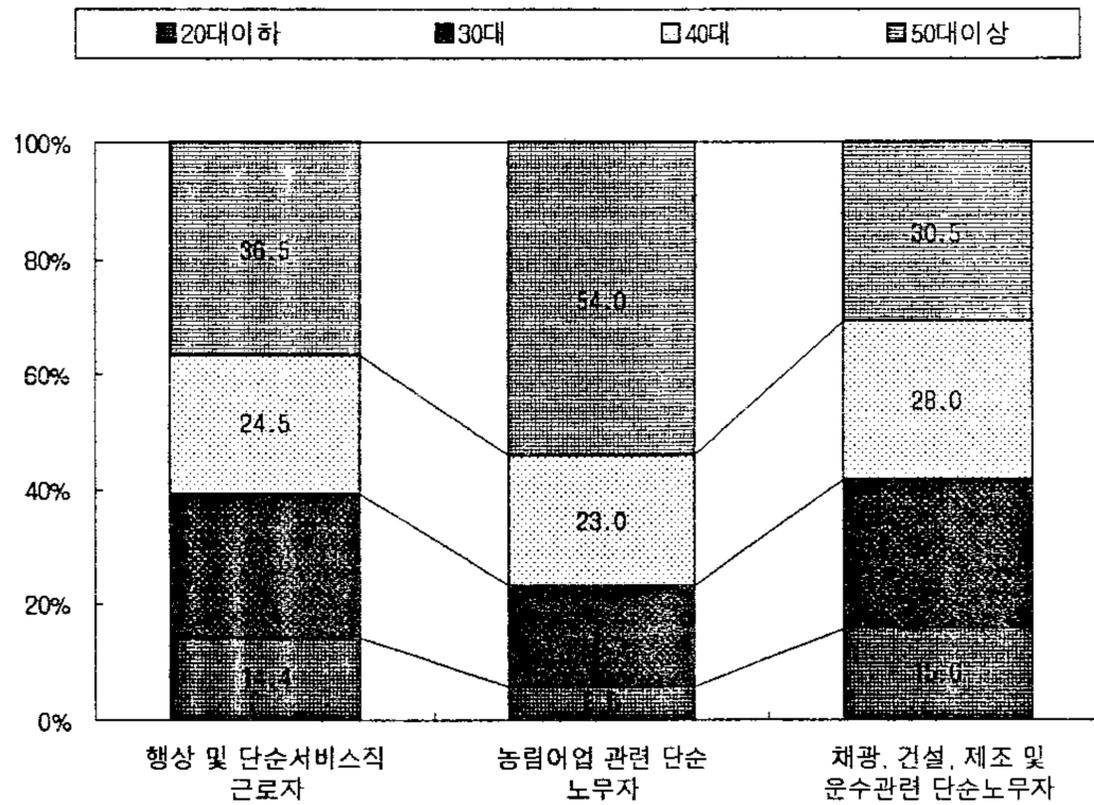
4) 단순 노무직 근로자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주로 손 도구의 사용과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통계청, 1997: 78). 1995년 현재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들이다(62%). 단순 노무직의 경우 대체로 남성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여성이 다소 우세하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대체로 고령자들이 중심이며 교육수준에서도 고졸자를 중심으로 저학력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연령에서 50대이상, 그리고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이하가 주축을 이루는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직에서 두드러진다.

〈표 4-20〉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종사자수		성별(%)	
		N	(%)	남자	여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24,337	100	61.4	38.6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15,088	62.0	54.9	45.1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자		665	2.7	40.0	60.0
93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8,584	35.3	74.5	25.5



〈그림 4-9〉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

〈표 4-21〉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학력별 구성

직업	구분	학력별(%)			
		초등이하	중학	고등	대학이상
9 단순노무직 근로자		32.5	24.4	36.6	6.5
91 행사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28.8	23.3	39.5	8.4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67.2	18.3	13.2	1.2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36.4	26.9	33.2	3.6

소분류상으로 이 직업범주에는 <행사 및 관련 근로자>(911),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 근로자>(912),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914),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및 관련 근로자>(915), <환경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916),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921),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자>(931), <제조 관련 단순노무자>(932), <운수업 관련 단순노무자> 및 <화물취급원>(933)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5. 직업분류체계 변화와 직업구성

마지막으로 1995년 인구센서스의 직업자료를 신·구 직업분류체계에 따라 비교해보면 <표 4-22>과 같다. 직업분류체계의 변화는 직업명칭의 변화 뿐만 아니라 개별 직종의 분류되는 방식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차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도 두 체계의 비교는 필요한 작업이다. 동일한 자료를 두 체계로 각각 분류했을 때에 새로운 방식에 의해 그 구성비가 증가하는 직업군과 그 반대로 감소하는 직업군, 그리고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직업군으로 나뉘어 진다. 우선 증가하는 직업군으로는 첫째로 구 체제에서 전문직 및 기술직으로 분류되었던 <전문가> 및 <기술공 및 준 전문가>이며, 둘째로 구 체제에서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그 반대로 감소한 직업군은 <사무직원> 및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를 열거할 수 있다. 예컨대, 구 체계의 사무직 종사자는 14.5%이었으나 신 체계의 사무직원은 11.5%로 감소하고 있다. 약 3% 포인트의 감소는 이들이 다른 직업군으로 분류되

었기 때문이다. 결국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한 직업군은 감소한 직업군으로부터 유입된 직종으로 메꾸어 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군의 명칭으로만 단순비교하여 특정 직종의 증가 또는 감소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직업의 명칭하에서도 그 직무내용의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센서스류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4-22> 신·구 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포 비교, 1995

구분류		신분류 ¹⁾	
대분류	비율(%)	대분류	비율(%)
전문직·기술직	10.5	전문가	5.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0
행정직·관리직	4.3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4.3
사무직	14.5	사무직원	11.5
판매직	15.8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20.1
서비스직	11.8		
농·림·수산업	16.1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16.0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	2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3.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8
		단순노무직 근로자	6.8
계	100.0	계	100.0

주: 1)군인을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표 2-3> 및 <표 4-1>.

<부표 4-1> 직업(소분류)별 성별 특성

직업(소분류)	종사자수 (%)	남성	여성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입법공무원	49 (0.0)	98.0	2.0
고위정부공무원	31 (0.0)	100.0	0.0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4 (0.0)	92.9	7.1
법인관리자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609 (0.2)	96.9	3.1
생산부서관리자	1648 (0.5)	96.7	3.3
기타 부서관리자	1757 (0.5)	95.6	4.4
종합관리자	11171 (3.1)	94.5	5.5
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물리학자, 화학자 및 관련 전문가	252 (0.1)	87.3	12.7
수학자, 통계학자 및 관련 전문가	31 (0.0)	96.8	3.2
컴퓨터 전문가	886 (0.2)	84.0	16.0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3060 (0.9)	94.9	5.1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생명과학 전문가	190 (0.1)	76.8	23.2
보건전문가	1886 (0.5)	72.5	27.5
간호 및 조산 전문가	790 (0.2)	2.7	97.3
교육전문가			
대학 및 고등교육 교수	1401 (0.4)	74.3	25.7
중·고등학교 교사	4825 (1.3)	58.3	41.7
초등 및 학령전 교육교사	3403 (1.0)	33.1	66.9
특수학교 교사	70 (0.0)	32.9	6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전문가	485 (0.1)	49.5	50.5

(계속)

직업(소분류)	종사자수 (%)	남성	여성
기타 전문가			
사업전문가	343 (0.1)	88.0	12.0
법률전문가	201 (0.1)	94.0	6.0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	63 (0.0)	55.6	44.4
사회과학 및 관련 전문가	188 (0.1)	54.3	45.7
작가와 창작 및 공연 예술가	1182 (0.3)	64.3	35.7
종교 전문가	1104 (0.3)	84.1	15.9
기술공 및 준전문가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3104 (0.9)	92.4	7.6
컴퓨터 준전문가	1054 (0.3)	62.6	37.4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용	780 (0.2)	80.3	19.7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공	397 (0.1)	98.2	1.8
안전 및 품질 검사원	1954 (0.5)	81.8	18.2
생명과학 및 보건준전문가			
생명과학 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	120 (0.0)	83.3	16.7
현대 보건 준전문가	708 (0.2)	40.8	59.2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	896 (0.3)	5.2	94.8
전통의료개업의 및 신앙 치료사	40 (0.0)	60.0	40.0
교육 준전문가			
초등교육 준교사	1074 (0.3)	25.5	74.5
학령적 교육 준교사	1776 (0.5)	15.8	84.2
특수교육 준교사	301 (0.1)	29.9	70.1
기타 교육 준전문가	2077 (0.6)	36.9	63.1
기타 준전문가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	6017 (1.7)	78.1	21.9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5254 (1.5)	87.7	12.3
관리 준전문가	8612 (2.4)	87.1	12.9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1976 (0.6)	80.0	20.0
수사관	402 (0.1)	95.8	4.2
사회사업 준전문가	57 (0.0)	50.9	49.1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080 (0.6)	59.6	40.4
종교 준전문가	770 (0.2)	50.5	49.5

(계속)

직업(소분류)	종사자수 (%)	남성	여성
사무직원			
일반 사무직원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5618 (1.6)	56.3	43.7
계수 사무원	7319 (2.0)	44.8	55.2
재료기록 및 운송 사무원	6136 (1.7)	87.2	12.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1916 (0.5)	64.0	36.0
기타 사무직원	8564 (2.4)	70.4	29.6
고객봉사 사무직원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10347 (2.9)	28.4	71.6
고객안내 사무원	1132 (0.3)	37.1	62.9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대님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여행접대요원 및 관련 근로자	319 (0.1)	47.6	52.4
가사 및 음식서비스 근로자	21256 (5.9)	34.0	66.0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912 (0.3)	12.9	87.1
기타 대인 서비스 근로자	5908 (1.7)	40.8	59.2
점성가, 예언자 및 관련 근로자	265 (0.1)	37.7	62.3
보안업무 근로자	2157 (0.6)	97.0	3.0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패션 및 기타 모델	56 (0.0)	41.1	58.9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	38414 (10.7)	57.8	42.2
매점 및 시장 판매원	2098 (0.6)	53.5	46.5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출하용 채소 및 작물 재배자	51725 (14.5)	50.6	49.4
출하용 동물 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	2199 (0.6)	65.8	34.2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90 (0.0)	64.4	35.6
임업 및 관련 근로자	52 (0.0)	82.7	17.3
어업근로자 및 수렵원	2239 (0.6)	71.7	28.3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416 (0.1)	60.6	39.4

(계속)

직업(소분류)	종사자수 (%)	남성	여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작용	372 (0.1)	97.0	3.0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751 (1.6)	98.2	1.8
건물 완성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910 (1.7)	96.6	3.4
도장원, 건물 청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619 (0.5)	85.5	14.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	5359 (1.5)	94.4	5.6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800 (0.5)	89.7	10.3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5161 (1.4)	97.0	3.0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4906 (1.4)	93.2	6.8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금속 및 관련 재료 세공원	1130 (0.3)	71.9	28.1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031 (0.3)	80.2	19.8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 수공예근로자	698 (0.2)	72.3	27.7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450 (0.4)	81.3	18.7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130 (0.6)	51.5	48.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452 (0.4)	80.6	19.4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8636 (2.4)	39.2	60.8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기능 근로자	1458 (0.4)	53.1	46.9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용			
채광 및 광물 가공장치 조작용	118 (0.0)	97.5	2.5
금속가공장치 조작용	728 (0.2)	92.2	7.8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 조작용	369 (0.1)	80.8	19.2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용	242 (0.1)	86.0	14.0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604 (0.2)	88.6	11.4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용	655 (0.2)	99.1	0.9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용	217 (0.1)	82.5	17.5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금속 및 광물제품 제조용 기계조직원	1722 (0.5)	88.3	11.7
화학제품용 기계조직원	710 (0.2)	71.3	28.7

(계속)

직업(소분류)	종사자수 (%)	남성	여성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1270 (0.4)	78.9	21.1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138 (0.0)	83.3	16.7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784 (0.2)	79.7	20.3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2656 (0.7)	54.6	45.4
식품 및 관련 제품용 기계조작원	783 (0.2)	63.9	36.1
조리원	8218 (2.3)	65.4	34.6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08 (0.3)	62.3	37.7
철도기관사 및 관련 근로자	289 (0.1)	98.6	1.4
자동차 운전원	15587 (4.4)	99.0	1.0
농업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원	2256 (0.6)	99.4	0.6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근로자	299 (0.1)	99.0	1.0

단순노무직 근로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행상 및 관련 근로자	4477 (1.3)	29.5	70.5
구미미화원 및 기타 단순가두 서비스 근로자	110 (0.0)	73.6	26.4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3037 (0.8)	28.8	71.2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2097 (0.6)	61.7	38.3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4485 (1.3)	89.9	10.1
환경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882 (0.2)	76.5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665 (0.2)	40.0	60.0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자	5281 (1.5)	89.3	10.7
제조관련 단순노무자	2769 (0.8)	42.8	57.2
운수업 관련 단순노무자 및 화물취급원	534 (0.1)	92.1	7.9

군인

군인			
군인	1484 (0.4)	98.9	1.1

전체	357463 (100.0)	64.8	35.2
----	----------------	------	------

제5장 직업과 계층구조

직업은 계층변수 중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직업이 곧 계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직업을 근거로 한 계층연구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의 의미를 좀 더 유용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1. 직업과 불평등구조

직업적 분화는 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위계적인 함의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 노동 상황이나 보수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작업장·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업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즉 각 직업이 갖는 내적 특성, 즉 경제적 보상, 사회적 위신과 존경, 지위획득의 용이성 등은 바로 직업의 위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직업범주와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구조화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 그 자체는 비위계적 구조이지만,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직업선택과정에서 직업과 계층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단순히 생계유지수단의 다양성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기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일지표가 직업이기 때문이다(Blau and Duncan, 1967; Parkin, 1972; Haug, 1977; Crompton, 1993). 물론 직업을 통해 계층 또는 계급을 측정하는 작업에는 많은 비판이 따른다¹⁾. 직업분류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사회의 주요 중심축인 자본가계급을 구분해 낼 수 없다. 또한 직업의 집합적 구성이 곧 계급이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마르크스계급론에서는 <계급>을 <직업>의 집단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마르크스의 계급은 계급의식이나 계급행동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 베버의 사회계급도 개인이동과 세대내이동을 고려한 계급상황의 총체

1) 이 장에서 <계급>은 <계층>의 포괄적 범주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 및 계급구조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연구자가 취하는 이론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많은 부분 분석의 기초를 직업분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본다.

2. 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연구

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연구로는 1) 직업구분이 바로 위계적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직업분류를 바로 계층분류로 이용하는 방식, 2) 직업자체는 위계적인 것이 아니지만, 유사한 시장상황, 노동상황, 사회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특정한 사회적 집합체를 형성한다고 보고 계층분류를 하는 방식, 3) 직업은 기술적 분업만을 나타낸다고 보고, 직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지배(착취)/피지배(피착취) 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1) 직업분류에 의거한 사회계급분류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바로 계층이기 때문에 직업분류를 계층분류에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업이 비교적 유사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질적인 사회집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직업자체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노력은 특히 영국의 인구센서스및조사국(The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OPCS)에서 발전되었는데, 1911년 센서스 이래 직업을 <사회계급>(social classes)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여 왔다. 분류의 기본은 상, 중, 하를 기본으로 하되, 하층을 기술수준에 따라 셋으로 나눈 5계급 구분이다. 사회 상층은 <고위 전문직>(Professional, etc. occupations)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밑에 관리 및 기술직으로 구성된 <중간층>(Intermediate occupations)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하층인데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숙련, 반숙련, 미숙련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이상과 같은 5계급으로 구분하였으나, 1971년에 숙련 직업을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으로 구분함으로써 5계급 6구분으로 변화되었다. 정신노동에 종사하

는 것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큰 차이로 본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말 개정에서 <중간직>으로 명명되었던 기존의 <사회계급 II>를 <관리 및 기술직> (Managerial and technical occupations)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표 5-1>).²⁾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직업구분을 계층분류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직업을 노동의 성격에 따라 육체노동-정신노동으로 구분하는 관행에 따라 직업군을 <상위 정신노동자>(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 <하위 정신노동자>(사무·판매직 종사자), <육체노동자>(숙련·반숙련·비숙련공)로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사회이동 연구(예, Lipset and Bendix, 1959)에서는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농업종사자> 등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표 5-1> 영국의 사회계급 분류

사회계급	직업분류
I	고위전문직(Professional, etc. occupations)
II	관리 및 기술직(Managerial and technical occupations): 하위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특정범주의 소유주, 농업 및 농장관리자
III(N)	숙련 비육체직(Skilled occupations: non-manual): 사무 및 판매 피고용자, 특정 서비스직(경찰 등), 기타 소유주 및 관리자
III(M)	숙련 육체직(Skilled occupations: manual): 숙련 육체 피고용자, 숙련 자영자, 십장
IV	반숙련직(Partly skilled occupations): 반숙련 육체 피고용자
V	비숙련직(Unskilled occupations): 비숙련 육체 피고용자

출처: OPCS(1980).

2) 계급상황에 따른 직업분류

앞의 구분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개인의 능력보다 직업에 따라 시장상황, 노동상황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차이가 난다는 데 착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하고 계층분석에 활용

2) <군인>과 <직업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계급>을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연수 중에 있는 사람들은 10% 표본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인구센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경제집단> (socio-economic group; SEG)과 골드소프(Goldthorpe, 1980)의 계급모형이 대표적이다.

(1) 영국 인구센서스의 <사회경제집단>

<사회경제집단>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직업을 한데 모은 것으로 1951년 영국 센서스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61년도 센서스에서 크게 개정되었다.³⁾ 사회경제집단은 당시 존재했던 5개의 사회계급만으로는 모든 직종을 분류하기 어렵고, 또한 계급내 편차가 너무 커서 현실적인 생활양식상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고용주>(employer)와 <관리자>(manager)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숙련직내에서의 육체 및 비육체 노동자 내부에서도 작업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또한 동일 직종에서도 <자영자> 및 <피고용자> 등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경제집단>은 17개 집단으로 구분되며, 내부적 구분을 각각 별개의 범주로 간주하면 총 20개 집단이 된다(<표 5-2>).

3) <사회경제집단> 구분에는 <사회계급>의 경우와 달리 군인 및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표 5-2〉 영국의 사회경제집단 분류

분류	비고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업체 등의 고용주 및 관리자 1.1 공업, 상업에서의 고용주 1.2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체의 관리자	대규모 사업체 (종업원 25명이상) 농업제외
2. 산업체 등의 고용주 및 관리자 1.1 공업, 상업에서의 고용주 1.2 산업체의 관리자	소규모 사업체 (종업원 25명미만)
3. 전문직 근로자 (자영자)	학사학위 자격이상
4. 전문직 근로자 (피용자)	학사학위 자격이상
5. 중간 비육체근로자 5.1 보조근로자 및 예술가 5.2 심장 및 감독자	전문직보조, 학위요구 없음 타인 노동 감독
6. 하급 비육체 근로자	계획, 감독기능 없음
7. 개인서비스 근로자	개인 욕구충족 서비스
8. 심장 및 감독자: 육체근로자	육체 근로자 직접 감독
9. 숙련 육체근로자	
10. 반숙련 육체근로자	
11. 비숙련 육체근로자	
12. 자영 근로자 (전문직 제외)	피고용자 없는 판매, 서비스, 생산직 자영업자
13. 농업종사자: 고용주 및 관리자	가족외 피고용자 있음
14. 농업종사자: 자영농	가족외 피고용자 없음
15. 농업근로자	
16. 군인	
17. 분류불능 및 불명	

출처: OPCS(1980).

여기서 <사회계급>과 <사회경제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3>을 보면, 사회계급을 통해 사회경제집단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경제집단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사회계급>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사회경제집단에서 <산업체 등의 고용주 및 관리자(2)>, <개인서비스 근로자(7)>, <자영근로자(12)>를 제외하면, 개별 사회경제집단을 95%이상이 특정 사회계급에 포함된다.

공식적으로는 <사회경제집단>이 <사회계급>과는 달리 비위계적 구분임을 명시하고(OPCS, 1994: 393), <사회계급>과 호환성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지만(OPCS, 1980: viii), 사회경제집단을 이용하면 세분화된 계층분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사회경제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전 인구를 23개 <사회경제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자의 직업분류, 종사상의 지위 및 노동력상태를 고려하고 있다(日本 總務廳 統計局, 1996: 5-10).⁴⁾

〈표 5-3〉 사회경제집단과 사회계급, (영국, 1991: 10%표본)
(단위 %)

사회경제집단	I	II	III (N)	III (M)	IV	V	기타 ¹⁾	계 (인원수) ²⁾
1	0.4	99.3	0.1	0.1	0.04	0.01	-	100.0(114,534)
2	-	85.5	5.1	7.3	1.6	0.5	-	100.0(245,980)
3	100.0	-	-	-	-	-	-	100.0 (22,701)
4	100.0	-	-	-	-	-	-	100.0 (91,427)
5	-	92.6	7.4	-	-	-	-	100.0(319,131)
6	-	-	97.8	-	2.2	-	-	100.0(495,479)
7	-	2.1	-	41.6	56.3	-	-	100.0(106,249)
8	-	-	-	100.0	-	-	-	100.0 (47,260)
9	-	-	-	100.0	-	-	-	100.0(298,583)
10	-	-	-	-	100.0	-	-	100.0(247,477)
11	-	-	-	-	-	100.0	-	100.0(125,463)
12	-	15.4	15.5	50.8	13.1	5.2	-	100.0(150,856)
13	-	100.0	-	-	-	-	-	100.0 (9,396)
14	-	100.0	-	-	-	-	-	100.0 (10,418)
15	-	-	-	4.9	95.1	-	-	100.0 (17,774)
16	-	-	-	-	-	-	100.0	100.0 (19,964)
전체	4.9	28.3	23.2	20.7	15.3	5.7	1.8	100.0(2,345,223)

주: ¹⁾군인 및 불명 포함. ²⁾16세 이상 자영업주 및 피고용자.
자료: OPCS(1991: Vol. 2 of 2 <표C>)에서 계산.

(2) 골드소프의 계급모형

직업분류를 계층분류로 활용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개별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과 결합되면서 계급모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골드소프를 들 수 있다. 골드소프(Goldthorpe, 1980: 39-42)는 시장 및 노동상황과 더불어 직업간

4) 여기서 <노동력 상태>란 취업자, 통학, 가사, 실업자, 15세 미만 등의 구분을 의미한다.

사회이동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직업위신에 따라 36개로 구분한 호프-골드소프 척도(Goldthorpe and Hope, 1974)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급모형을 제시하고 있다(<표 5-4>).

그의 계급모형은 기본이 7계급 모형이지만,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계급구성원간에 경제적 상황, 자율성, 권위 및 사회이동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골드소프의 계급모형은 직업에 대한 일종의 집락분석의 결과라 보아도 될 것이다.⁵⁾ 그에 따르면 취업자는 <비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자로 구분되며, 그 중 육체근로자는 기술수준에 따라 3분되고, 비육체근로자는 <화이트칼라>와 <블루부르조아>로, 화이트칼라는 다시 <서비스계급>과 <사무직 종사자>로 구분되며, 서비스계급은 <고위 서비스계급>과 <하위 서비스계급>으로 나누어진다.

<표 5-4> 골드소프의 계급모형

계급구분(7계급)	주요 직업	4계급	3계급	2계급
I 고위전문직 (자영 또는 피용)	고위행정직(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대기업 관리직, 대소유자	서비스 계급	화이트 칼라	비육체 노동
II 하위전문직	하위전문직, 하위 관리직, 행정직, 고위 기술공, 소기업 관리직, 비육체 노동자 감독자,			
III 사무직	일상적 비육체노동, 대부분의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피고용자			
IV 소재산가, 자영업자	(농부와 소소유자 포함하는) 소재산가, 자영기능인, 전문직이 아닌 자영업자	블루 부르조 아지		
V 하위기술직 및 감독자	육체노동 범주에 들어가는 하위기술자, 육체근로자 감독자	노동 계급	블루 칼라	육체 노동
VI 숙련근로자	모든 산업의 숙련육체 노동자			
VII 반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	반숙련, 미숙련 육체노동자, 농업노동자			

출처: Goldthorpe(1980); Marsh(1986).

5) 집락분석은 유사한 요소를 함께 묶고 상이한 요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통계적 기법을 일컫는다. 직업에 대한 집락분석을 통해 계급모형의 유용성을 밝힌 논문으로 Vanneman(1977)과 홍두승(1988)을 참고할 수 있다.

3) 지배-피지배 관계에 따른 계급분류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적 계급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직업집단보다는 사회전체 수준에서 <지배-피지배> 또는 <착취-피착취>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및 임노동자의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부르조아지>, <쁘띠 부르조아지>,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봉급근로자가 내부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자 계급구분에 있어서 한 개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다시 말하자면 직업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플란차(Poulanzas, 1978)는 계급이 경제적 관계와 더불어 사회적 분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업과 연관되는 계급분류를 제시한다(<표 5-5>). 그러나 그의 계급모형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계급구성을 밝히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직업분류를 이용해서 계급모형을 구성하는 경우, 직업에 따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밝힐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근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표 5-5> 플란차의 계급모형

계급	직업	기능
I. 부르조아지	자본의 소유 및 관리자, 국가기구의 장, 고위 공무원, 특정 지식인	경제적 착취 정치적 지배 지배이데올로기생산
II. 뿌띠 부르조아지 IIa. 신뿌띠 부르조아지	대부분의 공무원, 다양한 서비스직, 사무직, 대학교수, 교사, 사회사업가, 중간층관료, 엔지니어, 기술자, 판매직	정치적 지배, 지배이데올로기재생산 불생산적 노동
IIb. 구뿌띠 부르조아지	소규모 생산자, 자영기능인, 상인, 가족기업 경영자	
III. 노동계급	생산적 노동자,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교통업 종사 육체노동자	잉여가치 생산 경제적 피착취 정치적 피지배

출처: Poulanzas(1978).

한편 플란차의 구조주의적 계급이론과 <부르조아지>, <프롤레타리아>, <쁘띠부르조아지>라는 마르크스적 3계급 모형을 받아들이는 라이트(Wright, 1978)는 이들 3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인 존재를 <모순적 계급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s)로 개념규정하고 덧붙임으로써 6계급모형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대사회에서 기본계급들이 분화되면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두 계급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관리자>(manager)계급이 존재하고, 부르조아지와 뿌띠부르조아지 사이에는 <소고용주>(small employer)계급이 존재하며, 뿌띠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는 <반자율적 피고용자계급>(semi-autonomous employee)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업분류를 동원한다(<표 5-6>). 라이트(Wright, 1985)는 이후 12개의 계급집단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 모형은 직업분류에 근거한 계급모형이 아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5-6> 라이트의 계급모형

계급	내용	판별기준
부르조아지	생산수단 소유 (+) ¹⁾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관리자 (부-프) ²⁾	생산수단 소유 (-)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상한: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하한: 기계조직원 및 노동자 제외
프롤레타리아	생산수단 소유 (-)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상한: 비감독 근로자,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의 반자율적 피고용자, 기계조작 감독자 하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비감독근로자
반자율적 피고용자 (뿌-프)	생산수단 소유 (-)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상한: 타인을 통제를 받지 않는 비감독 근로자 하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의 비감독근로자
뿌띠 부르조아지	생산수단 소유 (+)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소고용주 (부-뿌)	생산수단 소유 (+) 생산수단 통제 (+) 타인노동 통제 (+)	상한: 50명이상 고용 하한: 10명미만 고용

주: ¹⁾(+)유 (-)무 (+/-)유 또는 무.

²⁾(부)부르조아지 (뿌)뿌띠부르조아지 (프)프롤레타리아.

출처: Wright(1978: 75-86).

3. 한국에서의 계층연구

1) 계층분류

우리 나라에서 계층분류 작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직업분류를 활용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특히 직업분류가 제시된 인구센서스 보고서가 계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우선 김영모(1982)는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 대분류를 교차시켜 계급모형을 구성한다(<표 5-7>). 직업 대분류중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자본가계급>에, 자영자는 <구중산층>에 피고용자는 <신중산층>에 귀속시킨다. 판매직, 서비스직,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주 및 자영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사무직 종사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되, 피고용자는 <노동자계급>으로 분류한다. 한편 기능공 및 노동자는 고용주는 <구중산층>에, 자영자 및 피고용자는 <노동자계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5-7> 김영모의 계급구분

직업	종사상의 지위		
	고용주	자영자	피고용자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자본가계급	구중산층	신중산층
판매직, 서비스직, 농·축·수산업			노동자계급
기능공, 노동자	구중산층	노동자계급	

출처: 김영모(1979; 1982: 328).

이러한 분류는 김영모의 분류가 생산수단 소유여부와 임노동 고용여부라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의 계급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적 계급이론의 전통을 따른다고 할 경우, 자영자를 노동자계급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용자의 계급구분에 대해서는 마르크스 계급이론의 전통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화이트칼라의 계급적 위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Abercrombie and Urry, 1983; Hyman and Price, 1983 참조).

1980년대 들어서서 홍두승(1983a)은 <부문> 및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개념을 도입하여 계급분류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문을 조직, 자영업, 농업 부문으로 3분하고, 각 부문마다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이 상, 중, 하로 구분됨을 상정하여 9개의 가능한 범주를 설정한 다음, 농업부문의 상층을 제외한 8개의 계급집단을 식별하고 있다(<표 5-8>). 농업부문에서 상층을 배제한 것은 농지개혁당시 농지의 개인소유의 상한을 3정보로 제한함으로써 농지의 대규모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에서이다.

그 결과 조직부문은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근로계급>으로 구분되고, 자영업부문은 <상류계급>, <구중간계급>, <도시하류계급>으로, 농업부문은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하류계급>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상류계급의 경우는 이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그 절대수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센서스류의 자료에서는 이들이 의미있게 파악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분류를 계급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류계급을 제외한 7계급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상류계급은 중상계급이나 구중간계급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전면 배제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급범주화 방식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 5-8> 홍두승의 계급구분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부 문		
	조직	자영업	농업
상	중상계급	상류계급	-
중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독립자영농계급
하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농촌하류계급

출처: 홍두승(1983a: 179).

그 이후 마르크스적 계급이론의 전통에서 직업분류를 계급범주화한 연구로 서관모(1987)를 들 수 있다. 그는 전후 일본에서의 계급연구(대표적으로 大橋隆憲, 1971), 라이트(Wright, 1978) 및 홍두승(1983a, 1983b)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5-9>와 같은 계급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즉 <사회적 생산양식>을 기준으로 <자본제 부문>과 <소상품생산 부문>을 구분하고, 자본제 부문에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두 기본 계급을 설정한다.⁶⁾ 그리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

6) 두 계급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층으로 보는 데,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두 계급만이 역사 변화의 추동력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급 사이에 <신중간 계층>을 설정한다. 소생산부문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은 <뿌리부르조아지>와 <노동자계급> 사이에 <반프롤레타리아트층>을 두어 구분하고, 농업부문에는 경작규모에 따라 <부농·중농>, <빈농> 및 <농업노동자>로 구분한다.

〈표 5-9〉 서관모의 계급구분

자본제 부문	소생산부문	
	비농업부문	농업부문
자본가계급	-	-
신중간계층	-	-
-	뿌리부르조아층	부농, 중농
-	반프롤레타리아층	빈농
노동자계급		농업노동자
	주변적 무산자층	

출처: 서관모(1987: 37).

구체적으로 직업분류를 계급범주화하는 작업에서는 종사상의 지위와 함께 계급 상황, 계급행동, 계급의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계급구분에 경제적 관계 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포함시키는 풀란차(Poulantzas, 1978)의 입장을 실제로 계급분류에 활용하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계층-계급이론을 직업분류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했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이들의 연구는 직업을 기반으로 계급구성표를 작성하고 1960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의 계급구성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및 그 변화, 그리고 계급구조 변화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계급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직업분류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홍두승의 계급구분을 채택하여, 계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2) 계층구조의 변화와 특징

(1) 계급범주의 조작화

먼저 직업을 이용한 계급분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조작화의 방식

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두승(1983b)은 1974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분류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0>은 1974년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고, <표 5-11>은 1992년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계급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표 5-10>을 보면 과거의 계급분류가 하위 판매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직업 소분류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대체로 직업 중분류와 종사상의 지위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직업 중분류와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서 계급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직업 중분류를 구성하는 직업군이 계층구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분류를 구성하는 직업 중 다수가 포함되는 계급분류에 중분류 전체를 포함시켰을 뿐이다.

그에 반해 <표 5-11>은 중분류뿐만 아니라, 소분류를 다수 활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92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다 감안한 분류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다 유용함을 보여준다. 계층구조의 변화를 일관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계급분류방식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때로는 계급명칭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되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구분이 현재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명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인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행정구역상 도시와 농촌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또한 1980년대 이전까지는 농촌과 도시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서 이들간 구분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명칭 중 <도시하류계급>은 <하류계급>으로 수정하고, <농촌하류계급>은 농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농촌하류계급이 농촌에 거주하는 하류계급의 의미보다는 영농종사인구 중 하위의 성층을 구성하는 인구로 이해되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고졸 미만의 실업자를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하류계급과 농촌하류계급으로 구분했던 원래의 모형에서 이들을 모두 <하류계급>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지역에 머물기보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간 이동을 매우 활발히 하기 때문이다.

〈표 5-10〉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용/자영	자영업주 구분 및 기타	계급
0/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고위전문직	비용/자영		Ⅱ. 중상
	(하위)전문· 기술직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전문직	Ⅳ. 구중간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정부관리직	비용		Ⅱ. 중상
	관리자	비용		Ⅱ. 중상
		자영	자영관리직	Ⅳ. 구중간
3.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원감독자	비용		Ⅲ. 신중간
	정부행정공무원	비용		Ⅲ. 신중간
	일반사무직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사무직	Ⅳ. 구중간
4. 판매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상인	Ⅳ. 구중간
	(하위판매종사자) ¹⁾	자영	행상 등	Ⅵ. 도시하류
5. 서비스직 종사자	요식숙박업 종사자	비용		Ⅴ. 근로
		자영	자영상인	Ⅳ. 구중간
	보안업무종사자	비용		Ⅲ. 신중간
	가정부,가사종사자	비용		Ⅳ. 도시하류
	건물관리원,청소원	비용		Ⅳ. 도시하류
	기타 서비스직	비용		Ⅴ. 근로
자영		자영서비스직	Ⅳ. 구중간	
6. 농업종사자		자영	5단보이상	Ⅶ. 자영농
		자영	5단보미만	Ⅷ. 농촌하류
		비용		Ⅷ. 농촌하류
7/8/9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생산감독	비용		Ⅴ. 근로
	생산관련 종사자	비용		Ⅴ.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Ⅳ. 구중간
	운수장비 운전사	비용		Ⅴ.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Ⅳ. 구중간
단순노무자	비용		Ⅳ. 도시하류	
실업자	실업자		고졸미만 ²⁾	Ⅳ. 도/농하류
			고졸이상	분류제외

주: 1) 소분류까지 고려함.

2) 도시거주자는 도시하류계급에, 농촌거주자는 농촌하류계급에 각각 포함시킴.

자료: 홍두승(1983b: 74) 참고 작성.

〈표 5-11〉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용/자영	자영업주 구분	계급
1.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1		비용		Ⅱ. 중상
	12, 13	121	비용/자영		Ⅱ. 중상
		122, 123, 131	비용 자영	자영관리직	Ⅲ. 신중간 Ⅳ. 구중간
2. 전문가	21, 22	211-214, 221, 222	비용/자영		Ⅱ. 중상
		223	비용		Ⅲ. 신중간
	23	231	비용		Ⅱ. 중상
		232-235	비용/자영		Ⅲ. 신중간
	24	241, 242, 244, 245	비용/자영		Ⅱ. 중상
		243, 246	비용/자영		Ⅲ. 신중간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1, 32, 33, 34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전문직	Ⅳ. 구중간
4. 사무직원	41, 42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사무직	Ⅳ. 구중간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51	511-515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서비스 직	Ⅳ. 구중간
		516	비용		Ⅲ. 신중간
			자영	자영서비스 직	Ⅳ. 구중간
	52	521	비용/자영		Ⅲ. 신중간
		522, 523	비용 자영	자영상인	V. 근로 Ⅳ. 구중간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61, 62		비용		VIII. 농촌하류
			자영		VII. 독립자영농
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71-74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Ⅳ. 구중간
8. 장치,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81-83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Ⅳ. 구중간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91, 93	911-916, 931-933	비용/자영		VI. 하류
	92	921	비용/자영		VIII. 농촌하류
0. 군인	01				분류제외
실업자	실업자	고졸 미만			VI. 하류
		고졸 이상			분류제외

출처: 홍두승(1983b) 참조.

(2) 계급구성의 변화

앞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계급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5-12>는 남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계급구성표이다. 여성을 배제시킨 이유는, 첫째로,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 60%이상 차지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며, 둘째로, 가구주가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홍두승, 1983b). 또한 남성이 아닌 가구주를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1995년의 경우 가구주 중 남성 비율이 89.1%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과거 자료와의 일관성을 위해 남성에 한정하고자 한다.⁷⁾

1960년이후 한국사회 계급구성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몇가지 추출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성상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계급은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하류계급이다. 독립자영농계급은 1960년 40.0%에서 1990년 13.0%로 격감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감소속도가 다소 완만해져서 1995년에는 12.1%가 되었다. 한편 농촌하류계급은 1960년 24.0%에서 1995년 0.6%로 크게 감소한다. 물론 1995년의 경우 중졸이하 실업자의 거주지역을 감안했다라면 농촌하류계급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항상적인 일손 부족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하류계급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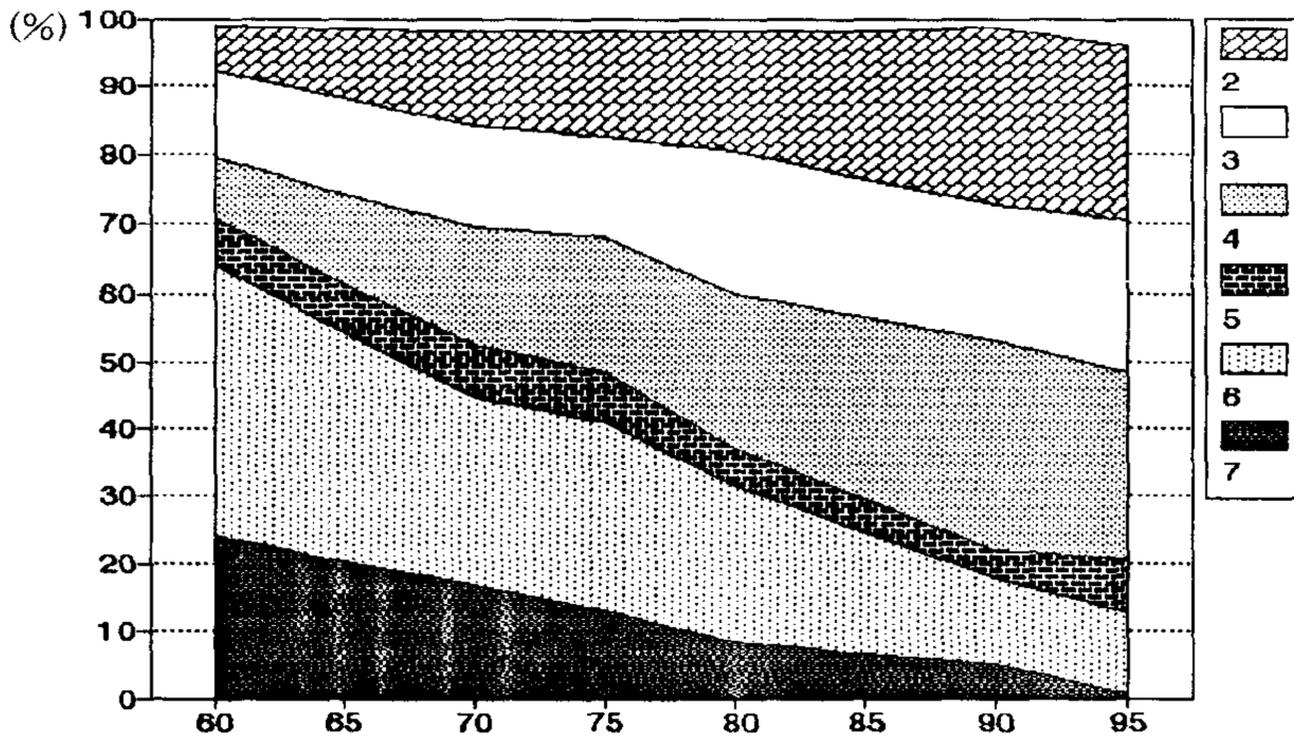
<표 5-12> 계급구성의 변화, 1960-1995 (남성)
(단위: %)

계급구분	1960	1970	1975	1980	1990	1995
중상계급	0.9	1.3	1.2	1.8	1.9	3.6
신중간계급	6.6	14.2	15.7	17.7	26.1	25.5
구중간계급	13.0	14.8	14.5	20.8	19.6	22.2
근로계급	8.9	16.9	19.9	22.6	31.3	27.7
하류계급	6.6	8.0	7.5	5.9	4.2	8.2
독립자영농계급	40.0	28.0	28.2	23.2	13.0	12.1
농촌하류계급	24.0	16.7	12.9	8.1	4.9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홍두승(1980b: 82); 홍두승·안치민(1995: 78);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7) 계급분석에서 그 대상을 남성에 한정시키는 예로는 골드소프(Goldthorpe, 1980) 및 페인(Payne, 1987)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농·림·수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그림 5-1>에서 보듯이, 196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계급이었던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하류계급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보다 그 비중이 적어졌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5-1> 계층구성의 변화, 1965-1995 (남성)

주: (2)신중간계급 (3)구중간계급 (4)근로계급 (5)하류계급 (6)독립자영농계급 (7)농촌하류계급

둘째, 반대로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은 그동안 규모가 매우 커졌다. 이들 3계급을 합쳐서 계산하면 1960년 28.5%가 1995년 75.4%로 증가하게 된다. 1995년 현재 이들 세 계급이 구성비상 <빅3>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그중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이 산업화과정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계급이다. 신중간계급은 1960년 6.6%에서 1990년 26.1%로 증가하였고, 근로계급은 8.9%에서 31.3%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그 수에 있어서 근로계급이 가장 큰 계급이 되었고, 신중간계급이 다음에 이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각기 감소하는데, 특히 근로계급 감소추세가 주목된다. 이는 2차산업의 성장이 한계점이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구중간계급은 1960년대에서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1980-90년 정체기간을

거쳐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60-80년까지의 증가는 농업인구의 비농자영업으로의 전환에 의해 그 증가가 주도되었다면, 1990년이후의 증가는 신중간계급 및 근로계급으로부터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상계급은 1960년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구성비에 있어 1.9%에서 3.6%로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추세, 산업조직의 성장둔화로 인한 전문직 선호성향의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을 합쳐서 중간계급, 또는 비육체 근로자 집단으로 본다면, 그 비율은 1960년 20.5%에서 1995년에는 5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상계급과 신중간계급을 합친 화이트칼라층만 따져도 1960년 7.5%에서 1995년 29.5%로 증가했음을 보인다. 결국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는 하층이 다수를 차지하던 피라밋형에서 중간층 이상이 두터워지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일곱째, 하류계급은 1970년이후 1990년까지 줄었다가 1995년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하류계급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던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한국사회가 저성장 단계에 돌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농촌하류계급과 하류계급을 합친 하층의 구성비는 1960년 30%수준에서 1995년에는 8.8%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3) 계급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음으로 계급별 연령 및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1995년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급별로 연령과 학력면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계급분류에 활용되었던 직업분류가 계급분류와 어느 정도 상관관을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 5-13>은 계급별 연령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 5-13〉 계급별 연령분포, 1995 (남성)

(단위: %)

계급구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계
전체	1.0	5.8	14.0	17.3	17.3	12.8	10.0	7.9	6.5	4.0	3.4	100.0
중상	0.0	2.0	18.8	25.2	20.5	11.1	7.1	5.8	4.7	2.8	1.9	100.0
신중간	0.4	5.0	18.8	22.8	19.4	12.2	8.7	6.2	4.2	1.8	0.5	100.0
구중간	0.1	1.5	6.7	15.9	22.2	18.9	14.0	9.8	6.4	2.8	1.8	100.0
근로	2.5	11.6	21.0	19.9	16.6	11.0	7.8	5.1	3.1	1.1	0.3	100.0
하류	2.4	6.1	8.5	9.6	11.9	11.3	11.8	12.9	13.4	8.1	4.1	100.0
자영농	0.7	2.9	3.4	5.4	7.9	8.6	9.8	11.7	15.2	15.1	19.4	100.0
농촌하류	0.9	4.1	9.6	12.7	14.6	11.9	13.1	11.2	10.4	6.5	5.0	100.0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먼저 중상계급과 신중간계급은 연령분포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0-34세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구중간계급은 중상계급, 신중간계급에 비해 연령이 다소 높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중간계급의 경우 35-39세가 정점이며 이 연령층이 지나면 점차 줄어든다. 반대로 근로계급은 연령별 분포로 보아 가장 젊은 계급으로 25-29세가 가장 많다. 그러나 50대이상도 9.6%가 되어 적지 않음이 주목된다. 하류계급은 거의 모든 연령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5-29세에서 60-64세까지 최소 8.1%에서 최대 13.4%까지 고른 분포를 보인다.

독립자영농계급은 가장 나이가 많은 계급으로 50대 이상이 62.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이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촌하류계급의 경우 독립자영농계급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연령구성면에서 계급별 차이가 나타났지만, 학력면에서도 계급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표 5-14>). 중상계급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가 90.5%이며, 대학원 이상 학력소지자도 28.4%에 이른다. 신중간계급은 고등학교 학력이 37.0%, 초급대 이상이 58.6%로, 여타 계급보다는 학력수준이 높지만, 중상계급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다. 구중간계급은 고등학교 학력이 각각 51.2%로 가장 많고, 이를 중심으로 중학교 이하가 24.0%, 초급대학 이상이 24.1%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계급은 고등학교 학력이 61.4%를 차지하여, 구중간계급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력자가 중심이지만, 중학교이하 26.4%, 초급대이상 12.2%로 구중간계급보다 학력수준이 다소 낮다는 특징이 있다. 하류계급 및 농촌하류계급

은 이상의 3계급보다 학력수준이 낮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비율이 비슷하다. 자영농계급은 7개 계급중 학력수준이 가장 낮다. 불취학자가 14.4%이며, 초등학교 학력소지자가 44.4%나 된다. 이는 이들이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는 점과 상관을 가지고 있다.

〈표 5-14〉 계급별 학력분포, 1995 (남성) (단위: %)

계급구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체	2.4	11.9	14.5	43.1	5.0	20.2	2.9	100.0
중상	0.0	0.2	0.4	5.0	3.9	62.1	28.4	100.0
신중간	0.1	1.0	3.3	37.0	9.0	44.0	5.6	100.0
구중간	0.6	7.7	16.3	51.2	4.3	18.3	1.5	100.0
근로	0.5	8.0	17.9	61.4	4.9	7.1	0.2	100.0
하류	3.7	26.9	32.3	30.5	1.7	4.2	0.2	100.0
자영농	14.4	44.4	19.1	19.6	1.0	2.4	0.1	100.0
농촌하류	8.1	30.6	25.2	30.0	1.7	4.0	0.4	100.0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표 5-15〉는 같은 직업분류에 속한 사람이 어떤 계급에 분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제시한 표이다. 직업분류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1974년도 분류방식과 1992년 분류방식 두가지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74년 분류에서는 같은 직업대분류에 속한 사람이 주로 3-4개의 계급으로 구분되었으나, 1992년분류에서는 주로 2계급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직업군일 경우 1974년 직업분류보다 1992년 직업분류에서 특정 계급과의 상관성이 높다. 이는 1992년 직업분류개정이 계급분류에 보다 적합한 분류방식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5-15〉 직업분류에 따른 계급분포, 1995 (남성)

직업분류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하류	자영농	농촌하류	분류제외	계
1974년									
전문직	34.4	59.4	6.2						100.0(22661)
관리직	4.7	38.5	56.8						100.0(14510)
사무직		97.5	2.5						100.0(31484)
판매직		22.5	53.9	19.7	3.9				100.0(33994)
서비스직		12.7	36.8	14.7	35.8				100.0(19448)
농·림·수						95.1	4.9		100.0(29847)
생산 관련			20.7	71.1	8.2				100.0(78063)
실업					24.4			75.6	100.0(16836)
1992년									
입법/고위/관리	4.7	38.5	56.8						100.0(14510)
전문가	60.1	39.9							100.0(12991)
기술공/준전문가		88.4	11.6						100.0(28443)
사무직원		97.3	2.7						100.0(22405)
서비스/판매		5.9	67.1	27.0					100.0(35472)
농업/어업숙련						96.0	4.0		100.0(29581)
기능원 관련			24.9	75.1					100.0(39101)
장치/기계조작			19.9	80.1					100.0(32570)
단순노무직					98.2		1.8		100.0(14934)
군인								100.0	100.0(1467)
실업					24.4			75.6	100.0(16836)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4. 계층분석의 과제

1) 계층분석의 단위

앞서 언급하였지만, 연구자들간에 계층분석의 단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분석의 단위를 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료의 편의상 주로 남성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액커(Acker, 1973)는 전통적인 입장이 여성에 대한 지적 성차별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실상 마르크적 계급이론이든 베버적 계급이

론이든 나아가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이든 간에 지금까지 추상적 이론 수준에서는 성이라는 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었다.

골드소프(Goldthorpe, 1983)는 전통적인 남성 위주 분석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즉, 여성 취업이 늘고 있으나 임시적이거나 가계보조적인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취업의 경우에도 남편과 유사한 직종이거나, 남편의 지위보다 낮게 평가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후 골드소프의 논의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었지만, 계급분석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Wright, 1989).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구주 중심의 계급분포와 성별 계급분포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실마리를 푸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표 5-16>은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계급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1980년이나 1995년 모두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보다 하류계급, 독립자영농계급, 농촌하류계급의 구성비가 다소 높다. 즉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 보다 하위층이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6> 계급구성의 변화, 1980-1995 (가구주) (단위: %)

계급구분	1980년			1995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중상계급	1.9	0.2	1.8	3.7	1.3	3.4
신중간계급	17.5	9.3	16.8	25.4	18.1	24.6
구중간계급	23.5	27.1	23.8	24.7	21.6	24.4
근로계급	20.2	16.5	19.9	25.0	26.3	25.2
하류계급	6.0	11.1	6.4	7.8	12.5	8.3
독립자영농계급	23.1	26.4	23.4	12.8	18.9	13.5
농촌하류계급	7.9	9.3	8.0	0.6	1.3	0.7
계 (N)	100.0 (117,837)	100.0 (10,987)	100.0 (128,824)	100.0 (192,698)	100.0 (24,028)	100.0 (216,726)

자료: 홍두승(1983b: 81);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그러나 비록 여성 가구주 비율이 1980년 8.5%에서 1995년에는 11.1%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가구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낮기때문에, <표 5-12>의 남성 계층구성과 <표 5-17>의 가구주 계층구성을 보면 독립자영농계급을 제외하면, 계층구성의 분포가 매우 유사함을 알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를 단위로 계층분석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분석결과에서는 남성만을 분석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보면 어떠한가? 만일 개인을 분석단위로 했을 때는 남성의 계급분포보다 전체에 대한 계급분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5년 자료에 한하여 성 및 가족내 지위별 계급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5-17>).

남성, 여성 및 전체의 계급분포를 비교해보자. 남녀간에는 중상계급, 근로계급, 독립자영농계급에서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격차는 <표 5-16>에서 제시된 가구주에서의 성별 격차보다 크지 않다. 또한 여성이 전체에서 35.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급분포는 여성 계급분포보다 남성 계급분포에 가깝다. 따라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계급분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전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자료만을 제시하고, 전체에 대한 계급분포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상계급이 다소 과대평가되고, 근로계급 및 독립자영농계급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5-17〉 성 및 가족내 지위별 계급구성의 차이, 1995
(단위: %)

계급구분	남성	여성	전체	가구주	비가구주
중상계급	3.6	1.4	2.9	3.4	2.0
신중간계급	25.5	25.3	25.4	24.6	26.7
구중간계급	22.2	22.6	22.4	24.4	19.5
근로계급	27.7	20.7	25.3	25.2	25.4
하류계급	8.2	8.5	8.2	8.3	7.9
독립자영농계급	12.1	21.0	15.3	13.5	17.9
농촌하류계급	0.6	0.6	0.6	0.7	0.5
계 (N)	100.0 (234,120)	100.0 (127,759)	100.0 (361,789)	100.0 (216,726)	100.0 (145,153)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반대로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에 가구주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남성자료를 택하느냐, 전체자료를 택하는 것 좋으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성자료가 가구주 분포에 유사한가 아니면 전체 자료가 가구주 분포에 유사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표 5-18>을 보면 남성을 택하든 전체를 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계급이 과대평가되고, 어떤 계급이 과소평가되었는지를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분포를 이용해서 계층·계급분석을 하는 경우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면 가구주를,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면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사회의 계급분포가 남성중심적인 계급분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남성 계급분포의 편향을 이해한다면, 이론적 입장에 관계없이 편의상 남성의 계급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결국 분석단위보다는 계급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계급모형의 문제

그동안 한국사회에 대한 계급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많은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를 별도의 범주로 다루어 왔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계층분류표와 달리 독립자영농계급이나 농촌하류계급이라는 범주를 구분했었다. 적어도 1990년이전에는

규모면이나, 도·농간의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농업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분류의 유용성은 충분히 존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양식면에서 도·농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도 1990년 이후 독립자영농계급은 10%를 약간 넘을 정도이며, 농촌하류계급은 1990년 5%미만에서 1995년에는 1%미만이 되었다. 만일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이 매우 큰 계급이라면 계급규모가 적은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여타 부문의 계급과 유사하다면, 앞으로도 부문별로 계급구분을 설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구주를 대상으로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하류계급을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및 하류계급과 비교함으로써, 직업분류를 이용한 홍두승 모형의 수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5-18>는 이들 계급의 연령 및 학력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류계급의 경우 실업자를 제외하고 표를 작성하였다.

독립자영농계급은 여타 계급과 비교했을 때, 연령은 다른 계급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학력은 다른 계급보다 크게 낮다. 특히 독립자영농계급의 학력이 농촌하류계급보다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물론 자영농계급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한국사회 계층구조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자영농의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은 구중간계급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급보다도 못할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 독립자영농계급은 앞으로도 당분간 여타 계급과 합칠 수 없는 독립적인 계급범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하류계급의 경우는 자영농과 같은 농업부문에 속해 있지만, 연령분포나 학력에서 하류계급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농촌하류계급의 비율이 1% 미만이라면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하류계급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표 5-18〉 연령 및 학력수준별 계급 구성원 특성, 1995 (가구주)
(단위: %)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계
구중간	0.0	0.5	4.5	14.6	22.3	19.8	15.2	10.7	7.0	3.2	2.0	100.0
근로	0.6	5.2	14.8	20.9	19.9	14.3	10.6	7.2	4.5	1.6	0.5	100.0
하류	0.3	1.5	4.7	8.3	12.9	13.3	14.4	15.7	15.4	9.3	4.2	100.0
자영농	0.0	0.1	0.7	3.0	6.3	8.1	9.8	12.7	17.4	18.2	23.5	100.0
농업하류	0.1	0.7	4.2	8.8	12.1	11.4	14.0	13.2	13.0	10.6	11.8	100.0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이상			
구중간	1.4		9.8		17.4		49.0		22.4			100.0
근로	1.2		11.9		20.7		55.7		10.4			100.0
하류	5.3		29.9		25.7		33.0		6.1			100.0
자영농	22.2		45.7		16.7		13.1		2.4			100.0
농촌하류	17.7		35.6		21.5		21.1		4.1			100.0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징을 밝혀내고, 1950년대 중반 이래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난 40여년간 나타난 직업구조 및 그 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직업구성 변화의 유형

이 기간 중 직업구성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따라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들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직, 관리직 및 기술직 종사자의 지속적 증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의 한국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6-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 직업구성 변화의 유형

유형	변화추이	변화방향	직업군
I	감소	감소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II	증가	증가	전문직·기술직·관리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III		정체 (감소/증가)	사무직·판매직 종사자
IV		감소	생산직 종사자

제1 유형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감소의 폭은 줄어들다 하더라도 더 감소하게 되는 직업군이다. 이 유형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들의 감소는 다른 직업군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증가한 직업군 중에는 최근의 추세와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볼 때, 이들은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거나,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

이다. 제2 유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군으로 전문직-전문기술직 및 관리직 종사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이에 해당된다. 제3 유형은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정체된 형태를 보여줄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사무직 종사자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판매직 종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4의 유형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으로 생산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변화의 유형은 아직까지는 잠정적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지 선진국들의 변화과정을 통해 유추해보건대 우리사회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선진국내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반드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감소와 전문·기술·관리직 종사자의 증가,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의 증가후 감소의 유형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선진국내에서도 각 나라마다 상이한 변화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2. 취업자의 특성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을 우선 살펴보면, 우선 전체 취업자의 연령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종별로 변화의 양상은 다르다.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나,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30-40대 또는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농업 및 어업 숙련직과 단순 노무직에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율이 높다.

취업자의 교육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상당수의 직종에서 고졸자들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직종별 학력차는 크다. 예측할 수 있는 바대로 <상위> 직종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농업 및 어업 숙련직과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의 학력은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직업활동은 30-50대의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소의 변화는 있지만,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또한 15-19세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3. 정보사회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폭발은 법률, 의료, 회계 등과 같은 기존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전문영역을 가진 특수 전문직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 정보화에 따라 판매와 서비스 노동도 경제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이 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상 한국사회는 정보화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만,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확산과 정보처리부문의 팽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처리, 정보기기의 생산 및 조작 등을 위해 숙련근로자들이 요구됨에 따라 고학력 기능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저학력 근로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양극화의 명제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조직사회화

사회가 보다 조직화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기록과 처리에 요구되는 관리직 및 사무직의 팽창을 수반하게 된다.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살펴볼 때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 1970년대는 생산직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판매직 종사자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사회화가 급히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봉급·임금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리직에서의 사업자의 감소와 봉급·임금 근로자의 큰 증가는 최근 몇년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유통업계의 구조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성별 분절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으로의 여성 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전문직, 사무직에 여성참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같은 직업군내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성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업구성의 성별 특성을 보면 그동안 꾸준히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 범주에서의 성별 분절 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여성 전문직 또는 여성 반전문직을 제외하면 이들 범주에서의 성별 분절 현상은 현저하다.

반면에 사무직에서의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무직이 여성들에서 직업기회의 천정을 이루면서 고학력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블루칼라 직업 범주에서는 남성들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업 및 어업 관련직이나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무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무직에서의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주목된다.

6. 계층구조의 변화

직업은 한 개인의 계층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직업구성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의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업하류계급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 두 계급은 소수로 변하였다. 대신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중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은 1990년이후 줄어들고 있다. 대신 중상계급과 구중간계급이 이 시기에 증가하고 있다.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을 넓은 의미의 중간계급이라고 상정하면,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중간계급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7. 인구센서스 보완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직업분류가 계층 및 계급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인구센서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제한은 직업을 바탕으로 한 계층연구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센서스의 보완은 두가지 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한다. 즉 질문항목의 추가문제와 자료의 신뢰성 확보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에 대한 정보나 실업자의 실업기간 및 이전 직업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직 하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항목 및 사회이동에 관한 내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직업에 관한 조사내용을 좀 더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의 명칭과 종사상의 지위와의 관계를 가려내는데에는 전문적 식견이 요구된다. 직업의 명칭과 종사상의 지위의 불일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센서스에서 다루는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일정 범위내에서의 오차는 물론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크게 벗어난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가려져야 한다.

<보론> 직업구조의 국제비교

보론에서는 우리 나라 직업구조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의 직업분류체계와 직업구조를 살펴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업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1. 미국, 일본의 직업분류체계와 직업구조

1) 미국

미국은 16세이상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직업활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분류와 13개의 대분류체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군인은 노동력자료에서 배제하고 있다(<표1>참조). 1990년 현재 미국의 직업구조는 전문·관리직 종사자 26.4%, 기술공·판매·행정보조자 31.8%, 서비스직 종사자 13.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2.5%에 불과하다.

<표 1> 미국의 직업분류체계 및 직업구성(1990년, 16세이상)

직업분류		비율 (%)	
1-0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1-1 임직원·행정직·관리직종사자	26.4	12.3
	1-2 전문직종사자		14.1
2-0 기술공·판매·행정보조자	2-1 기술공 및 관련보조자	31.8	3.7
	2-2 판매종사자		11.8
	2-3 행정보조자(사무직 포함)		16.3
3-0 서비스직 종사자	3-1 개인가사서비스	13.2	0.5
	3-2 보안서비스		1.7
	3-3 기타 서비스		11.0
4-0 농·림·수산업 종사자		2.5	
5-0 정밀생산·기능직·수리공		11.3	
6-0 기계조작·조립공·노무직근로자	6-1 기계조작·조립·검사공	14.8	6.8
	6-2 수송·이동운전원		4.1
	6-3 조작·장비세척·보조공 및 노무자		3.9
X-1 군인		-	
계		100.0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90 Census of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1993, <Table 20>에서 계산.

이어서 미국 직업구조의 변화를 단순분류 수준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2>를 보면, 관리직·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985년 24.1%에서 1995년 28.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리직·전문직 종사자가 직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사이 늘어났지만, 여타 직업군의 경우를 보면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즉 기술공·판매·행정보조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체하고 있으며, 정밀생산·기능직·수리공, 기계조작·조립공·노무직 근로자 및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표 2> 미국의 직업구조 변화, 1985-1995 (16세 이상 노동인구)

(단위: %, 천명)

직업	1985	1990	1995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24.1	25.8	28.3
기술공·판매·행정보조자	31.0	31.1	30.0
서비스직 종사자	13.5	13.5	13.6
정밀생산·기능직·수리공	12.4	11.6	10.8
기계조작·조립공·노무직근로자	15.7	15.2	14.5
농·림·수산업 종사자	3.2	2.9	2.9
계 (N)	100.0 (107,150)	100.0 (118,793)	100.0 (124,900)

출처: Eva E. Jacobs, ed. *Handbook of U.S. Labor Statistics: Employment, Earnings, Prices, Productivity, and Other Labor Data*, 1st edition. Lanham, MD: Berman Press, 1997, pp. 60-62에서 계산.

미국의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피고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을 보면 종사상의 지위를 민간 임금·봉급근로자, 공무원, 그리고 자영업주/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을 때, 77.4%가 민간 부문 임금·봉급 근로자이며 15.2%가 공무원으로, 이를 합하면 취업자의 92.6%가 피고용자

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주/가족종사자는 7.4%에 불과하다.

미국 취업자중 피고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적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지만, 비농업부문뿐만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조직사회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표 4>는 1950년 이후 농업 및 비농업 부문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력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1950년대 20%수준에서 1990년대 50%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농업부문은 같은 시기에 88%내외에서 92%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업, 비농업 모두에서 자영업주, 특히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미국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1990 (16세 이상 노동인구)

종사상의 지위		비율 (%)	
민간 임금·봉급근로자	영리사업체	77.4	70.7
	비영리기관		6.7
공무원	지방정부	15.2	7.1
	주정부		4.7
	연방정부		3.4
자영업주 또는 가족종사자	자영업주	7.4	7.0
	무급가족종사자		0.4
계 (N)		100.0 (115,681,202)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90 Census of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1993, <Table 22>에서 계산.

<표 4> 농업 및 비농업 종사자(16세 이상)의 종사상의 지위 분포 변화,
1950-1995

(단위: %)

연도	농업			비농업		
	임금·봉급 근로자	자영업 주	가족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1950	22.8	60.6	16.6	87.6	11.6	0.7
1955	24.8	57.8	17.4	88.6	10.5	0.9
1960	32.3	51.2	16.5	88.6	10.4	1.0
1965	31.8	52.7	15.5	90.0	9.1	0.9
1970	33.3	52.3	14.4	92.4	6.9	0.7
1975	38.2	50.5	11.3	92.5	6.9	0.6
1980	42.4	48.8	8.8	92.3	7.3	0.4
1985	48.3	45.9	5.8	92.2	7.5	0.3
1990	54.0	42.8	3.3	92.2	7.5	0.2
1995	52.7	45.9	1.3	92.6	7.3	0.1

출처: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August, 1989, <표 21>; Eva E. Jacobs, ed. *Handbook of U.S. Labor Statistics: Employment, Earnings, Prices, Productivity, and Other Labor Data*, 1st edition. Lanham, MD: Bernan Press, 1997, p. 66에서 계산.

2) 일본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을 노동인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업분류는 일본표준직업분류(1987년 6월 개정)에 기초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분류 10개, 중분류 61개, 소분류 294개로 이루어져 있다.¹⁾

1) 직업은 취업자에 대해 조사주기간중 실제 종사하고 있었던 일의 종류(조사기간 중 일을 쉬고 있었던 사람은 평소 실제로 종사하고 있었던 일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표 5>는 일본의 직업대분류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1974년 직업분류와 유사하지만, 보안직업종사자가 별도로 구분되고, 또한 생산관련직이 운수·통신 종사자와 기능공, 채굴·제조·건설 작업자 및 노무 작업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5> 일본의 직업분류체계

A 전문적·기술적직업 종사자
B 관리적 직업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판매 종사자
E 서비스직업 종사자
F 보안직업 종사자
G 농림어업 작업자
H 운수·통신 종사자
I 기능공, 채굴·제조·건설 작업자 및 노무 작업자
J 분류불능의 직업

출처: 日本 總務廳 統計局, <平成7年國勢調査抽出速報集計結果>, 1996.

<표 6> 일본의 직업구조 변화, 1955-1995

(단위: %)

직업대분류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문적·기술적직업종사자	4.6	5.0	5.5	6.6	7.6	8.7	10.6	11.6	12.8
관리적직업종사자	1.8	1.7	2.9	3.9	4.3	4.7	4.0	4.1	4.5
사무종사자	9.0	11.2	13.1	14.0	16.7	16.4	17.7	18.7	19.4
판매종사자	11.9	12.1	11.7	12.0	13.3	14.6	14.3	14.4	14.4
서비스직업종사자	4.8	6.1	5.8	6.1	6.5	6.9	7.1	7.2	8.0
보안직업종사자	₂₎	₂₎	1.2	1.2	1.4	1.4	1.4	1.4	1.5
농림어업작업자	40.1	32.6	24.5	19.2	13.8	10.8	9.2	7.0	6.0
운수·통신종사자	1.7	2.4	4.3	4.5	4.5	4.3	4.0	3.8	3.8
기능공, 채굴·제조·건설 작업자 및 노무작업자	26.1	28.8	30.9	32.4	31.8	32.1	31.5	31.3	28.9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¹⁾ '분류불능의 직업'을 포함시킴. ²⁾ 서비스직업에 포함되어 있음.

출처: 日本 總務廳 統計局, <平成7年國勢調査抽出速報集計結果>, 1996, p. 69; 1955년
과 1960년은 각년도 <日本統計年鑑>, 1997, <표 3-4>에서 계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구성된 1965-1995년간의 직업구조 변화가 <표 6>에 나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40년간 농림어업 종사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1955년 40.1%에서 1995년에는 6.0%로 되었다. 반면에 전문직·기술직과 사무종사자는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였는 바, 전문직·기술직의 경우 1955년 4.6%에서 1995년 12.8%가 되었으며, 사무직의 경우는 1955년 9.0%에서 1995년 19.4%가 되었다. 그리고 관리직 직업종사자, 운수·통신종사자, 기능공, 제조작업자, 노무작업자의 비중은 1955-70년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판매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 보안직종사자는 지난 40년간 그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 전문직, 기술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농림어업 작업자와 기능공, 제조작업자, 노무작업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은 미국과 유사한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표 7>에서 종사상의 지위의 분포를 보면 1965년이래 피고용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해 온 반면에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감소하고 있다.

<표 7> 일본의 종사상 지위분포 변화, 1965-1995
(단위: %)

연도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피고용자
1950	28.3	36.3	35.4
1955	25.3	33.7	41.1
1960	23.2	25.8	51.0
1965	19.9	19.3	60.8
1970	19.2	15.8	65.0
1975	18.0	12.0	69.9
1980	17.2	10.9	71.9
1985	15.8	9.7	74.5
1990	14.1	8.3	77.6
1995	12.2	6.2	81.7

출처: 日本 總務廳 統計局, <日本統計年鑑>, 1997 및 각년도에서 계산.

1990년 현재 일본의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의 구성을 보면,²⁾ 대부분의 직업에서 피고용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표 8>을 보면 농림어업 직업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고용인이 없는 업주와 가족종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표 8>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990

(단위: %)

직업대분류	고용자 (雇傭者)	임원	피고용인이 있는 업주	고용인이 없는 업주 ¹⁾	가족종업자	계
전문적·기술적직업종사자	83.3	3.6	4.1	8.0	1.0	100.0
관리적직업종사자	34.4	62.2	3.4	-	0.0	100.0
사무종사자	90.9	3.5	0.2	0.5	5.0	100.0
판매종사자	67.1	7.1	6.1	12.3	7.4	100.0
서비스직업종사자	67.8	2.2	5.9	12.6	11.6	100.0
보안직업종사자	99.6	0.2	0.02	0.2	0.0	100.0
농림어업작업자	8.4	0.3	1.8	44.6	44.8	100.0
운수·통신종사자	92.2	1.4	1.1	4.8	0.5	100.0
기능공, 채굴·제조·건설 작업자 및 노무작업자	80.3	2.8	3.3	9.3	4.3	100.0
전체	73.7	5.8	3.1	9.9	7.5	100.0

주: ¹⁾'가정내직자'를 포함.

출처: 日本 總務廳 統計局, <平成2年國勢調査報告: 第5卷 抽出詳細集計結果>, 1994, p. 234, <표 6-6>에서 계산.

2) 1995년 센서스의 직업부분은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1998년도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어, 1990년도 센서스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일본에서는 피고용자(employee)를 고용자(雇傭者)와 임원(役員)으로 구분된다. 고용자는 회사원·공원·공무원·단체직원·개인상점의 종업원·입주가사보조원·일고·임시고 등, 회사·단체·개인 또는 관공서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되고, 임원(役員)은 회사의 사장·취체역·감사역, 단체의 이사·감사, 공단이나 사업단의 총재·이사·감사 등으로 정의된다.

2. 직업구조의 국제비교

1) 국제비교시 유의점

직업구조에 대해 국제간 비교를 제시함에 앞서, 국제간 비교를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을 먼저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국가마다 사용하는 직업분류체계가 상이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미국 및 일본의 직업 대분류체계에서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1996년도 <노동통계연감>을 보면 국제노동기구가 1988년 제시한 신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29개국에 불과하다. 오히려 1988년 이전의 구분류체계에 따라 직업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다.

둘째, 동일한 직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나라의 현실과 이를 이해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분류수준의 관리자(manager) 범주의 경우에도 어느 직위까지를 관리자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는 나라마다 다른 차이가 나고 있다.

셋째, 직업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포함된 조사모집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통계조사제도의 미비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특정지역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⁴⁾ 연령면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국가들이 만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⁵⁾

4) 예컨대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 등은 도시거주 노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스리랑카 등은 일부지역이 배제되어 있다.

5) 터어키는 12세이상, 그리스, 이태리는 14세 이상, 미국, 스페인은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네델란드, 말레이지아는 64세, 헝가리는 74세로 상한선에 제한을 두고 있다.

넷째, 제시되어 있는 각국의 자료에 수준차가 존재한다. 전인구를 대상으로 한 센서스조사결과를 제시한 나라는 소수이며, 대부분 노동력표본조사에 근거하고 있는데, 두 조사간에는 다소의 편차가 존재한다.⁶⁾

다섯째, 일반적으로 군인의 경우 별도의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군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군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군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직업군인만을 포함하는 나라와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로 나누어진다.⁷⁾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있는 국가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직업구조의 국가간 비교

<표 9>에서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특성을 자료가 가용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관리자·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의 비율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아직 구체계에 따른 분류자료만을 보고하고 있다.⁸⁾ 따라서 한국의 직업구조를 여타국가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분류체계에 의한 비교가 여전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구분류체계에 의한 주요국가의 자료를 <표 10>

6) 한국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1장 참조.

7) 미국, 말레이시아, 터키, 칠레 등은 군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 우르과이 등은 군인을 별도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 이태리 총계에만 군인이 제시되어 있고, 영국은 서비스직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95년 센서스에서는 직업군인뿐 아니라 의무복무자를 포함하여 별도 범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군인이 제외되고 조사된다.

8) 한편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1988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분류기준에 따라 이전 자료들도 재정리해 보고하고 있다.

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경우 미국, 이태리,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보다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와 유사한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주요 국가별 직업분포, 1995 (신분류체계)¹⁾

(단위: %)

직업군	총수 (천명)	1	2	3	4	5	6	7	8	9	0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능원	기계 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군인
한국	20,377	2.6	4.8	9.0	12.3	21.9	11.7	15.8	10.7	11.2	-
독일 ²⁾	36,380	6.0	9.8	18.6	13.1	11.6	2.2	19.0	7.9	8.3	3.4
스페인	12,042	8.4	10.1	7.4	10.1	13.9	7.0	17.2	11.1	14.5	0.4
네델란드	6,835	12.3	16.4	18.0	11.7	13.3	1.8	11.0	7.5	7.1	0.8
그리스	3,824	10.1	11.2	5.6	10.2	11.7	19.9	16.8	7.1	6.4	1.0
폴란드	14,771	6.3	9.5	11.2	6.9	9.3	20.4	19.7	7.9	8.5	0.3
헝가리	3,679	5.8	10.8	12.5	7.9	14.3	3.5	22.5	10.7	9.2	2.8
체코	5,102	6.3	9.6	18.3	7.8	11.5	2.5	21.4	12.9	9.6	0.2
뉴질랜드	1,633	12.4	12.5	12.1	13.6	13.6	9.5	10.3	9.8	6.2	-

주: ¹⁾(1)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전문가 (3)기술공 및 준 전문가 (4)사무직원 (5)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6)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9)단순 노무직 근로자 (0)군인.

²⁾ 1993년도 자료.

출처: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6. Geneva: ILO, Table 2C에서 계산.

<표 10> 주요 국가별 직업분포, 1995 (구분류체계)

(단위: %)

직업군	총수 (천명)	0/1	2	3	4	5	6	7/8/9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단순노무
한국 ¹⁾	-	10.5	4.3	14.5	15.8	11.8	16.1	27.0
미국	124,900	17.6	13.8	14.7	12.1	13.6	2.9	25.3
이태리 ²⁾	20,002	1.1	9.7	13.3	14.5	15.9	4.8	40.7
일본	64,570	12.3	3.7	19.5	14.7	9.5	5.6	34.8
말레이시아	7,645	9.9	3.2	10.9	10.9	11.1	20.1	33.9
필리핀	25,698	5.6	1.6	4.3	14.0	9.0	43.7	21.7
터어키	21,378	5.7	2.3	4.8	8.7	7.3	47.9	23.3
멕시코	33,881	9.3	2.0	7.8	17.3	16.4	24.3	23.0
칠레	5,026	8.9	3.4	14.3	12.6	12.8	16.0	32.1

주: ¹⁾ 1995년 센서스 2%자료임. ²⁾ 1994년도 자료임.

출처: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6*. Geneva: ILO, Table 2C에서 계산.

종사상의 지위에 대해 ILO는 1993년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범주를 마련하였다. (1)피고용자(employees), (2)고용주(employers), (3)자영근로자(own-account workers), (4)생산자조합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5)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6)분류불능자(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 등이다. 여기서 생산자조합원이란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종의 자영근로자인데,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생산조직, 판매,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 범주 자체를 삭제하기도 한다. 가족종사자는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종의 자영근로자인데,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보다는 근로시간 등에 있어 사업장에 대한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동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에서 일단 분류불능자를 제외하고 보면 고용주, 자영

근로자, 생산자조합원, 가족종사자 등 자영업 종사자와 유급고용자인 피고용자로 구분된다. 피고용자의 비율을 각국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한국의 피고용자 비율은 62.5%인데 비해 주요 선진국은 85%이상이고, 한국과 산업구조나 직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81.7%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피고용자 비율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표 11> 국가별 피고용자 비율

(단위 :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슬로바키아	92.9	아이슬랜드	80.7
미국	92.6	아일랜드	78.0
덴마크	90.5	티리니다드 토바고	75.0
독일	89.4	스페인	74.5
스웨덴	88.8	폴란드	70.9
네델란드	88.1	파나마	67.8
싱가포르	87.9	한국	62.5
헝가리	86.9	스리랑카	62.4
체코	86.4	루마니아	60.7
슬로베니아	83.1	엘살바도르	54.8
일본	81.7	그리스	53.9

출처: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6. Geneva: ILO.

다음에 산업을 1차, 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주요국가의 산업부문별 취업자의 분포를 보기로 한다. <표 12>에 제시된 9개의 국가중 3차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작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그러나 15세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가장 낮다.

<표 12> 주요 국가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분포, 1995 (15세 이상)

(단위 : %)

국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미국 ¹⁾	2.9 (3.1) ³⁾	23.0 (26.6)	74.1 (70.4)
독일	3.2	34.9	61.9
캐나다	4.1 (4.9)	21.9 (24.2)	74.0 (70.9)
일본	5.7 (8.5)	33.0 (34.1)	61.2 (57.5)
스페인 ¹⁾	10.2 (17.1)	37.5 (37.2)	52.4 (45.7)
한국	12.5 (23.6)	32.9 (31.6)	54.7 (44.8)
칠레	15.7 (20.6)	25.5 (20.6)	58.8 (58.8)
말레이시아 ²⁾	20.0 (30.6)	31.7 (22.3)	48.3 (47.1)
멕시코	24.8 (23.8)	21.2 (26.3)	54.0 (49.9)

주: ¹⁾16세 이상. ²⁾15-64세.

³⁾괄호안의 수치는 1986년도(멕시코는 1988년도) 자료임

출처: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6*. Geneva: ILO, Table 2B에서 계산.

참고문헌

- 김경동. 1979. 「직업평가에 의한 기회구조의 인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 63-76.
- 김병조. 1993.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구조에 대한 계층론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모. 1979.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23집: 313-335.
- _____.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 김지섭. 1992. 「화이트칼라의 내적 분화와 계층론적 함의: 대구시 전문·관리·사무직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 1994. 「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 노동과정의 변화: 은행 및 보험기업의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28집(봄호): 143-175.
- 김필동·김병조. 1995. 「해방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사회조직의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4권(사회 편), pp. 265-329.
- 서관모. 1987. 「한국사회계급구성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양종희. 1988.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적 배경, 직업상황 및 계급적 성격」.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전예원, pp. 299-335.
- 이 건. 1997.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의 변화」. 홍두승 (편),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차경수. 1983. 「교원의 직업적 위신과 그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pp. 241-258.
- 차종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pp. 71-140.
- 홍두승. 1983a. 「한국사회 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pp. 169-213.
- _____. 1983b.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 _____. 1983c.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pp. 65-84.

- _____.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 (겨울호): 23-45.
- _____. 1992. 「분배적 정의와 형평의식」.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pp. 141-170.
- _____. 1997. 「사회발전과 직업구조의 변화」. 홍두승 (편),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두승 · 안치민. 1995. 「해방 50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그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4권 (사회 편), pp. 65-96.
- AP(Associated Press). 1993. "Too Few Farmers Left To Count, Agency Says," *The New York Times* (October 10): 19.
- Abbott, Andrew.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An Essay on the Division of Expert Lab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ercrombie, N., and J. Urry. 1983. *Capital, Labour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Acker, J. 1973. "Woman and Soci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936-945.
- Bell, Daniel. 1977. *The Coming of Post 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Blau, P., and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Bourdieu, P. 1990.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하)」. 최종철(역), 새물결.
- Braddock, Douglas. 1995. "What is a Technician?." *Occupational Outlook Quarterly*. (Spring): 38-44.
- Braverman, Harry.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Castells, M., and Y. Aoyama. 1994. "Paths towards the Informational Society: Employment Structure in G-7 Countries, 1920-90." *International Labor Review* 133: (1):.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MA: Blackwell.
- Crompton, Rosemary.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Davis, K., and W. E. Moore. 1945. "Some Principle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 242-249.
- Dordick, H. S., and G. Wang. 1993. *The Information Society: A Retrospective View*. Newbury Park, CA: Sage.

- Drudy, Sheelagh. 1991.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Class in Sociological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0(1): 21-41.
- Freidson, Eliot. 1970.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New York: Atherton.
- Goldthorpe, John. H., and K. Hope. 1983. "Woman and Class Analysis: in Defence of the Conventional view." *Sociology* 17(4): 465-488.
- _____. 1974. *The Social Grading of Occupations: A New Approach and Scale*. Oxford: Calrendon Press.
- _____(with Llewellyn, Catrina and Clive Payne).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alrendon Press.
- Hall, Peter. 1988. "Regions in the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Economy." Pp. in *America's New Market Geography*, edited by G. Sternlieb et al. New Brunswick, NJ: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Hall, Richard. 1994. *Sociology of Work*.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Haug, Marie R. 1977. "Measurement in Social Stratifi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 51-77.
- Hodson, R., and T. A. Sullivan. 1996.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 2nd. New York: Wadswrth Publishing.
- Hyman R., and R. Price, eds. 1983. *The New Working Class? White-collar Workers and Their Organiz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 Jacobs, Eva E., ed. 1997. *Handbook of U.S. Labor Statistics: Employment, Earnings, Prices, Productivity, and Other Labor Data*, 1st edition. Lanham, MD: Bernan Press.
- Koo, Hagen. 1982.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Pp. 45-66 in *Society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edited by Yunshik Chang, et al.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arson, Magali S. 1977.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pset, Seymour M., and Reinhard Bendix.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 David. 1988. *The Information Society: Issues and Illusions*. Cambridge, MA: Polity Press.
- MacKenzie, D. 1990. "영국에서의 우생학 및 수리통계학 융성," J. Irvine, I. Miles and J. Evans. (eds). 김정로, 박태원(역). 『알기 쉬운 사회통계학 강의』, 이성과현실사, pp. 33-48.
- Macdonald, Keith M.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Thousand Oaks, CA:

- Sage.
- Machlup, F. 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sh, Catherine. 1986. "Social Class and Occupation." Pp. 123-159 in *Key Variables in Social Investigation*, edited by Robert G. Burg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orrison, A. M., and M. A. Von Glinow. 1990. "Women and Minorities in Manag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 200-208.
- Nicholes. 1990 "사회계급-정부, 사회학, 마르크스주의에서," J. Irvine, I. Miles and J. Evans. (eds), 김정로, 박태원(역), 『알기 쉬운 사회통계학 강의』. 이성과학실험사, pp. 152-170.
- OECD. 1981. *Information Activit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Paris: OECD.
- Parkin. F. 1972.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Paradin.
- Parsons. T. 1940. "An Analytical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5: 841-862.
- Payne, Geoff. 1987. *Employment and Opportunity*. London: MacMillan Press.
- Penn, Roger, and H. Scattergood. 1985. "Deskilling or Enskill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Recent Theories of the Labor Proces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6: 611-630.
- Porat, M. U., and M. Rubin. 1977. *The Information Econo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oulanzas, N. 1978.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Verso.
- Raelin, Joseph A. 1986. *The Clash of Cultures: Managers Managing Professional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Rothman, Robert A. 1997. *Work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Routh, Guy. 1987. *Occupations of the People of Great Britain, 1801-1981*. London: MacMillan Press.
- Singelman, Joachim. 1978.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y: From Agriculture to Service Employment*. Beverly Hills, CA: Sage.
- Vanneman, Reeve D. 1980. "U. S. and British Perceptions of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January): 177-214.
- Wieczorek, Jaroslaw. 1995. "Sectoral Trends in World Employment and the Shift Toward Servic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4(2): 205-226.

- Williams, F., ed. 1988.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Beverly Hills, CA: Sage
- Wright, Eric O.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New Left Review.
- _____, 1980. "Class and Occupation." *Theory and Society* 9: 177-214.
- _____, 1985. *Classes*. London: Verso.
- _____, 1989. "Woman in the class Structure." *Politics & Society* 17(1): 35-66.
- 大橋隆憲. 1971. 『日本の階級構成』. 東京: 岩波書店.

통계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3. 『한국표준직업분류』.
- _____. 1966. 『한국표준직업분류』.
- _____. 1970. 『한국표준직업분류, 1970』.
- _____. 1974. 『한국표준직업분류, 1974』.
- 내무부. 1960. 『단기 4293년도 국세조사용 직업분류』.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 _____. 1995. 『한국직업사전』, 제2판,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통계청. 1955-1990. 『인구및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
- _____. 1986.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1992』.
- _____. 1995.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 _____. 1997. 『1995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표준직업분류』. 미간행 자료.
- 總務廳 統計局, 1996. 『平成7年國勢調査抽出速報集計結果』.
- 日本 總務廳 統計局, 1994. 『平成2年國勢調査報告: 第5卷 抽出詳細集計結果』
- _____, 1996. 『平成7年國勢調査抽出速報集計結果』.
- _____, 1997. 『日本統計年鑑』.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6.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6*. Geneva: ILO.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Great Britain. 1980.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Coding Index*. London: HMSO.

- _____. 1994. *1991 Census: Economic Activity*. Vol. 2 of 2. London: HMSO.
- Statistics Canada. 1995. *1991 Census Technical Reports: Occupation According to the 1991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at. No. 92-344E. Ottawa.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93. *1990 Census of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89.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August.